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 건축사

칼럼 건축사대회를 준비하며  
시론 친환경건축의 미래로의 초대  
사람중심 명품도시로 - 종로는!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97**  
<http://www.kira.or.kr>  
**201009**

# 건축사대회를 준비하며

Kira 2010 National Convention

낙엽이 붉게 물드는 10월, 눈부시게 빛나는 가을 하늘 아래 대한건축사협회는 '2010 전국건축사대회'를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합니다.

'2005 부산대회'와 '2007 서울대회'를 치르면서 건축사들에게는 건축인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켰으며, 무엇보다도 행정 당국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가는 주체자가 건축사임을 각인시키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행사는 건축사와 건축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잔치입니다.

이번 경기도에서 맞이하는 전국건축사대회는 「녹색성장을 창조하는 건축사」라는 주제로 10월 22일에 진행됩니다. 대회 1부는 우리대회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선포식을 하고, 2부 본 행사는 우리 일반여 건축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빈들이 차리를 빛내주시고, 경기도지사의 환영사와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대전 기간 중이므로 토론 및 강연회는 대회기간 내내 상설되어 있어 각자의 기호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시고, 차기 예정지인 빛고을 광주에 대회기를 전달하고 건축사 만세 삼창으로 분행사가 마무리 되면 차기 광주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는 것으로 본 행사는 성료하게 됩니다.

축제한마당이 될 3부는 인기 연예인의 공연과 지역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우리 회원들의 장기자랑과 명사 초청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건축사 일천여명은 회원님들을 정성껏 모시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역시 많은 회원들이 기쁨과 감동을 함께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토대로 서울을 비롯한 16개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순회하면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정례화하는 것을 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으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갑작스러운 대회 유치로 준비하는 시간과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차차기 대회까지 미리 정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가 계획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영집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후원사 여러분들, 그리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경기도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백승천 / Park Seung-cheon, KIRA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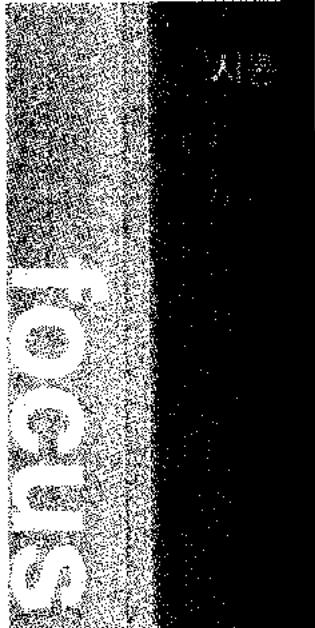
## 의역

- (주)도시공간디앤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 YMCA 이사
-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 심의위원회 위원

건축사 여러분! 우리 경기도에는 많은 유적지와 새로운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효의 도시, 역사의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경기도에 오셔서 멋있고 뜻있는 한마당 축제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10월 22일 고양 킨텍스에 모두 모두 초대합니다. ■

# 친환경건축의 미래로의 초대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미래 산업의 역동성을 추구하고 산업의 다각화 속에서 건축의 폭넓은 이해와 전시 참가사들의 매출증대 및 새로운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친환경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0일(수)부터 10월 24일(일)까지 5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현재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화재, 자연 등의 자연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CO<sub>2</sub>의 증가, 고에너지 사용, 자원의 고갈 등이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부도위기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 또 앞으로 50년 후면 빙하의 해빙으로 인해 해수면이 30cm 이상 상승하여 많은 지역과 건축물이 물에 잠기는 등 더 큰 재난 앞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특히 우리 건축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친환경’은 나와 우리, 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를 살리는 ‘키워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친환경건축의 미래’이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자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CO<sub>2</sub> Zero, Energy Zero, Waste Zero를 목표로 하는 친환경건축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최상의 비즈니스와 풍성한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특히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는 전시회와 아울러 다양한 동시행사가 개최된다. 전국 1만여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정보 교류 및 친목을 다지는 ‘전국건축사대회’와 대한민국 최대의 건축시상제도로서 시상 및 전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건축관련 신기술 보급과 혁신을 위한 ‘건축사 연수교육’ 및 ‘친환경건축 선포지엄’이 개최되며, ‘한국농어촌건축대전’을 비롯한 ‘건축사 미술전’과 ‘사진전’, ‘건축사 신인전’ 등 다채로운 관련 행사가 모두 통합되어 진행된다.

이외에도 국제건축사연맹(UIA)을 비롯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태국 등에서 활동하는 각국 건축단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국제적인 교역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과 행사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경기 하강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 참가업체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건축관련 분야의 모든 당사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실을 평계로 두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러한 큰 행사를 협회의 전시사업위원회 위원들만의 노력으로 성공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건축사들의 단합과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사와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가 되어야 한다.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가업체들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전시회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 사업위원회는 얼마남지 않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여 전국의 건축사 및 가족, 건축 관계자 및 일반인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이다.

우리의 ‘2010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일부의 잔치가 아닌 우리가 주인인 건축계 전체의 행사이며 축제야기를 기원하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전시회의 성공으로 우리의 어깨가 활짝 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강성호 / Kang Sung-ho, KRA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사업단장

- 의역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 충의대학교 대학원
  - (주)한국 종합건축사사무소
  - 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사람중심 명품도시로 - 종로는!

Jongno! - Towards Human Friendly Masterpiece City

S  
O  
C  
I  
A  
L  
C  
I  
T  
Y

종로는 지역 전체가 문화유적지로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고공과 인사동, 북촌, 청계천 등 관광명소가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고, 개발할 부분은 개발하여 역사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시기능으로 발전시켜야 할 곳은 개발의 삽을 들어야 하는 등 도심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곳이다.

특히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춘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거리나 건축물의 디자인도 종로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주변과의 조화를 잘 이루도록 구성해야 할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건축 미술의 상장성을 대표해야 할 이유도 있다.

이는 세계의 유명도시들이 그 시대의 건축양식으로 역사의 변천을 이뤄온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한옥양식이라는 근사한 건축의 미를 창조해냈음에도 근대 이후로는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우리 고유의 건축 기술을 현대건축물과 조화롭게 승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히 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로는 대한민국의 상장성이 있는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건축물 하나 하나를 짓더라도 고유의 성격은 훼손하지 않고 아름답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눈에 띠도록 창작적인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편안한 건물이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겠지만 사용 용도에 따른 차별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프랑스 리옹에 소재한 라뚜엣 수도원은 경건하고 인력함을 표현하였고,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건물자체가 하나의 미술작품같이 창의적인 디자인이 독특하여 이목을 끌 뜻이 종교건물이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답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며, 미술관이나 쇼핑센터 같은 건물은 창의성에 더 치중하여 밤길을 건물안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4대궁궐과 북촌 등 조선시대 대표적인 건축양식과 성공회 성당 같은 로마네스크식 근대건물을 보유한 종로가 이제는 건축역사의 변천을 승계하고 조화롭게 개발된 현대 건축미를 보여줌으로서 대한민국의 건축미술의 역사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명품도시 종로', 이는 종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 하나 하나를 짓더라도 좀 더 예술성 있게 삼衡을 가을여 도시의 품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용도에 맞는 건물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질서와 창의를 추구코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적인 외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당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불편하지 않고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명품도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노약자, 장애인들을 위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걷을 수 있는 도로, 경사가 급한 곳은 높이를 고르게 한 계단과 잡고 오르내릴 수 있는 난간, 공원의 휴식처에는 벤치 하나 하나가 사람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시설이 되었을 때 편안한 도시로서의 행복감을 줄 수 있다.

며칠 전 종로의 한 공원을 들리보다가 공원벤치마다 노숙자 방지용 구조물이 설치된 것을 보게 되었다. 의자 가운데 설치물 때문에 할머니와 손주, 연인들이 떨어져 앉게 되다니 너무 비인간적이 아닌가! 벤치라는 휴식 공간과 정감을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종로지역은 이 벤치의 상부 구조물을 다 철거토록 하였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이다. 외형을 너무 중시하다가 전면 유리로 치장한 듯한 건물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에너지 절약과는 배치되어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주변과 잘 어울리는 건물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평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작은 시설물부터 도시를 채우는 건축물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주변과의 어울림은 물론 사람위주인가가 고려될 때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가 완성되는 것이다.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거리미관을 해치는 조악한 건축시설물이 이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도시, 이와 더불어 역사적인 명소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도시가 종로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도시이며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종로를 찾는 세계인들은 "역시 종로는 명품도시야."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날을 위해 땀으로 종로를 디자인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 생각하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기대해 본다. ■



김영종 / Kim, Young-jong  
종로구청장

## 의학

- 건축사, 행정학 박사
- 서울시 한옥심사위원회  
심의위원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 한국수자원공사 이사

# 도곡2동 문화센터

## Dogok2-dong Culture Center

조주한 / 정희원 · 정근수 (주)사이플랜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Cho, Ju-hwan, KIRA · Cheong, Keun-soo  
 Project Team Kim, Chang-kuk · Park, Eun-yeong · Jo, Gye-won · Lee, Min-jeong ·  
 Won, So-yun  
 Client Dogok2-dong Office  
 Location Seoul Gangnam-gu Dogok2-dong 459  
 Site Area 1,181m<sup>2</sup> Building Area 684m<sup>2</sup>  
 Gross Floor Area 4,878m<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58.09%  
 Floor Area Ratio 187.19% Structure R.C, S.C  
 Structural Engineer Dongyang Structural Engineering Corp.  
 HVAC Engineer Northstar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Kodug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Hwa Young Industrial Building Scope B3, 5F  
 Finishing Materials Ceramic Panel, Exposed Concrete, Color Pair Glass  
 Photographer Studio View Cost not disclosed

도곡2동 문화센터는 기존의 동사무소가 위치했던 대지에 공공서비스 기능 위주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여기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문화센터를 건립한 프로젝트로서, 강남구에서 발주한 현상설계공모 1등 당선안이다.

지역사회 대 문화시설, 생활 대 예술 등 문화와 관련된 이분법적 틀을 깨고 주민과 일상적인 삶으로부터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여 주변의 도시적 흐름과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연속성을 가진 열린장(Field)으로서의 문화센터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가로에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로 흐름단절을 극복하였고 1층 필로티와 선콘으로 저층 가로부분을 적극적으로 비워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외부에서 상층부의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외부에 Grand Stairway를 계획하여 각 시설의 연장과 부속공간의 연결을 통해 연속된 문학지형을 구축하였다.

내부에서는 스포츠, 전시, 공연,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각각의 공간을 아트리움을 통해 기능적, 시각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도시조직의 흐름을 건물로 연장시켜 이용의 편리성과 재미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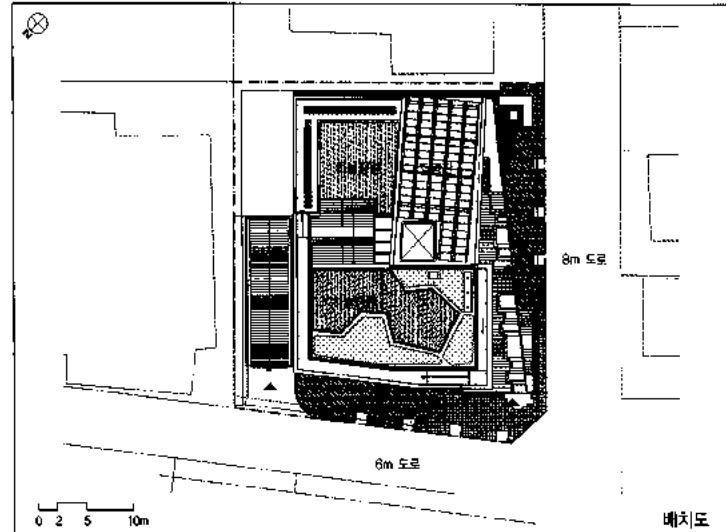
입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복합시설로서의 특성을 외부에 표현하고자 세라믹페널, 노출콘크리트, 거튼월 등 각 영역마다 독특한 외장재료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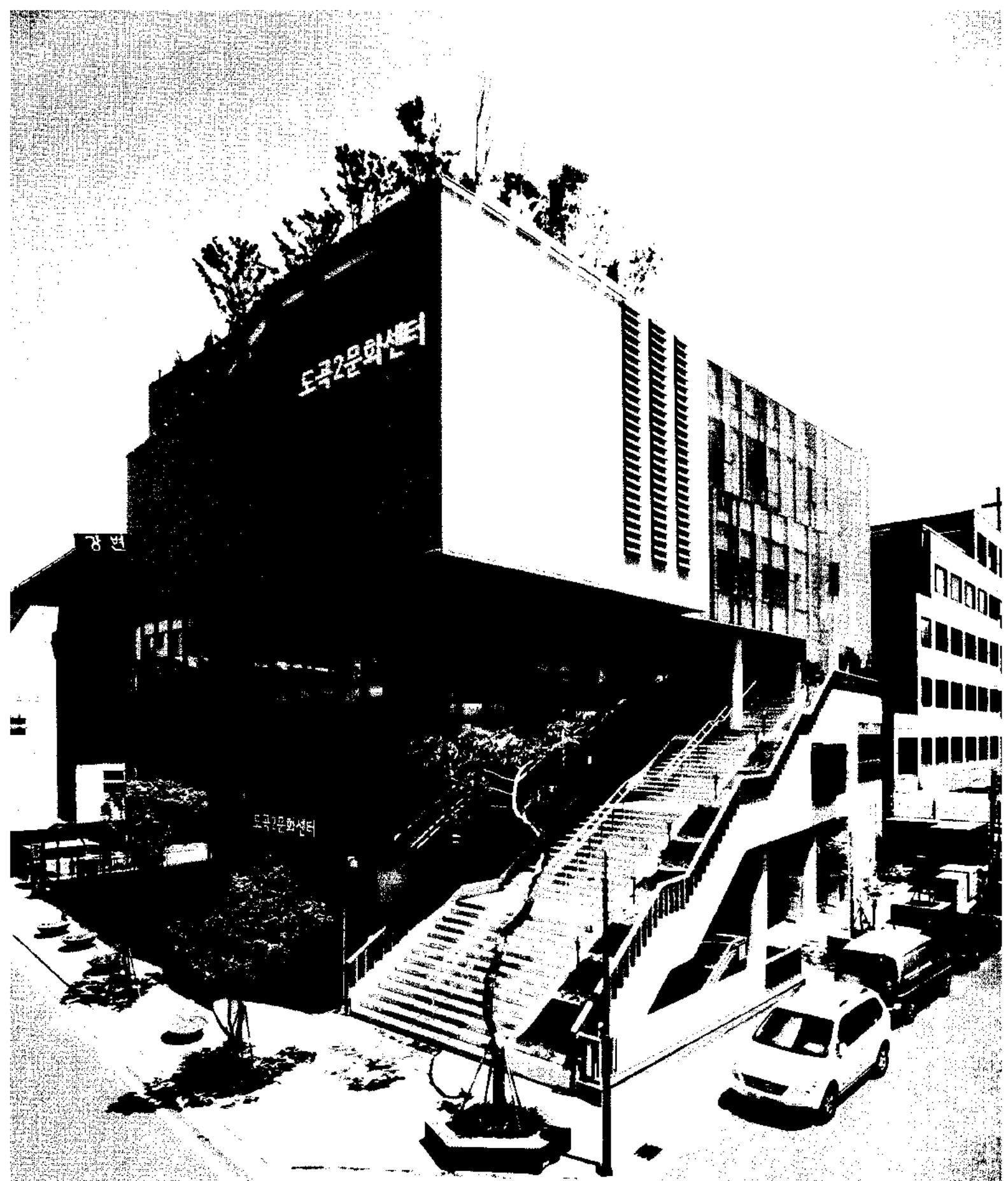
외부공간인 Grand Stairway와 개방공간의 투명한 표마는 민원실, 로비, 전시장, 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의 풍경을 외부에 직접 투시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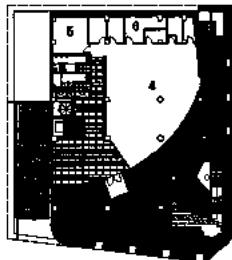
Dogok2 Community Center, won the 1st prize in Gangnam-gu competition, is a project in which the neighborhood could approach and gather easily in their daily lives.

The community center is planned as an "Open field" by providing accessibility from the daily lives and to the nearby urban and cultural flow, breaking the dichotomous rules of local community / cultural center and, art / life. The center is easy to approach from the main road and the open to the public with planning a pillow mote and a sunken garden. The grand stairway allows access to each spaces inside of the center. The spaces such as a sports center, exhibition hall, theater, education hall are connected the atrium inside so that functional and visual harmony could be m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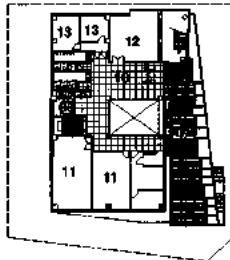
By using ceramic panels, plain concrete, curtain wall system on the facade, different feelings of atmosphere are expressed. The transparent skin of the grand stairway and open spaces allow the inner spaces such as the public service center, lobby, theater and exhibition hall open to the public and the neighborhoo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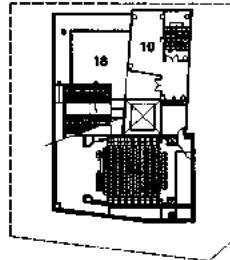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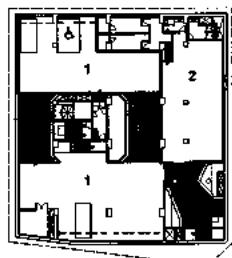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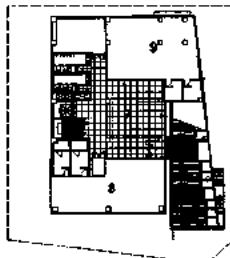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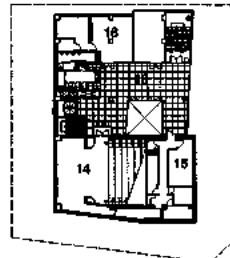
5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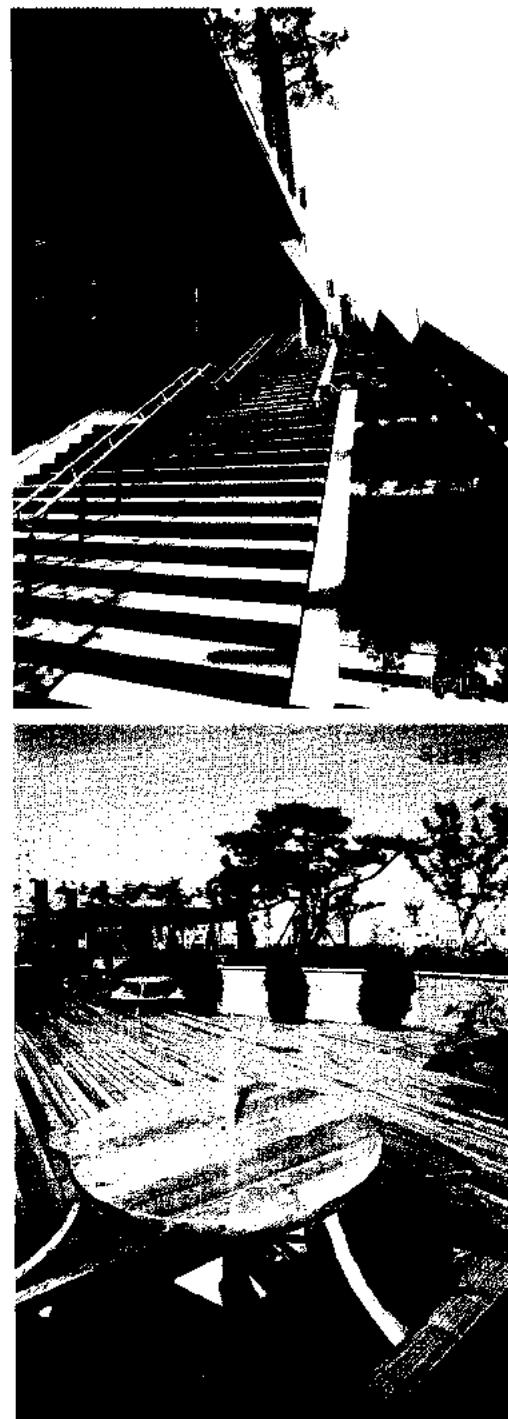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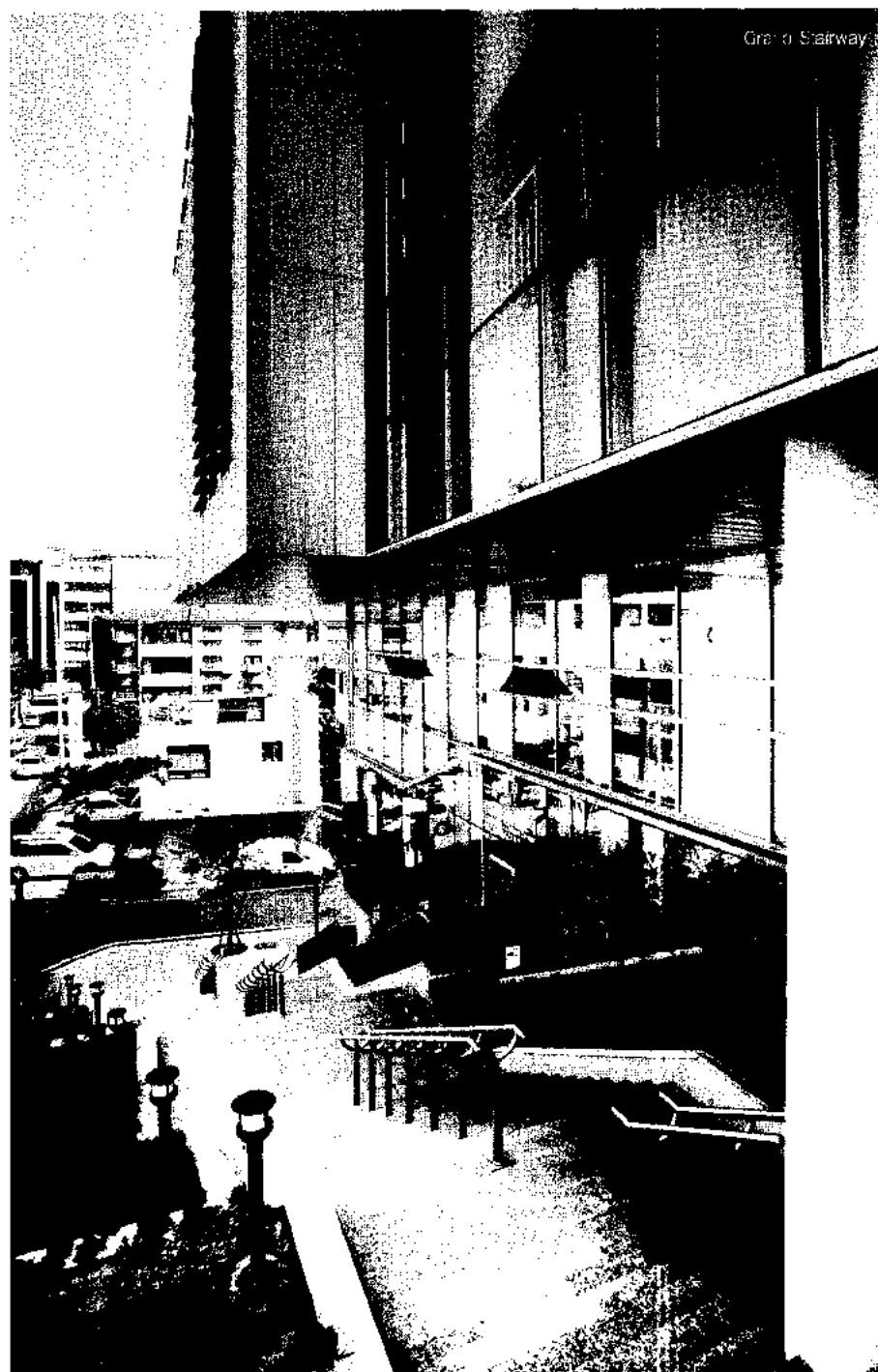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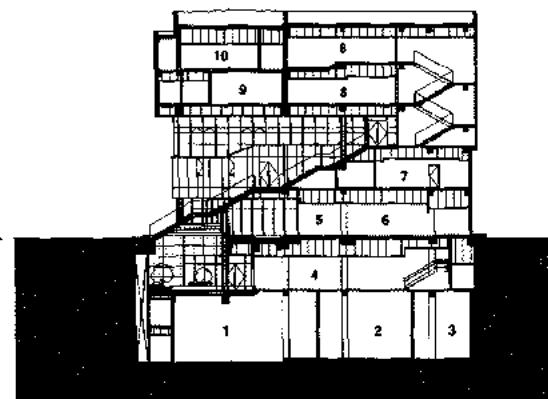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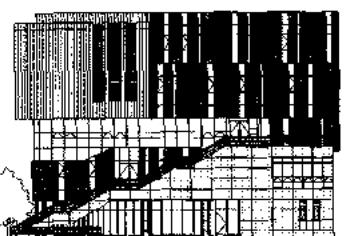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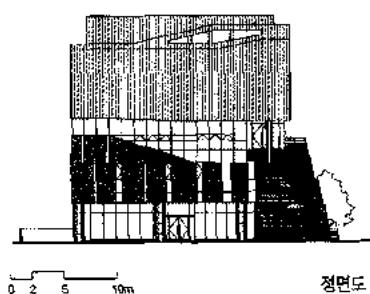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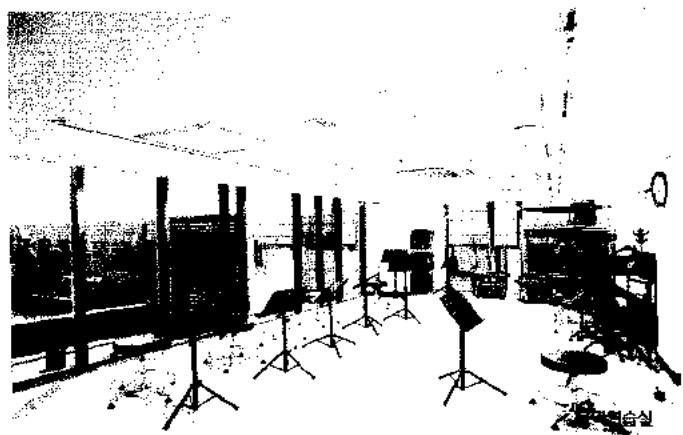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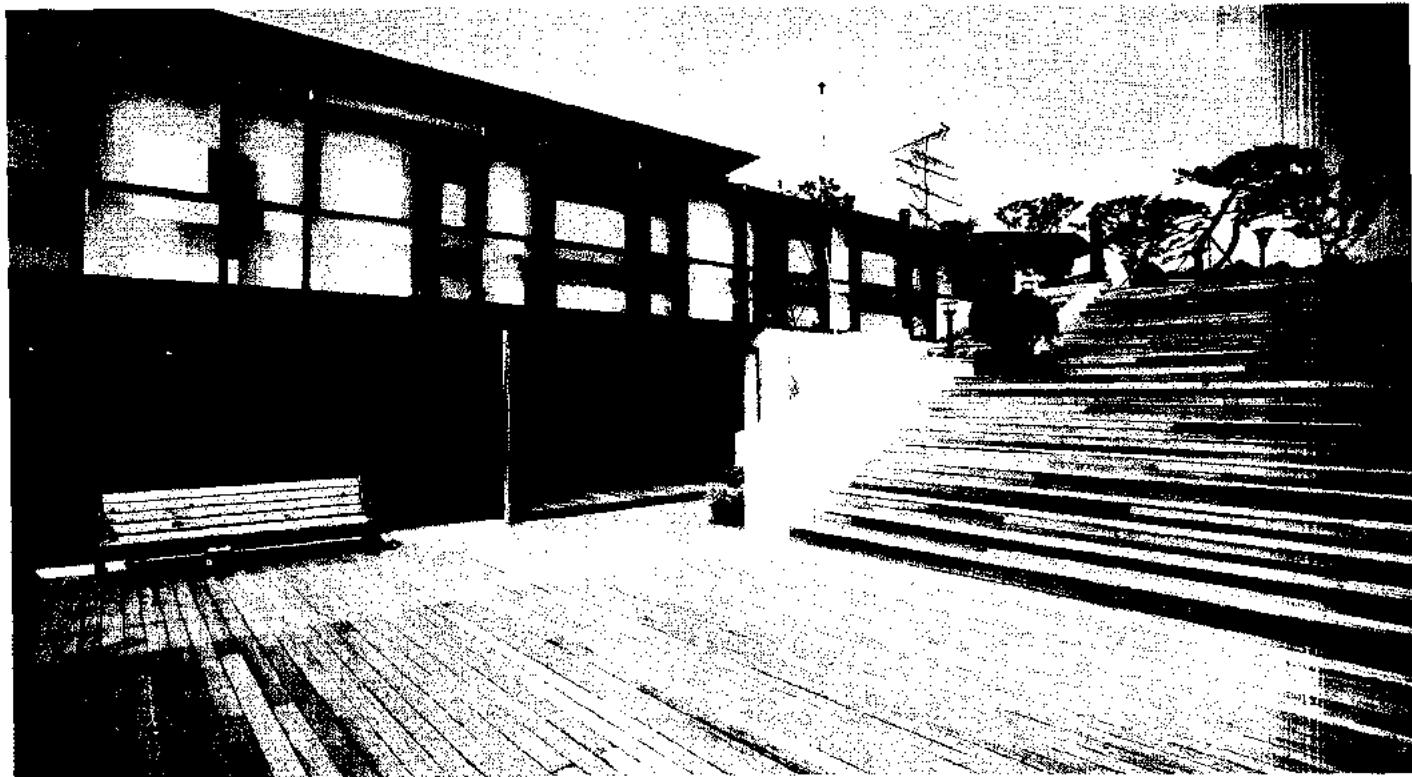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 01\_ 주차장
- 02\_ 골프연습장
- 03\_ 옥외
- 04\_ 만원, 행정실
- 05\_ 소회의실
- 06\_ 주민동포관
- 07\_ 음, 카페테리어
- 08\_ 웰스강
- 09\_ 생활교육실
- 10\_ 을
- 11\_ 문화취미교실
- 12\_ 전시장
- 13\_ 음악연습실
- 14\_ 무대
- 15\_ 공조실
- 16\_ 식당
- 17\_ 운연장
- 18\_ 육상점원





- |             |           |         |            |         |
|-------------|-----------|---------|------------|---------|
| 01_ 기계실/저수조 | 03_ 일전기실  | 05_ 민원실 | 07_ 생활체육교실 | 09_ 조경실 |
| 02_ 진기실     | 04_ 끌프연습장 | 06_ 험경실 | 08_ 홀      | 10_ 공조실 |

# 경북대학교 · 금오공과대학교 학생기숙사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umho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Dormitory

이병철 / 정희원 (주)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부족한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하여 BTL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발주된 시설로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및 의대, 금오공과대학교에 학생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약 2년간의 협상과정과 설계변경 과정을 거쳐 완성한 프로젝트이다.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 교내에 첨성관 및 의과대학 주변의 상업지구에 명의관이 위치하며,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 교내에 오름관이 위치하고 있다.

건물에 요구되는 공간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시생실공간과 편의시설로 식당, 체력단련실, 편의점, PC방, 휴게실 등의 공용공간과 지원기능을 가진 관리 및 행정실, 사감 및 상담실의 지원공간으로 구분되어 각 공간간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가 요구되었다.

이런 공간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부지여건 내에서 향과 조망이 확보되는 시생실 배치, 학교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와 조화로운 디자인 확보, 독립영역과 공공영역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공간계획, 휴식과 이벤트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외공간을 조성하였다.

협소한 부지, 적은 공사비, 오랜 협상기간 등 많은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만들어진 결과를 이기에 만족스럽지 못하여도 애정이 많은 프로젝트였다.

이곳이 학생들에게 편안한 집으로 역할을 기대하며, 젊은 시절의 꿈을 풀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해본다.

The Student Housing Facility Project by Build-Transfer-Lease[BTL]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was launched in 2005 to expand and enlarge the student dormitory facilities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chool of Medicine, and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due to a lack of suitable dorm facilities. After following the two-year-long process of negotiations and design changes from 2005, the Project has successfully finished.

It includes three new dormitory buildings: first 'Chum-Sung-Kwan', located i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ampus in Daegu city; second 'Myung-Eui-Kwan' in the commercial district arou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lastly 'O-Reum-Kwan' in the campus of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Gumi city.

Required spaces of the student dorm facility include: a private space for student rooms; a public space for modern conveniences such as cafeteria, fitness center, convenient store, PC room, student lounge, etc.; and lastly an administrative support space for offices such as maintenance & administration, dormitory superintendent, and counselling. Each was required to secure its own independence and publicity between spaces. Based on these space plans, we have successfully accomplished to create a welcoming and functional space with the highlights of four design points.

First, we planned the arrangement of student rooms with good orientation and view even under limited conditions of the site. Second, we attempted to secure and convey a harmonious design as well as a unique identity of the university.

Third, we designed a co-existing space so the independent and public zone can naturally coexist. Lastly, we created a wonderful outdoor space that is open for students to relax and organize events.

The entire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was quite tough due to some difficult conditions such as small and limited site, low construction costs, long negotiations, and other related issues. But this is why we feel much affection for this project, though we are not quit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what we have here now. We expect this place to become a cozy and comfortable housing for all students; furthermore, we hope they can dream of the bright future and take a better step to achieve their goals here. ■

Architects Lee, Byung-chul, KPA

Project Team: Kim, Ji-bong · Hong, Seung-woo · Yang, Min-suk · Park, Kwang-sun · Yoo, Gil-nam · Hwang, Byoung-gu · Client KNU · KNT

① Chum-Sung-Kwan ② Myeong-Eui-Kwan ③ O-Reum-Kwan

Lo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Daegu, Jung-gu, Samdeok-dong ·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ite Area: 1,500m<sup>2</sup> · 5,175.57m<sup>2</sup> · 0.360km<sup>2</sup>

Building Area: 4,627.56m<sup>2</sup> · 1,297.92m<sup>2</sup> · 1,400.06m<sup>2</sup>

Gross Floor Area: 26,546.86m<sup>2</sup> · 8,351.28m<sup>2</sup> · 9,295.14m<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46.81% · 25.08% · 1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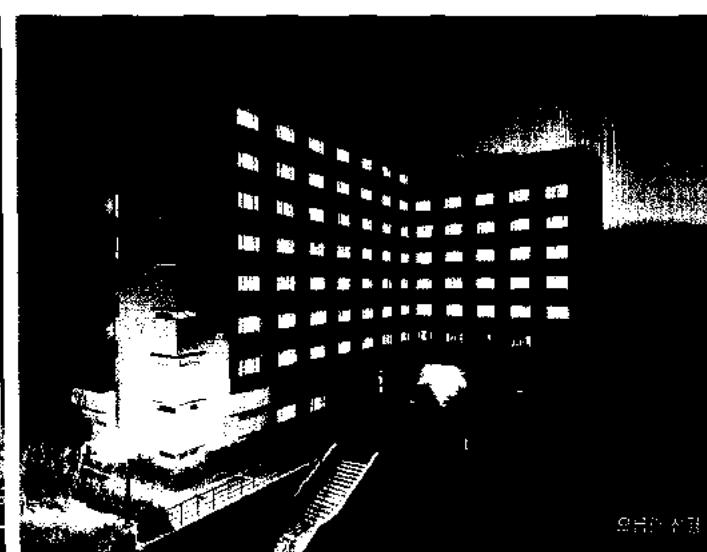
Floor Area Ratio: 226.77% · 164.78% · 108.97%

Structural Engineer: Eun Consulting Structural Engineers Co.,Ltd.

Electrical Engineer: Jo young Engineering Co.,Ltd.

Building Scope: B2, 9F · B1, 1F · 2F, 8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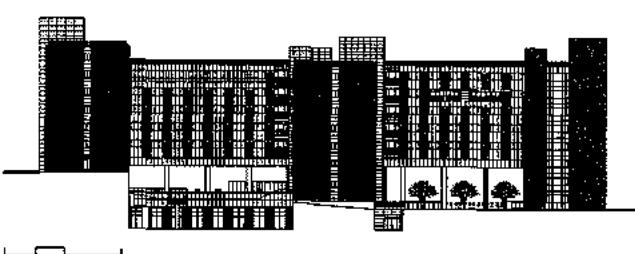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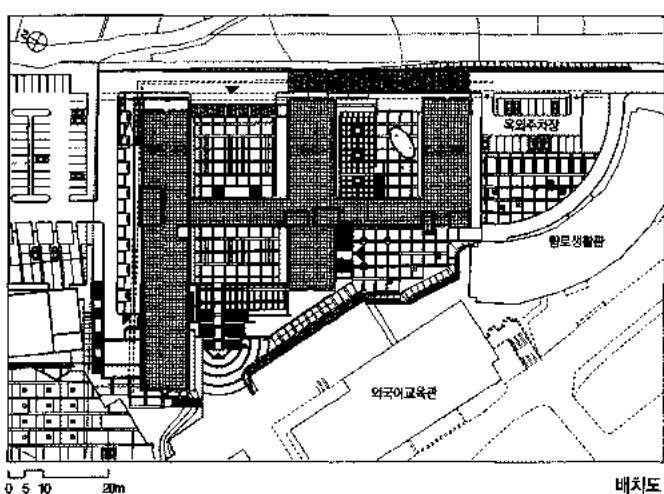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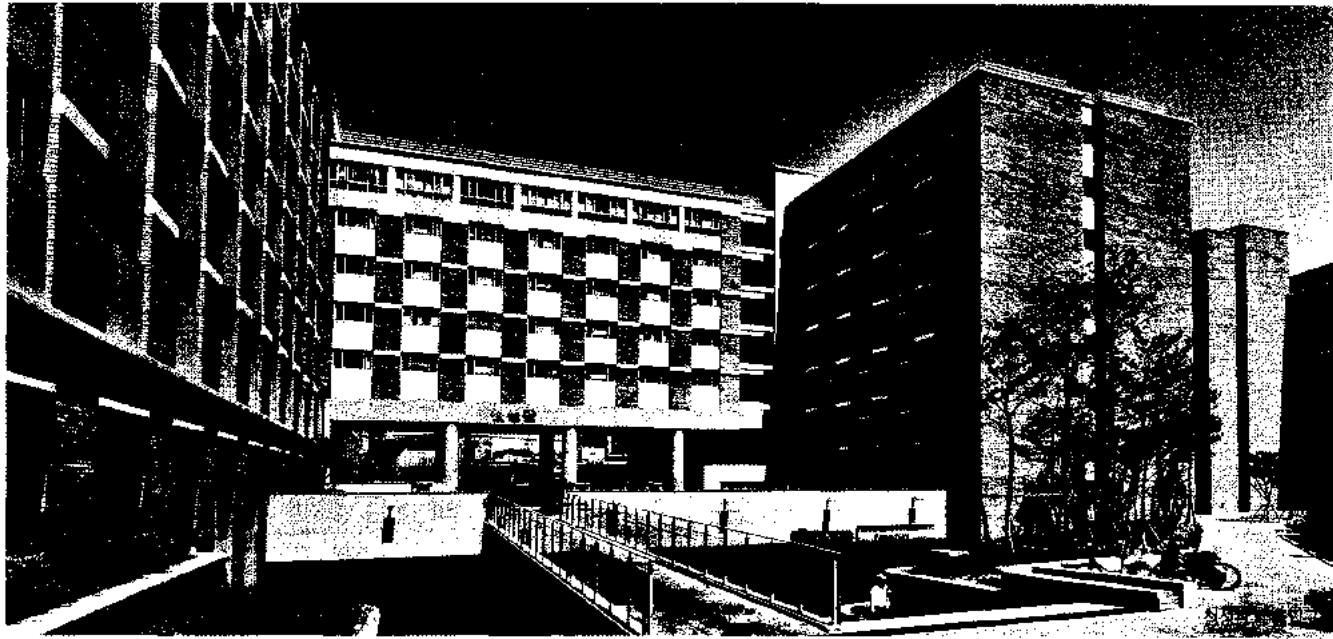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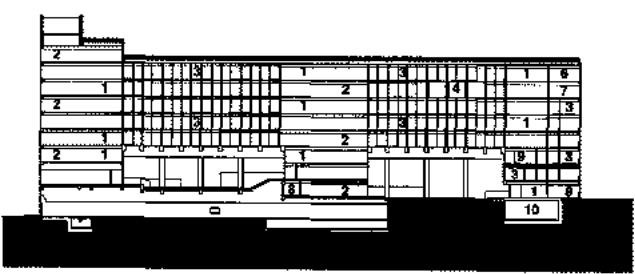
의관주차장

충성관 전경





배치도



01\_ 통계공간  
02\_ELEV. 층

03\_ 사상실  
04\_ 발코니

05\_ 로비  
06\_ 취사실

07\_ 자치회의실  
08\_ 발코니

09\_ 공동체탁실  
10\_P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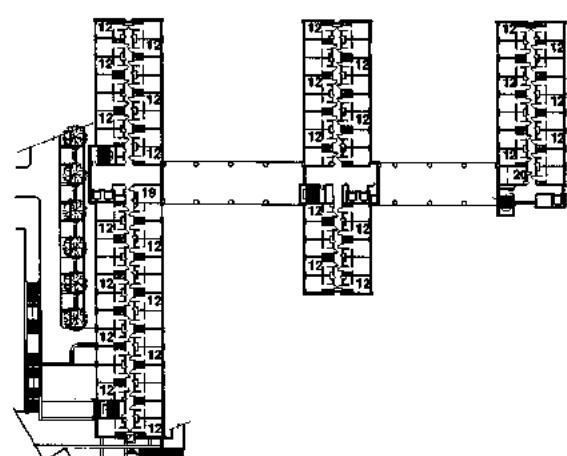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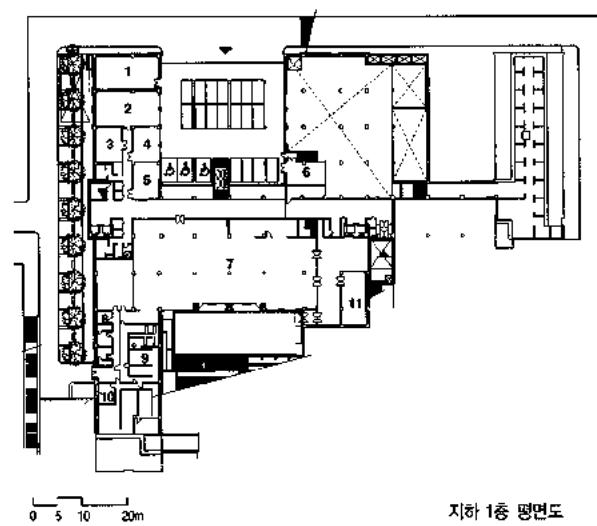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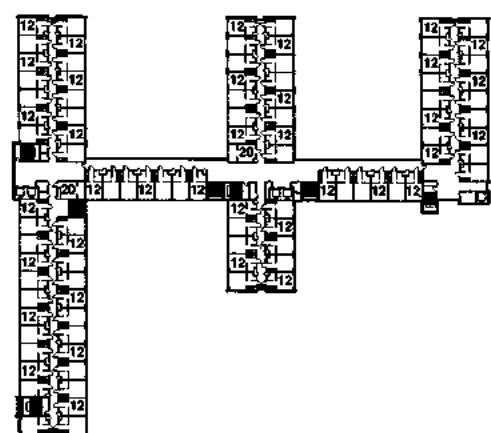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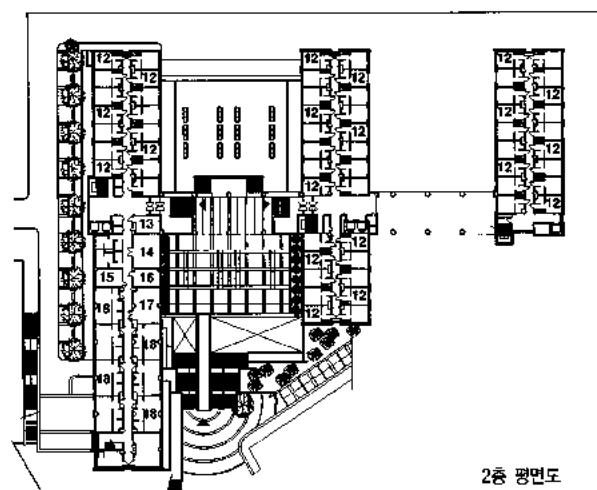
0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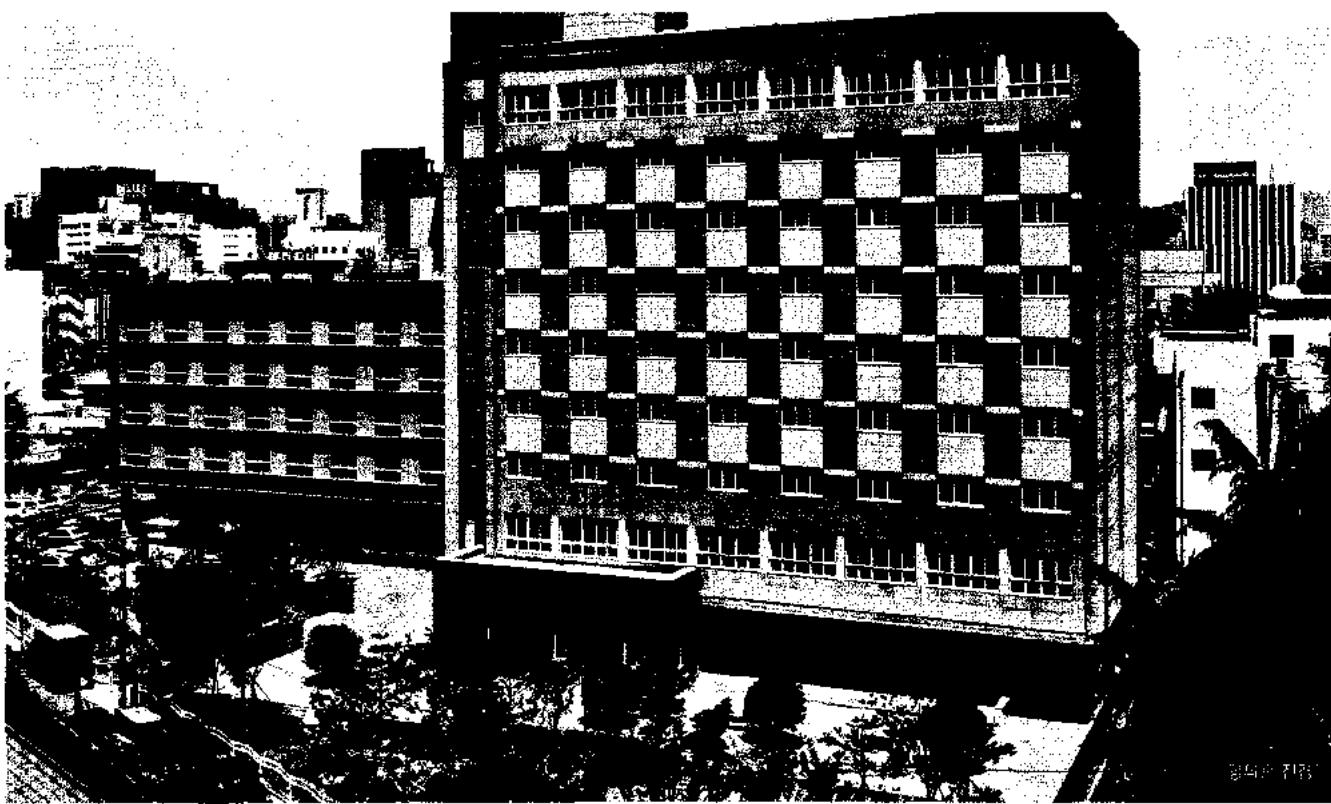


식당

주제공간

- |           |           |          |         |            |
|-----------|-----------|----------|---------|------------|
| 01_ 배움장고  | 05_ 운영사무실 | 09_ 조리실  | 13_ 관리실 | 17_ 회의실    |
| 02_ 체육단련실 | 06_ 방재센터  | 10_ 식음점고 | 14_ 행정실 | 18_ 경매인사생실 |
| 03_ 세미나실  | 07_ 식당    | 11_ 편의점  | 15_ 상담실 | 19_ 자치회의실  |
| 04_ PC실   | 08_ 영양사실  | 12_ 사무실  | 16_ 사감실 | 20_ 공동체미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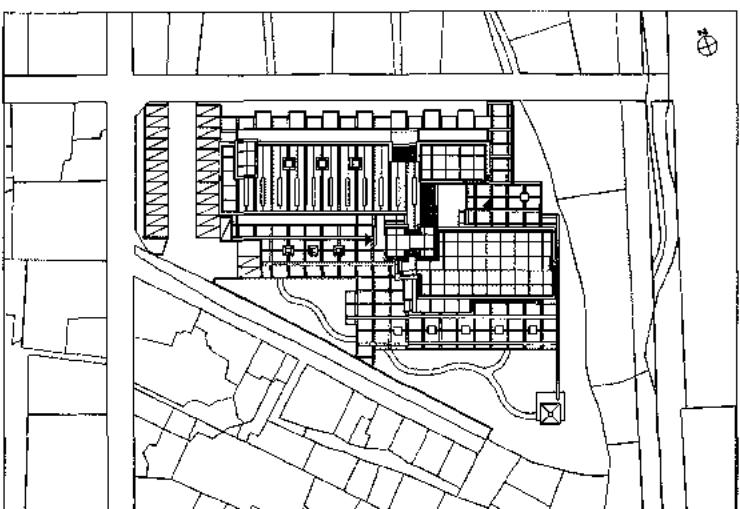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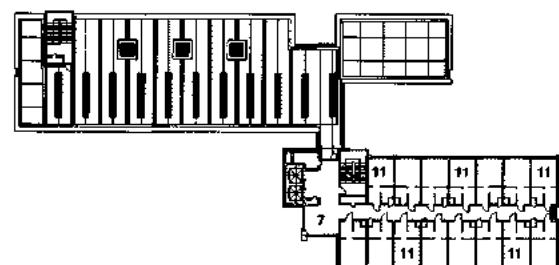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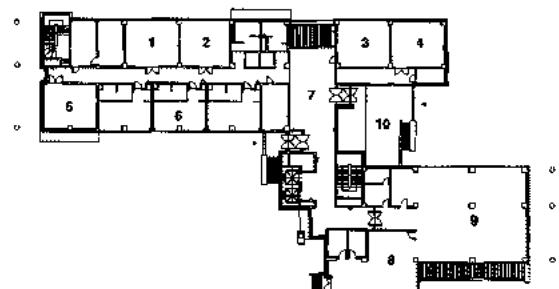
01_ 행정/관리사무실	04_ 체육단련실	07_ 휴게실	10_ 옥외테크
02_ 팔레방	05_ 회의실(POC실)	08_ 주방	11_ 사생실
03_ 편의점	06_ 장애인 사생실	09_ 식당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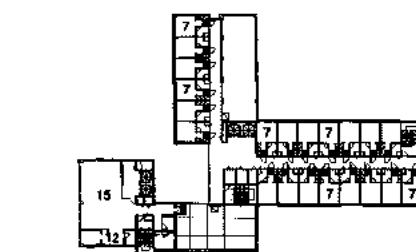
8지역 전체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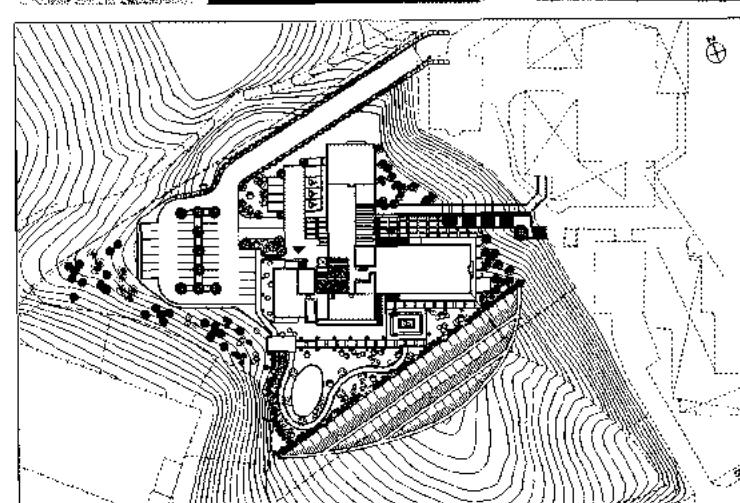
1층 평면도



01\_ 세속민인실 05\_ PC실 09\_ 관리사무실 13\_ 캐스드룸  
02\_ 빌래랑 06\_ 강예인 사생실 10\_ 면외접 14\_ 옥외내크  
03\_ 빙재센터 07\_ 사생실 11\_ 식당 15\_ 스키아라운지  
04\_ 자치회의실 08\_ 행정실 12\_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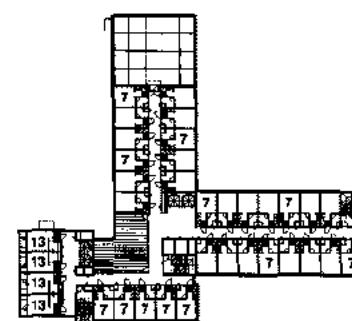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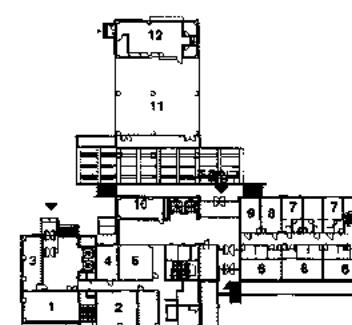


0 5 10 30m

배치도



2층 평면도



0 3 6m

1층 평면도

# 송도 KORTEK 신사옥

## New construction office of Kortek in Song-do

인간원 / 정화원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An, Kil-won, KIRA	Building Area 7,339.41m <sup>2</sup>
Project Team Lee, Jae-kyu · Yun, Sin · Son, Ki-yong · Park, Ju-uk · Kim, Jeong-eun · Kim, Kyeong-pyo	Building to Land Ratio 38.15 %
Client Kortek	Structure R.C
Location Incheon-si Yeonsu-gu Songdo-dong 10-43	
Site Area 19,249.20m <sup>2</sup>	
Gross Floor Area 19,456.45m <sup>2</sup>	
Floor Area Ratio 89.95 %	
Structural Engineer Kwang Jang Structure Co., Ltd.	
Electrical Engineer not disclosed	
General Contractor not disclosed	
Building Scope B2, 7F	
Finishing Materials not disclosed	
Photographer Kim, Jae-yun	Cost not disclosed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코텍 기업의 슬로건에 맞게 송도 자유무역 신도시에 새롭게 건설하는 코텍 신사옥은 최고의 산업용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다.

세풀개 위치하게 되는 송도 신도시의 도시계획과 주변 상황에 입각해 설계를 하면서도 최첨단 산업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 이미지와 비약적 발전을 준비하는 기업이미지에 맞춰 기존 공장의 이미지와 형태와는 다르며 효율적인 업무와 직원들을 위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디자인에 역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공장부과 사무업무공간의 위치 계획은 효율적인 업무동선을 고려하였고, 중정형 형태의 업무공간은 각각의 실이 외기와 접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과 공동 커뮤니티 공간 형성으로 기존 업무공간과는 다른 친환경적이고 친밀한 공간을 형성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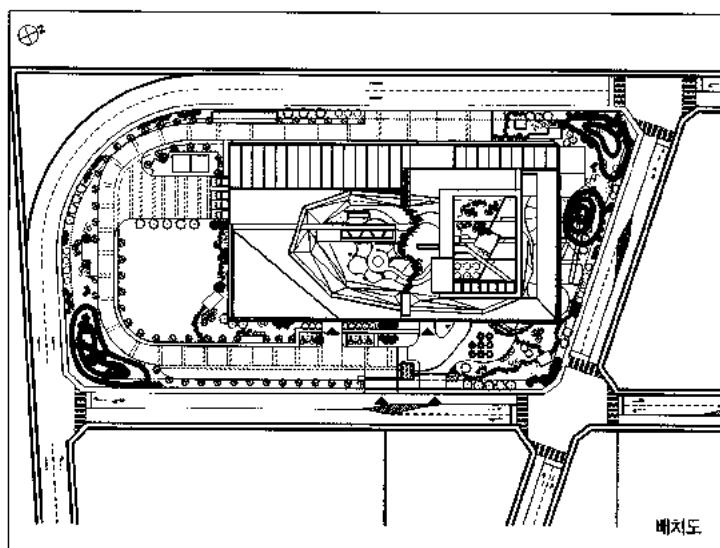
컬러강판과 우드데크 외장재와 적절한 옥상조경의 계획으로 미래지향적인 건물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외부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옥상부의 우드데크와 조경은 그 형태와 기능이 기존의 공장건물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페리다임을 형성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중정부 입구를 들어올려 외부와 시원스럽게 소통하며 입구부분에 유기적 형태의 리센션홀을 계획하여 입구성을 강조하였고, 라센션홀 상부와 본건물 2층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건물 전체의 동선을 고려하였다.

코텍 신사옥은 송도자유무역 신도시라는 도시이미지와 21세기 첨단 기업 이미지에 부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 공장 겸 사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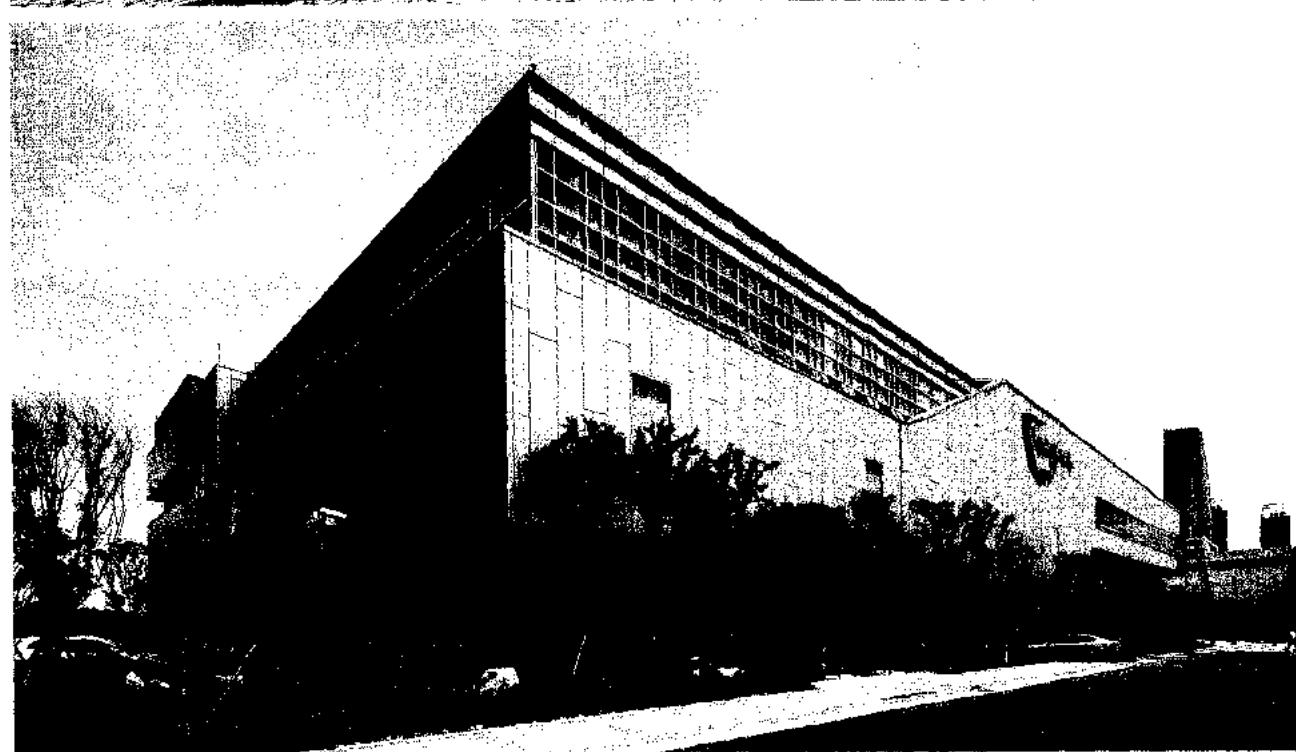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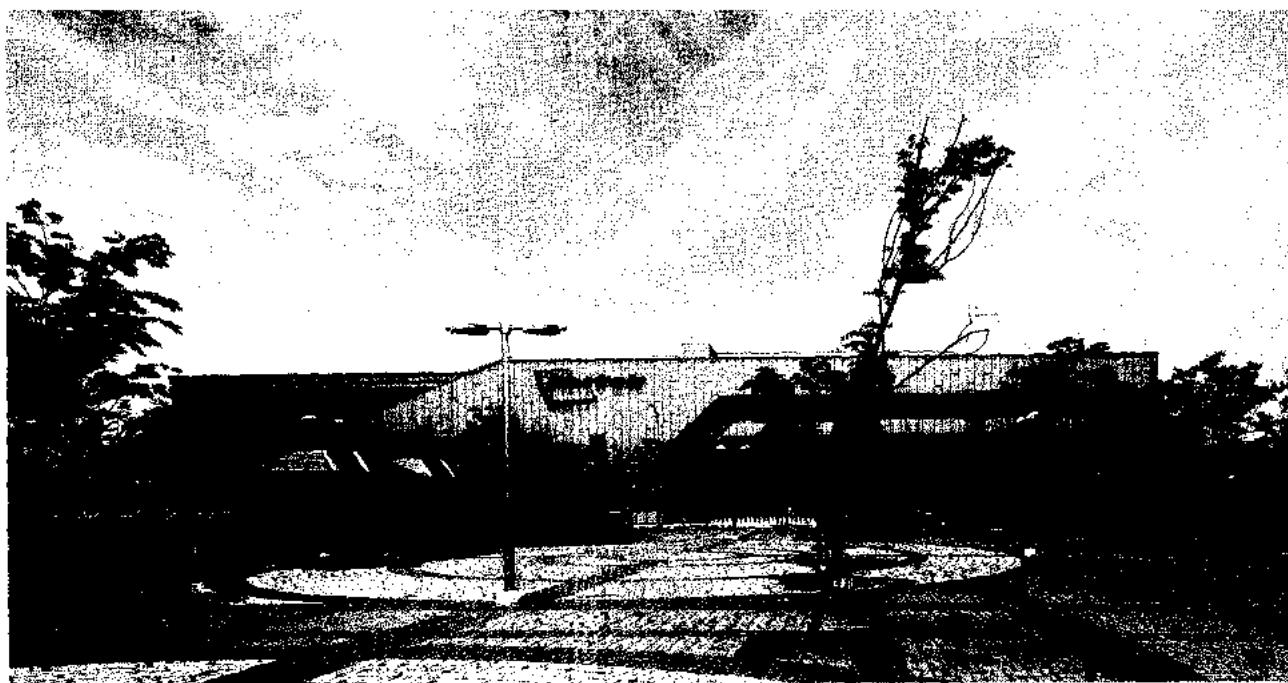
KORTEK new office building, a company that manufactures the best industrial display, was designed for efficient work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space for staff different from the image of the existing factory based on the city planning of newly located Song-do New City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Position plan of the manufacture division and business space considered an efficient work line, and an inner court style work space created a comfortable space and a joint community space where each room has access to the outside air. Future orientated building design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exterior design was made possible through colored steel sheet, wood deck and appropriate roof landscaping desig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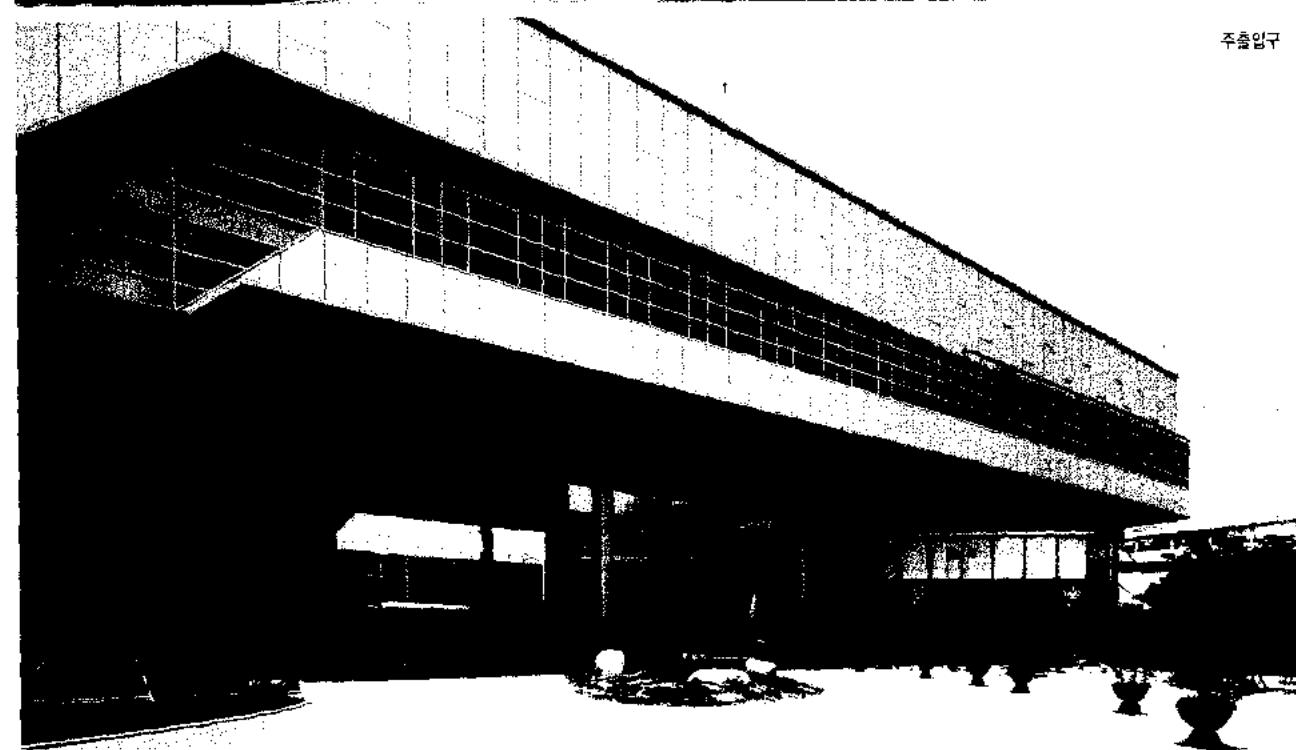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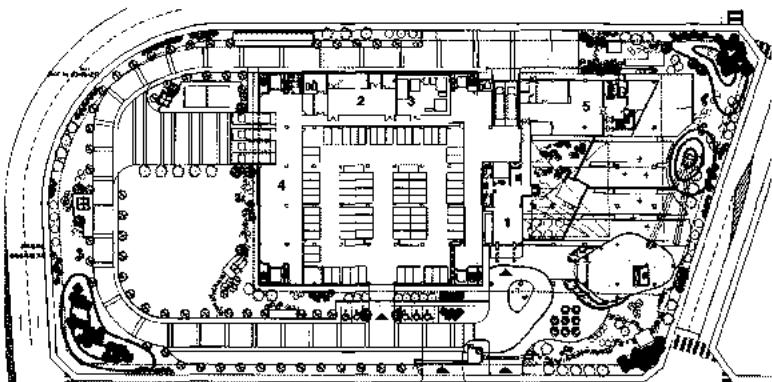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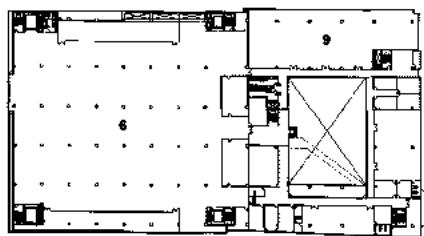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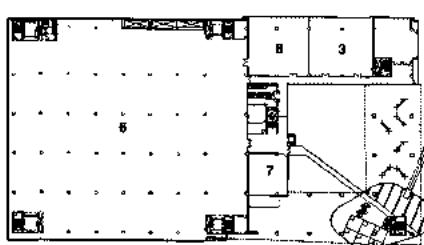
01\_ 로비&전시공간      04\_ 반율 하역장      07\_ 수입검사실  
 02\_ OGC(출하검사실)      05\_ 영양시설 및 식당      08\_ 크린룸  
 03\_ 산화성 검사실      06\_ 생산실      09\_ 생산상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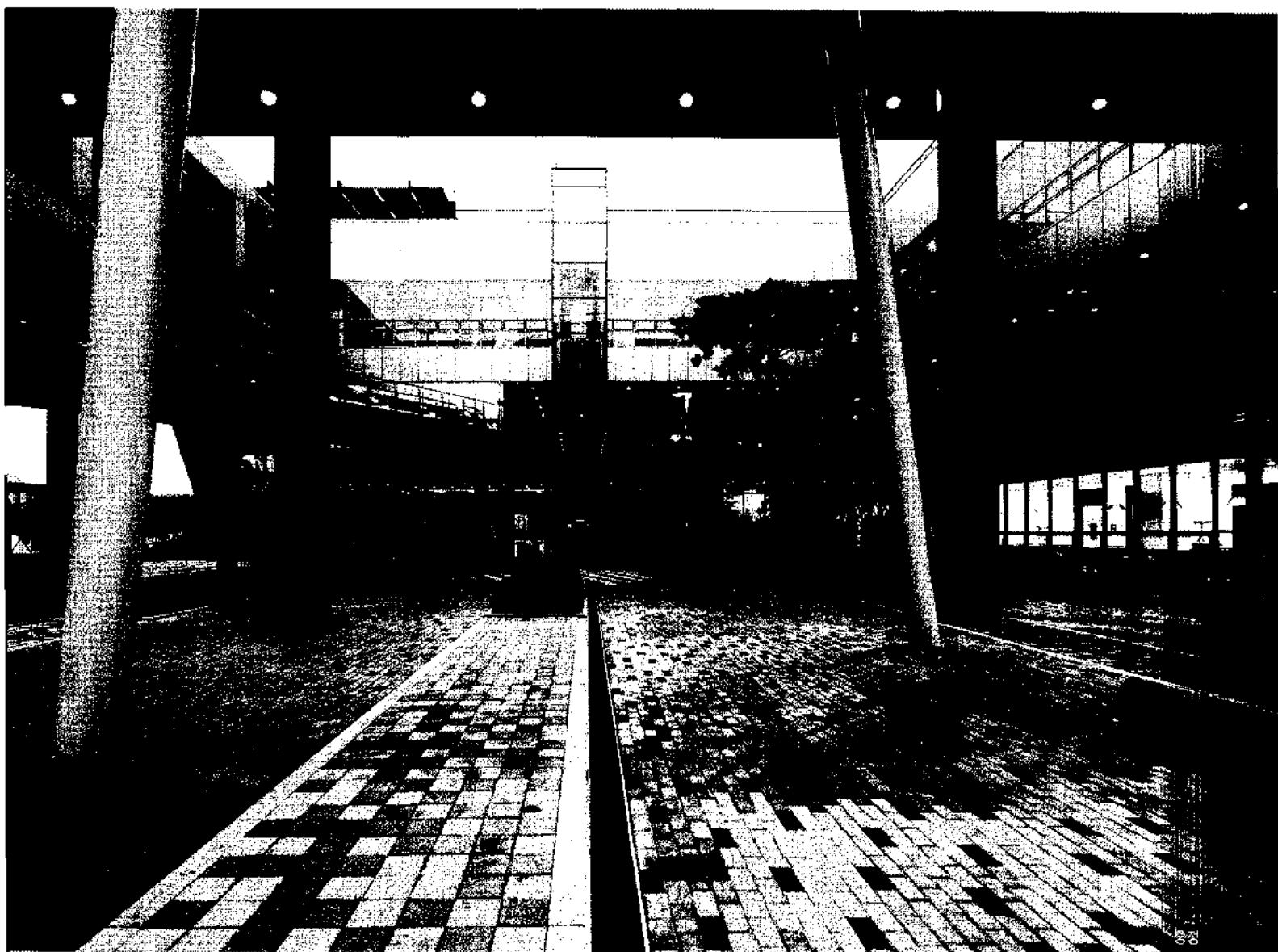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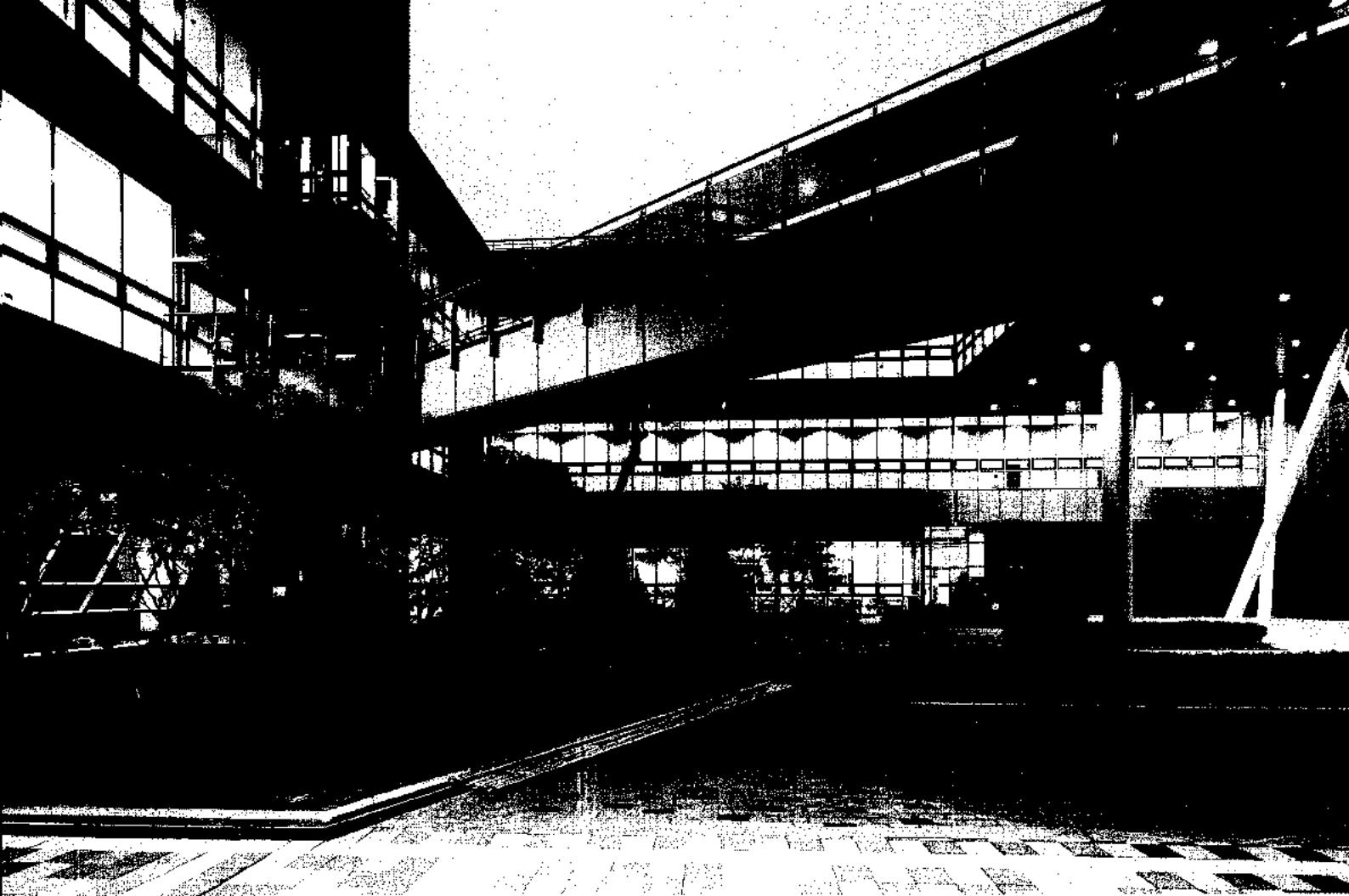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Reception hall



1층 펑로티



정면도



우측면도

01\_ 주차장  
02\_ 생산설  
03\_ 신뢰성 검사실  
04\_ 사무실  
05\_ 식당  
06\_ 생산정시험실(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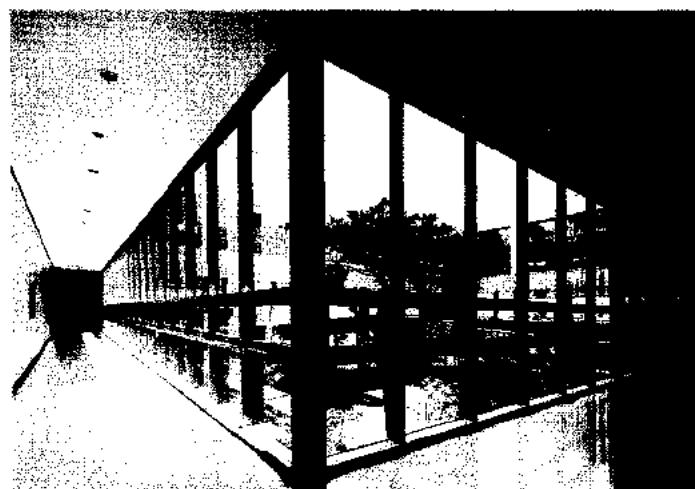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식당



# 부연당

## BU YEON DANG(Floating Nature)

김호민 / 정화원 이로재김호민 건축사사무소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으나, 농지지역으로서 전원적 주변환경을 거친 이 대지는 경사지로써, 부정형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지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이 불규칙한 대지형태는 결국 건축의 형태로 변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지형태를 건축화한 삶이 되었다.

이곳은 주거와 직업의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 장소이며, 직주 의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양측 모두 정원과 공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경계' 가 필요하였고, 이는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분리됨으로서 해결되었으며 전면도로의 경사를 이용하여 주거와 직업의 주출입구를 단면적으로, 레벨로써 분리할 수 있었다.

각층 실내공간의 수직적 이동성을 반층레벨의 스킁들로어적 체계로 연계되게 함으로써 수직이동의 실비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각 레벨의 공간이 수직적으로 강한 시각적,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이야기가 있는 산책적인 동선을 유지하였다.

이 성승하는 각종의 개방된 공간위에, 건축화된 자연으로서의 작은 대나무숲이 내장되어있는 여러개의 목재 침실 Box들이 변화롭게 떠있는, 역동적이며 돌발적인 공간의 반전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공간적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것은 이 집의 내부공간의 대표적 인상이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건축의 육상부를 모두 조경화함으로써 지하에서 지상, 각종 옥상 레벨까지 크고 작은 서로 다른 공간성의 여러 마당이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드라마적 외부공간은 역동적인 내부공간 그리고 주변자연의 풍경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전개됨으로써, 풍요로운 공간적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다.

곡선형태의 대지 후면의 건축화와 내부공간의 유동적 구성, 그리고 주변자연의 맥락과의 형태적 조화를 의도하여 이 건축의 조형적 어휘는 결국 유동하는 평면으로 구성된 마치 자연을 건축화한 비건축적 조형을 만들어냈다.

**Maximizing landuse** \_ This site that is located in city have the surrounding context of country and that is an inclined and an irregular form of land.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landuse, the irregular form of site was converted to the form of architecture.

As a result, the shape of site became the shape of architecture.

**Complex use** \_ This house is a complex place with living and working. Because of setting the boundary of house and office, we separated this building into upper layer and underground layer which is able to separate the gate of house and office along the level of inclined access road.

**Natural flow with skipfloor system** \_ Skip floor system that ease the psychological burden of vertical mobility maintain the dramatic promenade with producing the visual and spatial contin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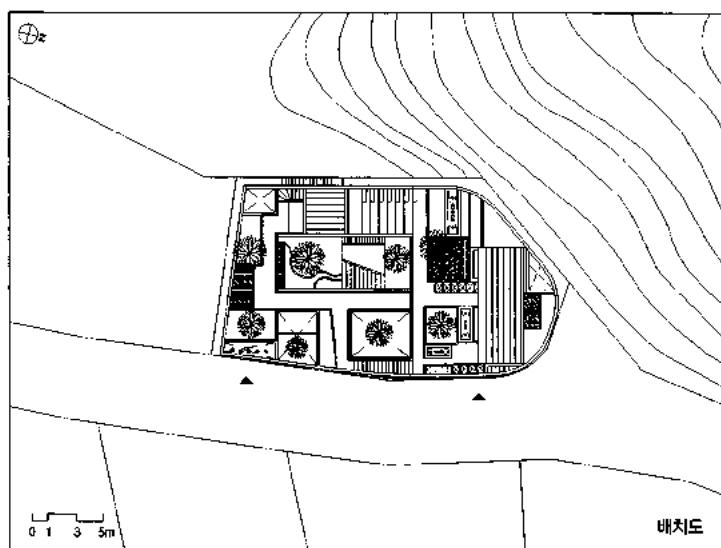
**Floating bamboo garden** \_ Floating wooden boxes built-in small bamboo garden on the open space in each level, are dynamic and accidental program of space and this scenery of inner space is the major impression of this complex house.

**Dramatic sequence of vertical story of exterior space** \_ By landscaping all of the rooftop of this house, the dramatic exterior space that is composed of various type of the space, from underground level to rooftop level, are combined with dynamic indoor space and surrounding scenery of nature, and produced the rich story of space.

**Architectural Nature** \_ With the intent to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context of nature, flexible configuration of internal space, architecturizing the curved line of site, the vocabulary of architectural form made the non-architectural shaped architecture. As "if architectural nature", covered with curved copper skin. ■

Architect: Kim, Hyo-min, KPLA  
 Project Team: Jung, Sun-min · Oh, Jung-min  
 Client: Yun, Seon-jung  
 Location: Gyeongsang-do, Sangju-si, Gyeongsangbuk-do 492-1  
 Site Area: 330m<sup>2</sup>  
 Building Area: 168.52m<sup>2</sup>  
 Gross Floor Area: 236.03m<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51.07%  
 Floor Area Ratio: 187.19%  
 Structure: Concrete Rahmen  
 Structural Engineer: Jun, Giwang-min  
 General Contractor: Kim, Young-han  
 Building Scope: B1, 2F  
 Finishing Materials: copper sheet, Exposed concrete  
 Photographer: Kim, Jong-oh  
 Cost: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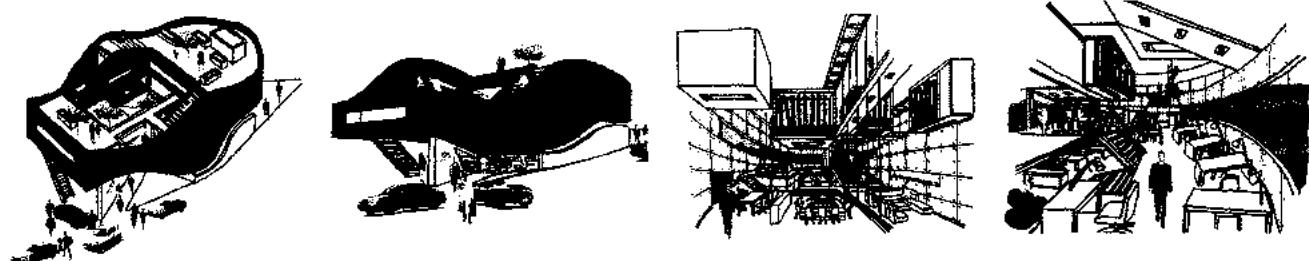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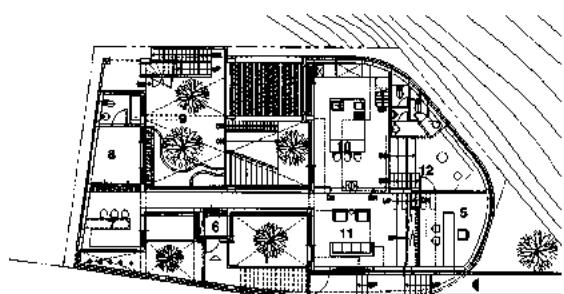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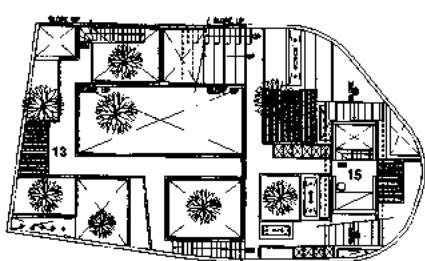


안미당과 지하철을으로는 농포 빛 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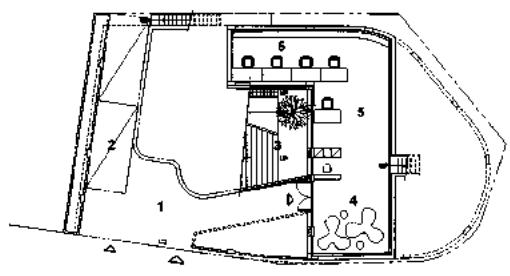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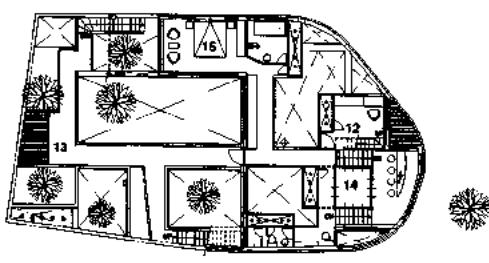


옥탑 및 지하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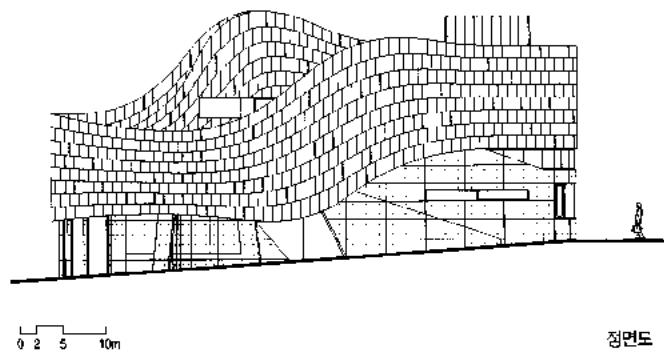
- 01\_ 전입하당
- 02\_ 주차장
- 03\_ 복도 및 경원
- 04\_ 리셉션홀
- 05\_ 사무실
- 06\_ 현관
- 07\_ 비
- 08\_ 손님방
- 09\_ 임마연
- 10\_ 시안 및 주방
- 11\_ 거실
- 12\_ 서재
- 13\_ 유품경원
- 14\_ 기록실
- 15\_ 일실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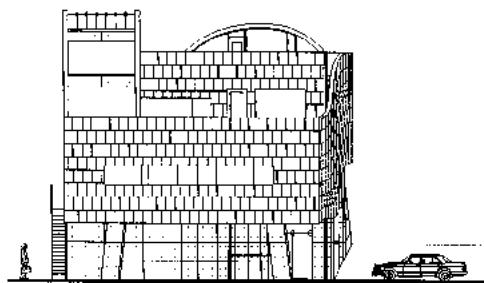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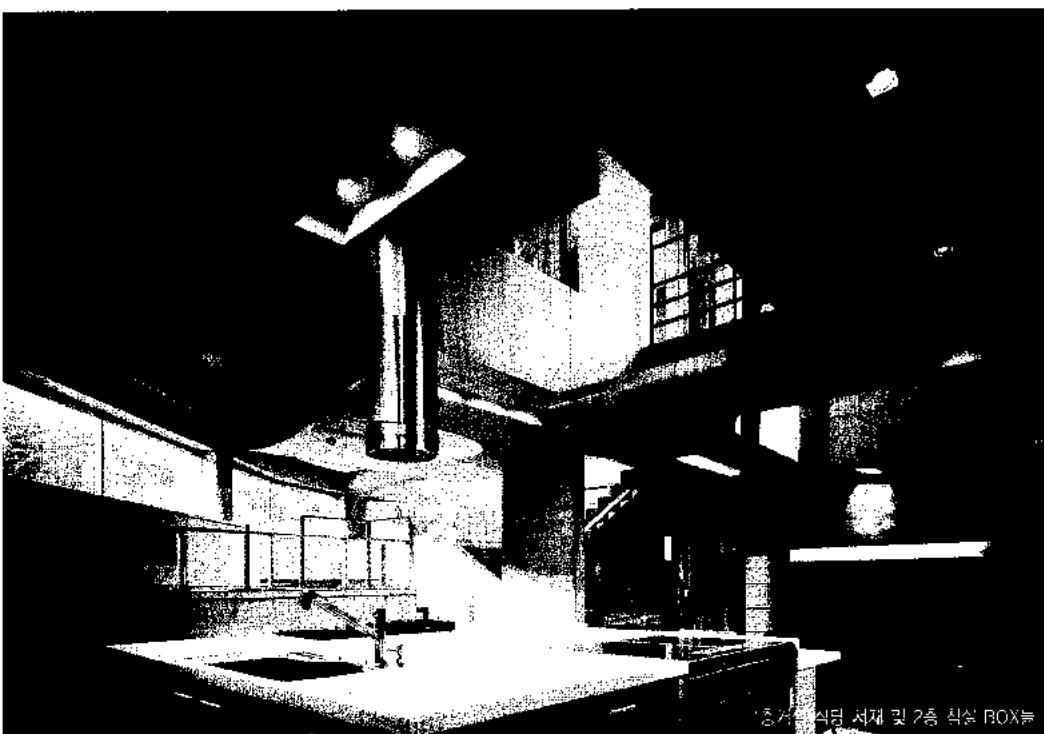


0 2 5 10m

정면도



좌측면도



층계, 허핑 서재 및 2층 칵테일 BOX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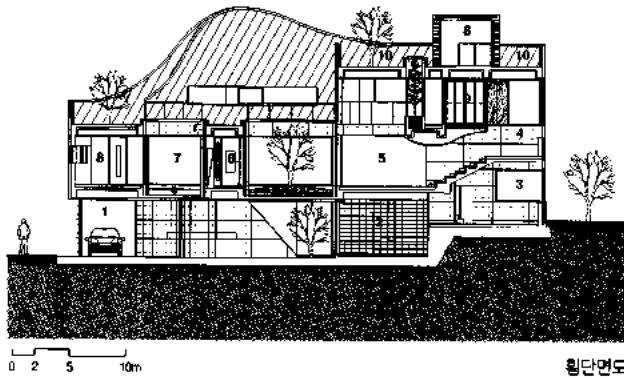
BAR에서 본 2층 칵테일 BOX 및 카페 서재, 그리고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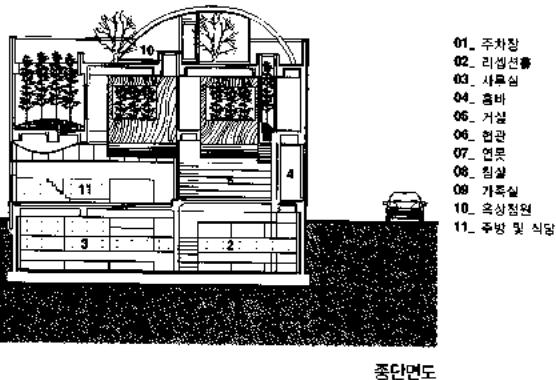
가장자리 옥션 BOX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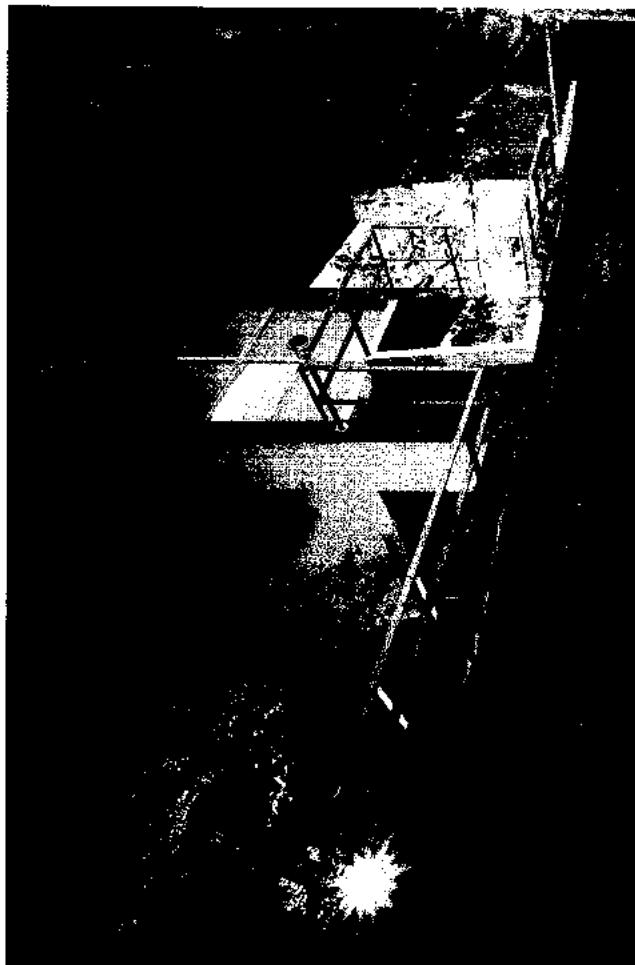
스텐딩 칸막이로 둘러친 2층 BOX을



횡단면도



종단면도



마감주경



마감내

# 남서울교회

## NAMSEOUL CHURCH

이용우 / 정회원 칸.도시 건축사무소

영등포구 신길동 구시기지의 무질서한 주택가에 위치한 교회이다. 대지의 북측이 36m 도로에 접해있어 이곳이 주접근로가 된다. 북쪽을 세워한 3면은 주변주택가와의 사이에 6m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으나 골목주차로 인해 매우 혼잡한 환경이다.

현상설계안을 만들면서 주변의 낮은 주택가와 분리도로변의 소음과 구질서함을 소홀히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형공간(1,800석)을 요구하는 예배당과 각종 교육공간 그리고 친교공간을 입체적으로 분리하는 계획을 하였다. 즉 남쪽에 예배공간을 중심으로 낮은 공간, 북측으로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고층부를 배치하였다. 남측의 주택가의 높이와 시각적으로 거부감이 없도록 스카이라인을 설정하였고, 또한 교육부서와 함께 북측에서 안마당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목양실을 포함한 관리동을 배치하였다. 이로써 어느 한 인마당이 조성되어 북측공개공지로 조성된 공원과 함께 예배당의 주접근로를 실증화 할 수 있었다. 1층은 빌로너로 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며 독외주차장과 함께 플라시 운동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관리동 하부는 팔로디로 개방되어 있어서 담장이 없는 교회의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전국의 대문을 지나 줄지어선 콘크리트 기둥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진리의 등불이 밝혀주는 구원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도의 여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맑고 잔잔한 연못을 엎으로 하고 물에 들어서며 예배당으로 오르는 길이 죄우와 천안에 놓여 있어서 삼자기형상으로 길을 인도한다. 이 길은 흩어졌다가 모이는 디아스포라의 길이다. 들어온 길은 달리도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길은 달라 다시금 한마들로 모일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예배당은 만월형상으로 예수님의 신성수준이 있었던 비탈진 언덕을 유추하였다. 이는 많은 이들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고, 보는 예배가 아닌 참여하는 예배기 기능하도록 강단에서 20m내에 좌석을 배치하기 위함이었다.

화려하지 않으며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친근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 준공 후 공원과 1층의 카페에서 밀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계획했던 개념들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The Church is located in a residential area at Yeonddeungpo singil old town. As North of land is faced on the 36m road, here is main access. Except for north, three faces where are along 6m road is very chaotic environment, because of backstreet parking.

Noise from North road and unplanned pattern of dwelling units was the first concerning point of this design.

After all, chapel, educational and friendship space where need for large space are separated three dimensionally.

so, at south side, lower space where have chapel centrally is located and high layer space where have educational space centrally is north arranged.

north house's height and skyline where don't obstruct one's field of vision are selected and also management building that can around courtyard with educational department at north side is located.

As a result, comfortable courtyard is created, and north public open space is comprised as a park then it becomes symbolized main access of the chapel.

1st floor is designed for multi open space with pilaster structure to use sports space when needed.

Management building lower part is opened with pilaster and it can function as main entrance of church without fence.

It expresses itinerary of composition where enter to heaven along road of salvation that lamp of true brighten upper concrete column a line after heaven's door.

After, enter to hall along side clean and calm pond, as road climbing chapel is located at either and front sides, it can lead to cross road.

This is scattered and gathered road that name is diaspora.

It is symbolizing space. Although entrance is different, have a service together, though exit is different, get together one more time with a whole mind.

Chapel infer hill where Sermon of the Mount of Jesus was of semicircle shape.

It is that many people feel familiarity when they have a service together and seats is arranged in 20m from platform that not only observe, but participate in worship. we want friendly church to get together neighbor, never luxurious.

After completion, as we can see along with neighbor at park and cafe, we feel that concepts are becoming visible. ■

Architects Lee, Yong-woo KIRA

Project Team Kim, Yong-dam · Kim, Yeo-hyun · Shin, Seo-kuang · Ku, You-dong · Jung, Mun-ju

Client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Nam Seoul Church

Location Seoul Yeongdeungpo-gu Singil-dong 4003

Site Area 3,470m<sup>2</sup>

Building Area 1,874m<sup>2</sup>

Gross Floor Area 12,798.31m<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54.01%

Floor Area Ratio 199.84%

Structure S.R.C

Structural Engineer Base Structure

HVAC Engineer Juwon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Shinhan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Hanul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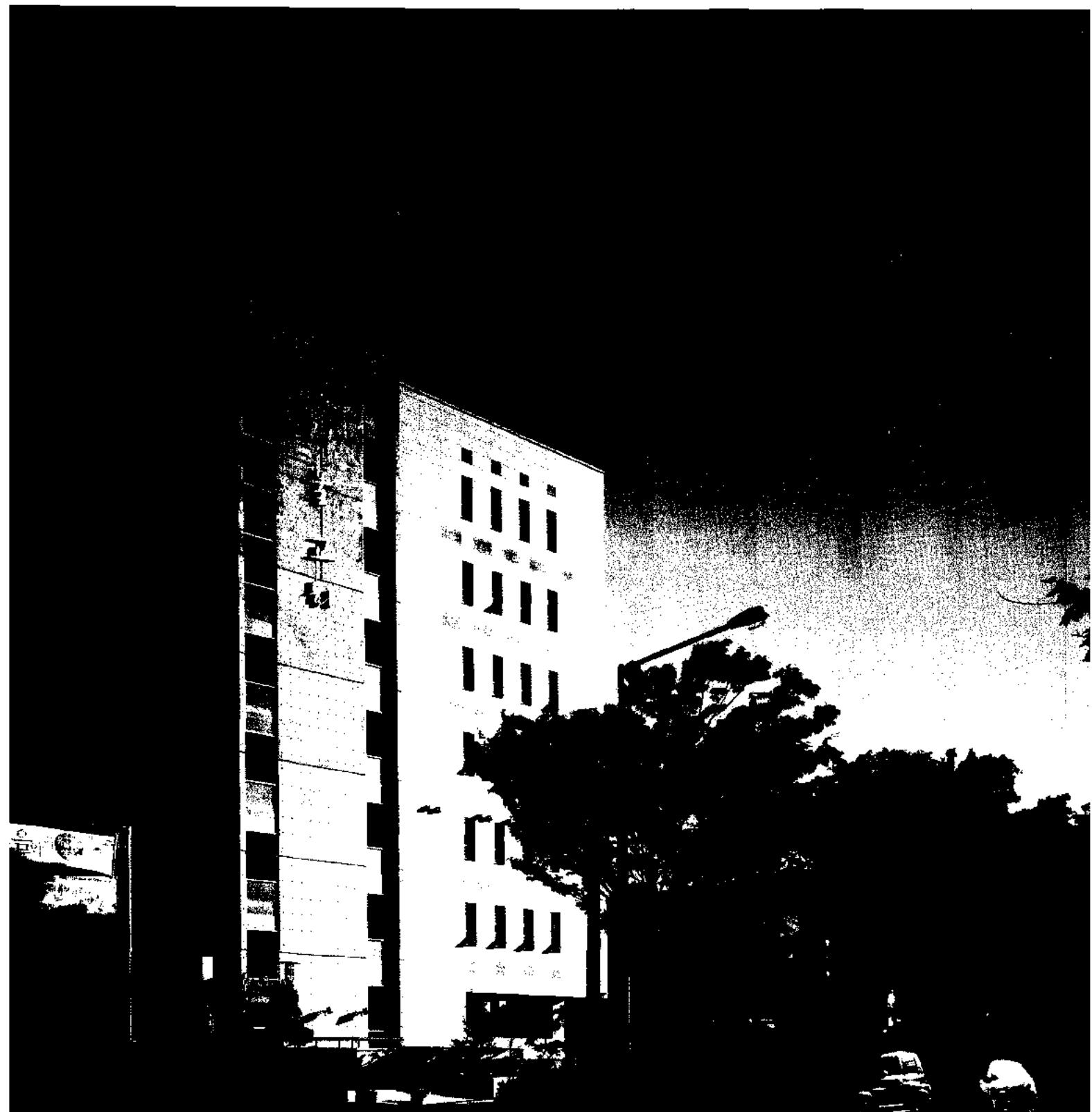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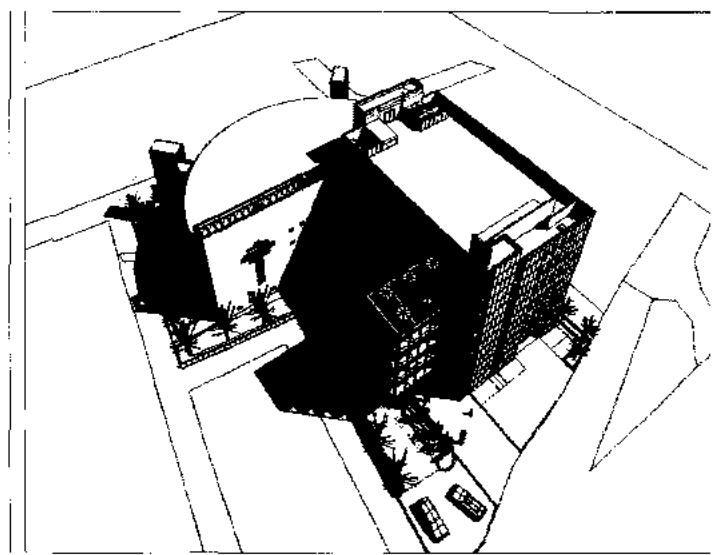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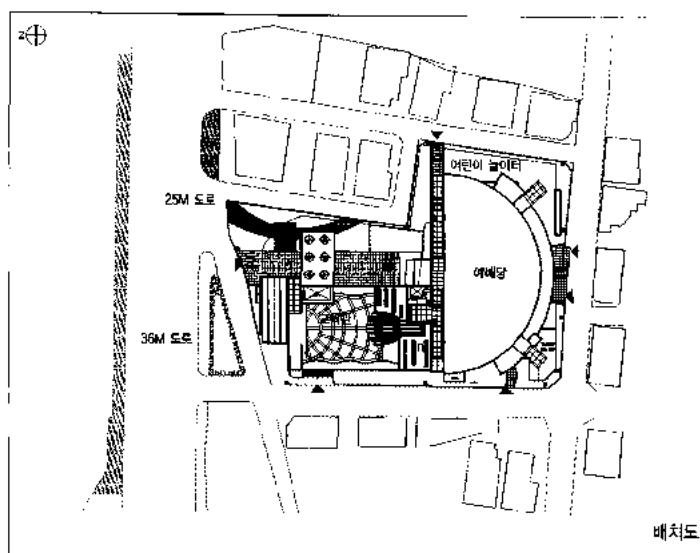
Building Scope B2, 7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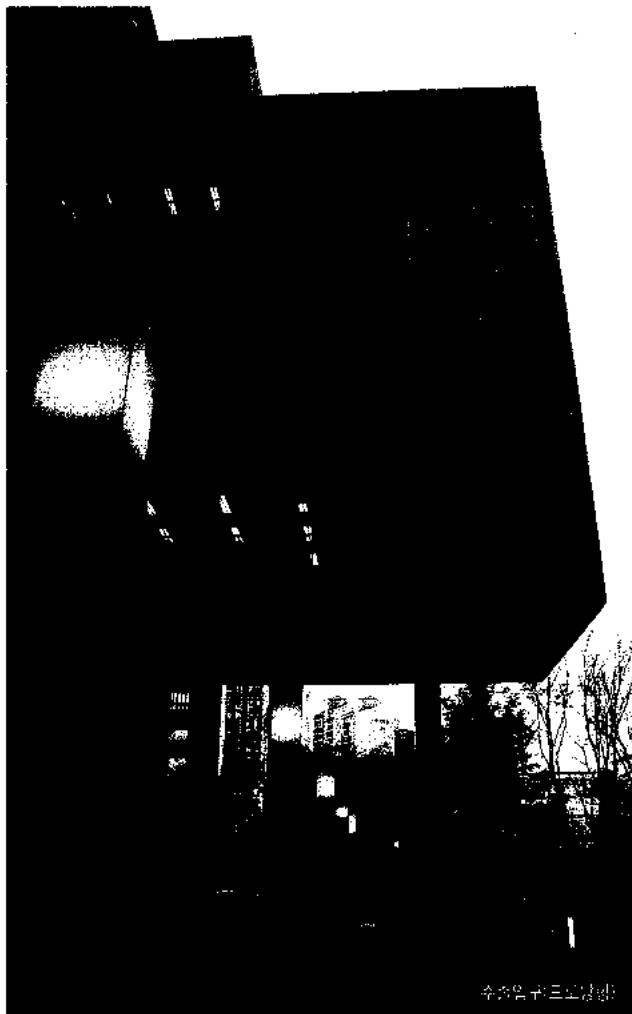
Finishing Materials Exposed concrete, Curtain wall, Vinyl Paint

Photographer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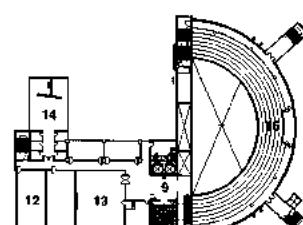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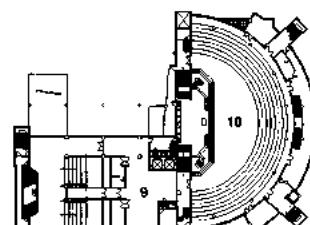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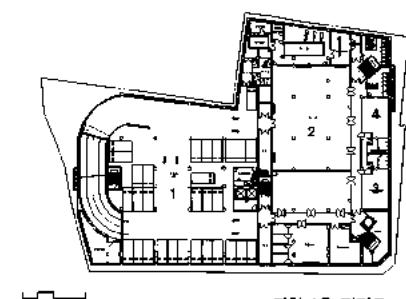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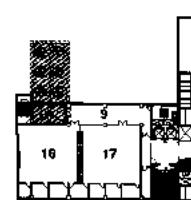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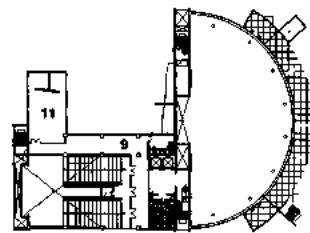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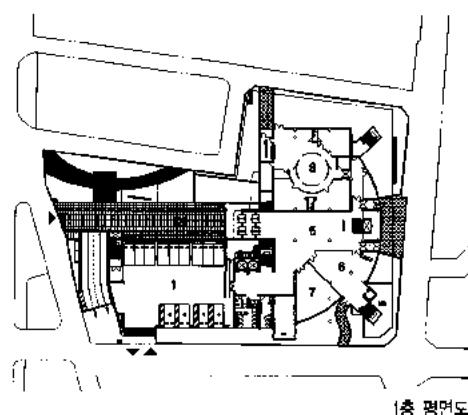
Cost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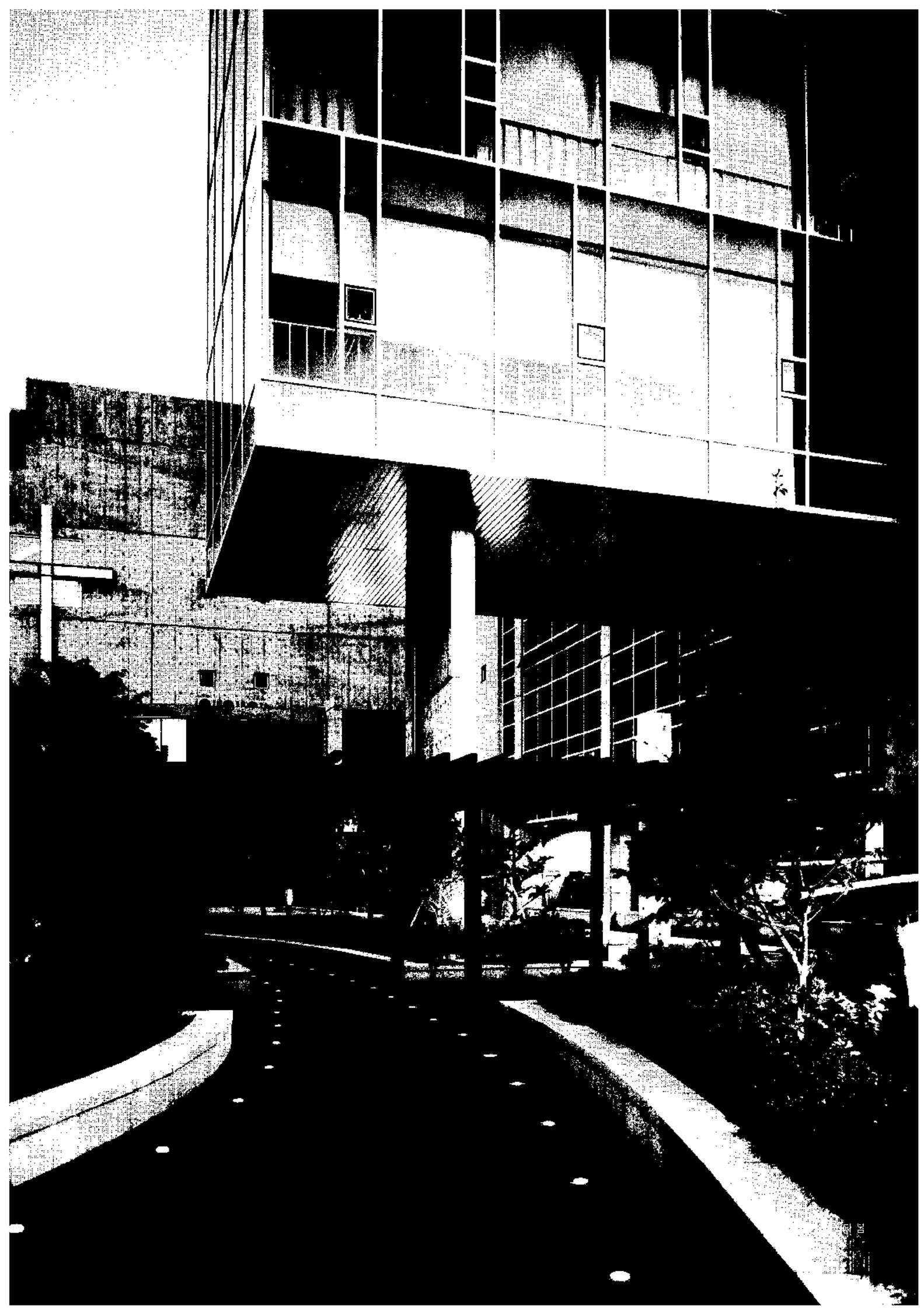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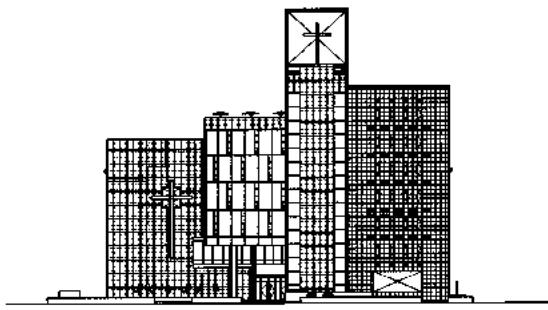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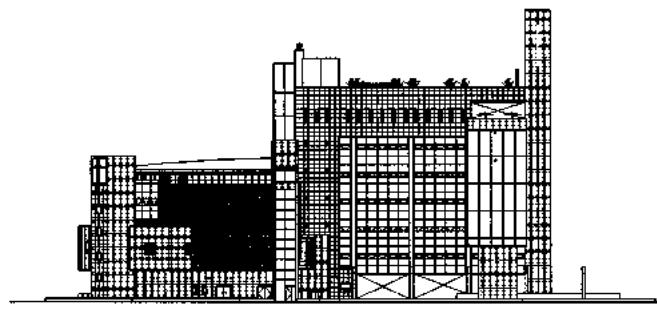
01_ 주차장	06_ 카페	11_ 성가연습실	16_ 종등부실
02_ 식당	07_ 어린이 도서관	12_ 달회실	17_ 초등부
03_ 에어로빅 센터	08_ 어린이집/유치부	13_ 세미나/공부방	
04_ 헬스센터	09_ 홀/복도	14_ 학동기도실	
05_ 드비	10_ 내예배당	15_ 애배당 강충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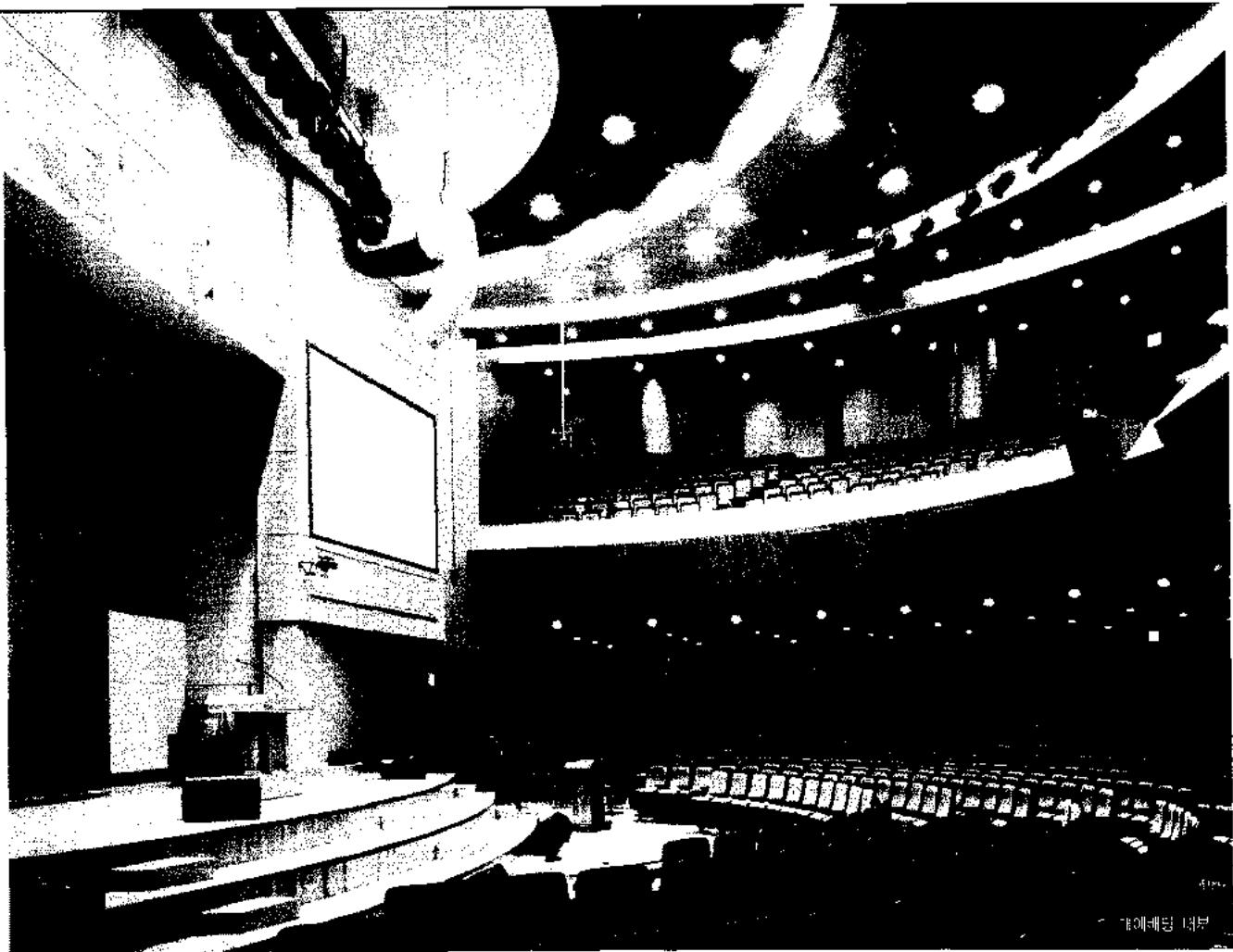


로비



주간도 (야간제작) (주간(白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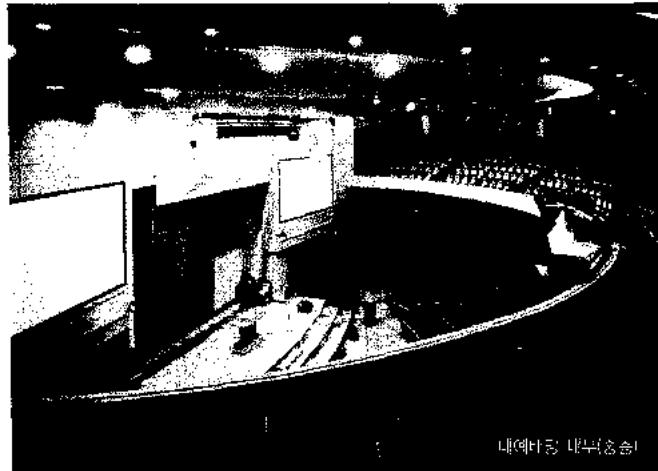




대예배당 내부



대예배당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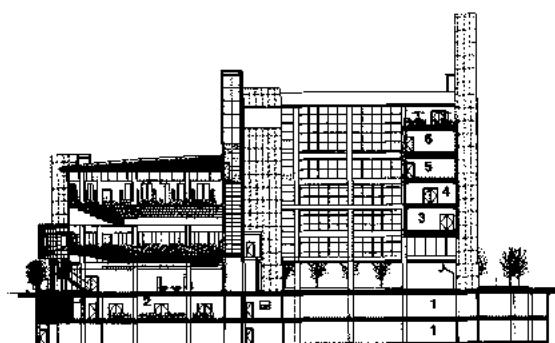


내예전당 내부(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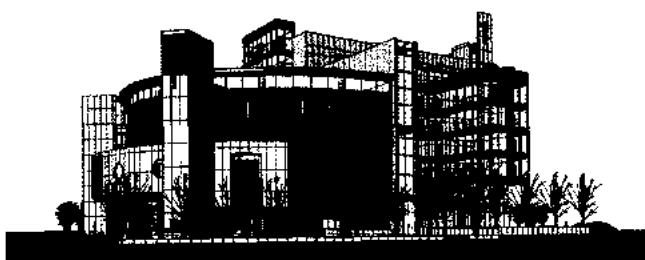
01\_주식증  
02\_식당

03\_천양연습실  
04\_한류기도관

05\_영아부  
06\_담임목사실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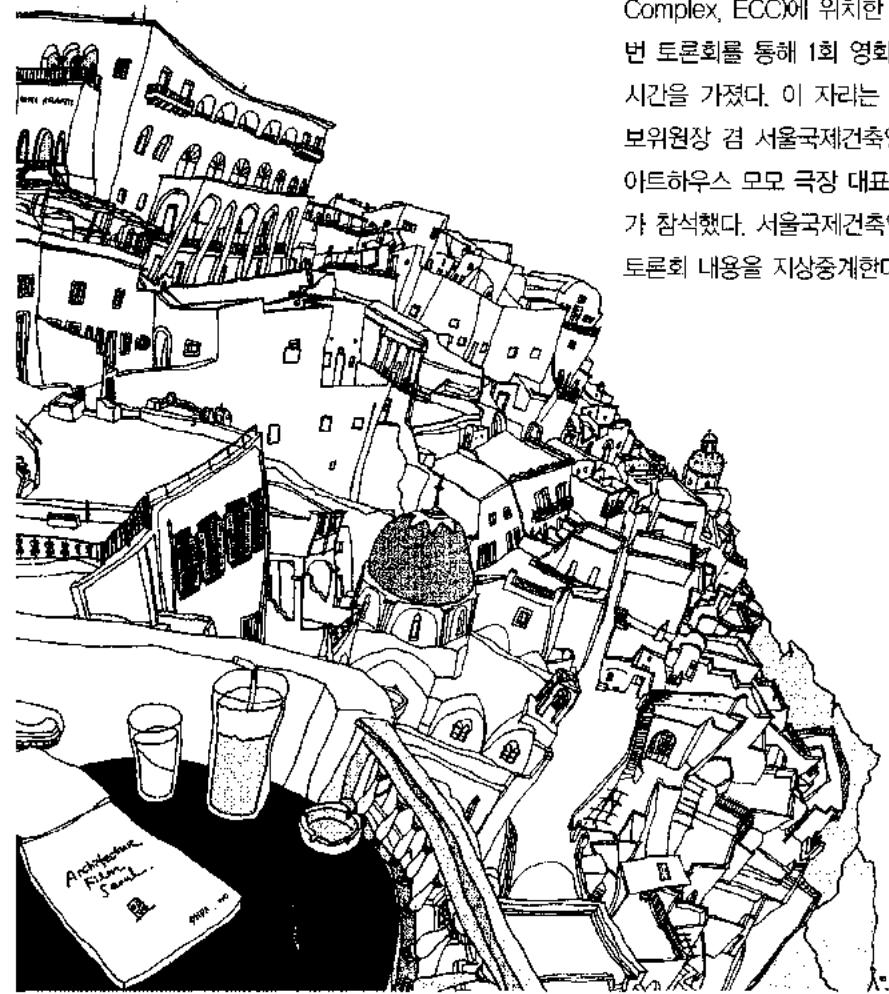


동남도시도 스케치

#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위한 심포지엄 지상중계

The 2<sup>nd</sup>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Symposium

지난 9월 7일(화) 오후 5시 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세미나실에서는 「제2회 서울국제 건축영화제」를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F 팀은 지난해 영화제의 큰 성공을 바탕으로 제2회 영화제를 준비해왔다. 올해 영화제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캠퍼스복합단지(Ewha Campus Complex, ECC)에 위치한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화제 TF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1회 영화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준비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신준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김형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위원장 겸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강병국 영화제 TF팀 위원 그리고 이광모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 대표, 그리고 사회를 맡은 한선희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석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지한 대화가 오고간 이날의 토론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신준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김형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위원장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강병국 서울국제건축영화제 TF팀 위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이광모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 대표



한선희  
영화제 프로그래머

**한선희** | 오늘 이 심포지엄은 지난해 제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성과와 의미를 돌아보고 올해 영화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지 의견을 듣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다. 신춘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님은 작년 열정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화제에 참석하고 지지를 해주셨다. 본 영화제 집행위원인 동우건축의 강병국 건축사, 프로그램 선정에 많이 관여해주시고 영화제가 성사되기까지 큰 역할을 해주셨다. 김형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위원장이자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4년 이상 영화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난해 처음 영화제를 성사시켰고,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영화제를 아끌어오셨다. 영화계에서는 이광모 아트하우스 모도 대표님이 참석하셨다. 90년대 중반 영화사 백두대간을 설립하시고 동승시네마테크와 씨네큐브 광화문 등 극장을 운영하면서 세계적인 예술영화들을 국내 배급 확산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셨다. 또한 영화 <아름다운 시절>을 연출해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되었고,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 등 여러 상을 받으셨다. 먼저 김형수 위원장께서 지난해 영화제 성과와 의의를 설명하시겠다.

**김형수** | 일단 본 영화제가 어떤 성격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그간 건축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깐 실체를 보지 않고서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고, 설득을 하는데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영화제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 내부적으로 많은 설득을 거쳐 구체적인 실적을 보여주면서 커가는 영화제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 영화제는 건축은 예술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됐다. 건축을 좀 더 예술로서 자리매김 시키고, 문화적인 요소를 많이 부각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건축을 건설이나 부동산의 일부로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의 이미지를 문화예술적인 결과물로 계속 홍보를 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건축사'란 호칭을 잘 모른다.

사실 이 영화제는 백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설계업계가 어려운 마당에 왜 이런 행사를 굳이 하려고 하느냐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이슈가 제기가 됐다. 차근차근 대국민 홍보를 해야지만 건축사협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전략적으로 노출을 하자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로 건축사의 개념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홍보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건축계에서는 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패널, 모형 등으로 전시를 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건축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고 재밌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재밌어서 직접 찾아와서 보는 케이스는 적은편이다. 시민건축학교, 건축문화학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패턴인데, 이것은 결국 대중적인 코드

에서는 벗어난 엘리트적인 건축사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따라서 좀 더 대중적인 코드를 선택하려면 영화제가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형식이라고 판단을 했다.

영화제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수한 영화를 선정을 해서 상영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건축영화제를 기획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에 건축영화제가 예닐곱 개 정도 되었다. 우리 영화제는 많은 편수를 상영하는게 아니라 소수의 좋은 영화를 상영하는 패턴을 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영화제는 홍보대사를 유치함으로서 언론에 노출을 많이 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HAF)을 통해 건축사들의 강의를 번갈아가면서 진행했다. 또한 GV(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도 만들어 상영작에 대한 이해를 돋도록 했다. 또 건축과를 졸업한 영화감독들을 모셔서 건축 교육을 받았던 것이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대답을 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영이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관객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했는데,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다. 올해도 이런 포맷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 예상치 못한 결과가 하나 있다. 건축학과 교수님들이 수업을 대체해서 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영화를 본 분들이 계셨다. 엄선한 영화들은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좋았다. 따라서 영화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작년에는 영화제를 본격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경인 및 수도권 지역에 정식으로 수업대체 프로그램으로 협조공문을 보낼 생각이다. 첫 회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높은 예매율, 관객 점유율을 얻었는데 올해는 관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실 영화관이 협소해서 올해 걱정이 좀 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교육의 일부분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도 좋은 취지가 아닌가 싶다. 또한 작년에는 UCC공모전을 했다. 올해도 UCC공모전을 진행하려고 한다.

영화제 성과를 분석을 해보면, 언론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중요시 여겼다. 다양한 매체에 많이 노출되었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다. 인터넷 매체, 4대 일간지에도 많이 나왔다. 문화적으로 접근을 하니 홍보효과가 있었다. 어떤 언론들은 홍보대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가 나갔다. 올해는 더 많은 매체에 노출을 시키고자 다양한 계획을 짜고 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영화제를 소개했다. 현재 엄선해서 영화를 선정중이다. 우리는 일단 홍보에 목적을 둔 영화제고, 상업적이라기 보단 수준 높은 영화를 소개를 할 예정으로 있다. 건축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보하는데 이 영화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선희** | 다음으로는 강병국 위원이 올해 영화제 준비 및 진행 상황을 소개해주시겠다.

**강병국** | 작년에는 총 6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편수가 작다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 보석 같은 작품들만, 나쁘게 말하면 예산에 맞춰서 프

로그램을 선정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상영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때마다 영화제 TF팀에서 고민하는 게 국내 2편, 외국 5편 정도의 어떤 영화를 선택하면 어떨까 하는 점이다. 작년에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것들은 전 세계 건축영화제에서 단골로 상영되는 프로그램들이었다. 사실 30편정도 상영하면 다양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수가 적어서 늘 아쉬움이 남는다.

본인은 가끔 뉴욕의 록펠러센터와 강남역의 삼성타운을 비교한다. 건축물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록펠러센터에는 언제든지 사계절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건축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 우리 영화제 상영작에 대해서 '저게 무슨 건축영화인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뜻 깊은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제에 참여한 감독, 미술감독, 작가가 건축사들과 대화를 하며, 해당 작품이 왜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것을 설명하고 관객들과 호흡하면 좋을 것 같다. 흔히 건축물과 일반 조형물의 차이는 무엇인가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건축도 사람에서 출발을 하는 것 아닌가.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최근 건축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이슈가 환경문제나 지속가능성 등이고, 해외 건축영화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자주 조명된다. 사실 건축이 제일 무지막지한 폐기물을 양산하는 집단이다.(웃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영화도 상영해야 한다. 특히 올해 검토하고 있는 영화중에서 〈비주얼 어쿠스틱스\_Visual Acoustics〉라는 작품이 있다. 줄리어스 슬먼이라는 유명한 건축 사진작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이처럼 세계적인 예술가와 건축사 등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꾸준히 상영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 건축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작품 중 〈콜하스 하우스라이프\_Koolhaas Houselife〉라는 작품이 있다. 렘 콜하스가 디자인한 보르도 하우스에서 일주일 동안 집안을 청소하는 가정부를 촬영한 영화다. 극중에서는 집에 비가 새고 난리도 아니다.(웃음) 영화는 왜 하필 비오는 날 촬영을 했느냐고 묻는 렘 콜하스의 말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다지 교육을 받지 못한 한 할머니가 등장해 몸을 사리면서 솔직한 얘기를 한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콘센트를 찾지 못하겠다는 문제 등이다. 건축사와 그가 설계한 건축물을 대하는 일반 사용자들의 대화를 보여주는 영화다.

작년 영화제에 대한 관객들의 열기를 보면서, 관객들이 영화감독과 건축사의 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짜내면 더욱 좋은 영화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건축 분야는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다. 그래서 올해는 저변을 좀 넓혀서 문화계의 더욱 다양한 분을 영화제에 모시면 좋지 않을까 한다. 그래픽 디자인이나 가구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지명도 높은 분들을 모시고, 가까운 디자인분야에서부터 교류를 하면 관객들도 좋아 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영화제 전체의 운신의 폭이 좁고, 그런 만큼 좋은 아이디어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선희** | 신춘규 대한건축사협회 이사께서 지난해 영화제에 참석하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다.

**신춘규** | 김형수 위원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서 영화제에 즐겁게 참석했다. 일단 이 영화제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끝났기 때문이다. 고무적인 것은 건축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을 건설의 하위개념으로 봐서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왔는데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영화를 통해 건축에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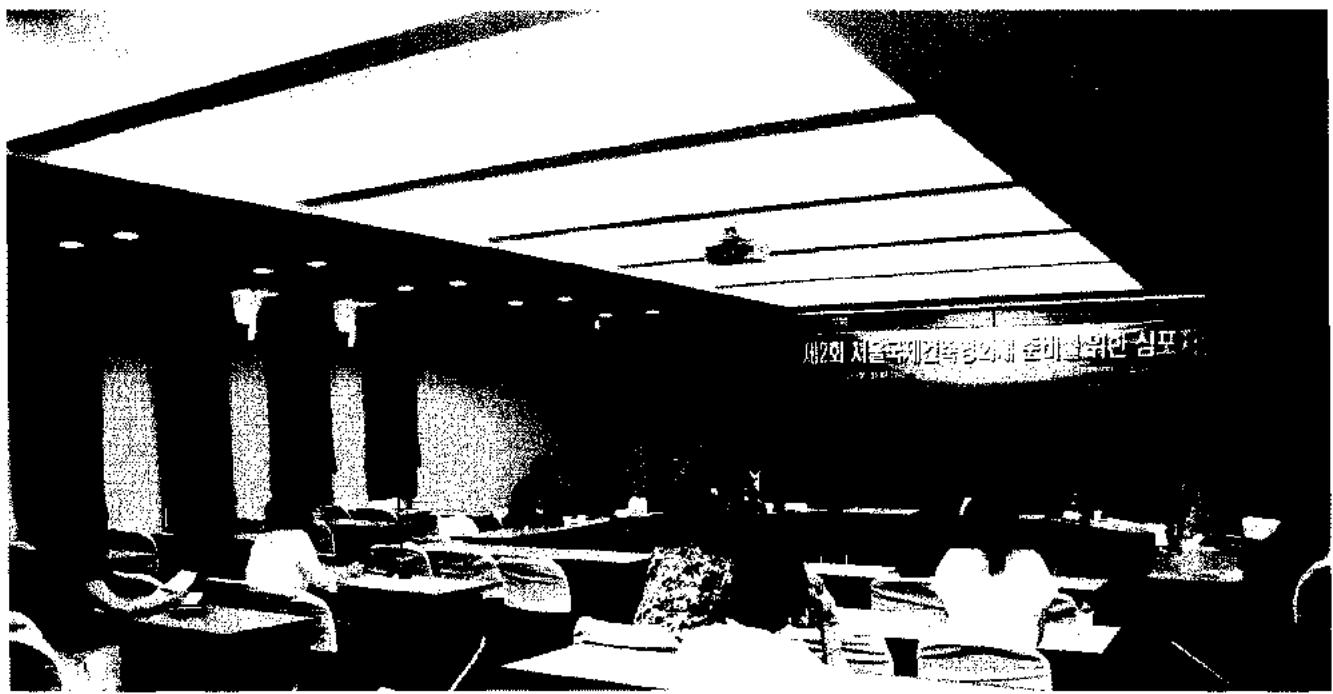
사실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다.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HAF)에서 발표를 하는데, 렘 콜하스에 대한 영화 다음에 일정이 잡혀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웃음) 또 〈마이 아키텍트〉의 루이스 칸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장이다. 그만큼 요즘 젊은이들은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트렌드만 이해하는 모습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HAF와 GV 시간이 무척 좋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상영된 6편 영화는 〈취화선〉처럼 영화 장면 곳곳에 숨어있는 일상적인 건축의 요소들을 보여주거나, 프랭크 게리나 노먼 포스터의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굉장히 교육적인 얘기들, 또는 〈마이 아키텍트〉처럼 건축사의 삶 자체를 반영하는 영화 등이 골고루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이 세 종류의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학생과 건축사보와 일반인이 모두 다르리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영화제 상영작을 통해서 건축사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흔히 우리가 빼기 쉬운 경직된 사고를 영화제를 통해 풀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건축사들 스스로가 건축영화제를 통해서 건축을 건설에 하부적인 것으로 여기는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들과 다양하게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건축을 한 도시의 문화유산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영화제가 열리는 장소가 건축적인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요즘 건축계 행사가 너무 분산이 돼 있다. 특정한 한 달을 정해서 건축축제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산업대전,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하나로 집중해서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영화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건축사들에 대한 교육의 장, 경직성을 물어줄 수 있는 매개체로,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매개체로 영화제가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올해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선희** | 마지막으로 이광모 대표께서 올해 영화제가 진행되는 극장인 이화여자대학교 아트하우스 모모를 소개하시겠다.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린다.

**이광모** | 우선, 건축영화제를 모모에서 하게 된 것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한다. 현재 본인은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의 집행위원장



심포지엄 전경

으로 영화제를 꾸리고 있는데, 심포지엄을 듣다 보니 많은 점을 생각하게 된다. 사실 진정성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영화제는 드물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기업홍보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건축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에서 상당히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 아주 작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트하우스 모모 극장은 도미니크 페로가 이화여대 ECC 안에 극장 내부, 영사실 등을 모두 디자인했다. 심지어 스탠드 하나까지도 지정을 해서 준 상태에서 약간의 보완을 한 거다. 그래서 두 개의 상영관에서 영화를 각각 상영할 수도 있고, 한 영화를 모두 상영할 수도 있다. 사운드 면에 있어서도 아트하우스 모모는 뛰어지지 않는다. 사실 극장이 이화여대 안에 있어서 접근성 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위치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을 시설의 측면에서 풀어보자고 생각했고, 따라서 어느 정도는 과잉투자한 극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국내 멀티플렉스인 CGV, 예기박스 등은 소니 포터블 수준의 오디오라면, 모모는 하이엔드급 오디오가 설치된 영화관이다. 영화는 좋은 곳에서 관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트하우스 모모는 가장 정확하게 감독의 의도를 전달하고, 기술적으로 완벽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극장이다.

건축영화제에 제안하고 싶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 ECC 건물 가운데 뱉리는 공연복적으로 해당초 설계가 돼 있었다. 그곳에서 야외상영을 하면 좋겠다. 계단에 편하게 옹기종기 앉고, 야외스크린을 하면 멋진 공연이 될 것이다. 그간 야외상영을 성사시키기 위해 저희가 대학 측에 끊임없이 어필을 해왔고, 언젠가 시도가 되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해가 될지 아니면 이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건축영화제를 하면서 야외상영을 시도한다면 참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사실 모모는 사실 공간적으로 봤을 때, 영화제를 운영할 때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사무국을 위한 장소가 협소하고, 캐스트라운지 역시 극장 앞에 위치한 카페를 별도로 활용하셔야 할 것이나, 다만 모모 앞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비교적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모를 100% 활용하기 위해 저희와 협의를 하시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다. 영화제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교육, 사교의 장이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공간설계가 잘 되고 활용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모모에서는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을 하고 있다. 국내에는 부산영화제나 전주영화제 등 큰 영화제도 많지만, 그런 작은 영화제들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나가려 하고 있다. 작은 영화제들이 생존해야 문화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흥가리에서 한 작은 영화제아를 30년 동안 운영한 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은 미술 부분을 특화시켜서 30년 동안 영화제를 해왔다. 아티스트를 초대하고 그들의 작품들을 극장 곳곳에 전시를 하면서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실 영화와 미술의 만남을 영화제를 통해서 만들면서 인적교류를 성사시키는 것을 보면서 흐뭇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존경스러웠다. 아직도 서울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너무나 척박하다. 예술영화관에는 평균관객 수가 5~6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명분만 찾고 규모만 찾지, 자기색깔과 철학을 가진 행사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건축영화제가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백두대간이 일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예정이다. 만나게 되어 반갑다. ■

# 세종시 은하수 공원

##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Funeral Culture Center

조상훈 건축사 | 주. 항도시 건축사사무소 + 장용호 건축사 | 주. 건축사사무소 두호

인터뷰 장소인 회의실에 비치된 오디오 장비를 보고 매우 놀랐다. 대단한 오디오 마니아임이 분명한 조상훈 건축사는 1920년대 사용하던 스피커를 다시 그대로 구현하여 귀를 달랠며, 1910년경 제작된 빈티지 선풍기로써 더위를 달랠라고 하였다. 이러한 오래된 장비의 조합을 따라가고 싶은 양, 조상훈 건축사와 장용호 건축사는 오랜 동안 서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

만나고 헤어짐이 빈번한 건축계에서 드물게도 꾸준히 지속되어 온 그들의 협업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처하는 여러 건축사들에게 멋진 사례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였다.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생생한 오디오와 선풍기의 성능처럼, 두 분의 작품과 사업도 계속하여 지속되길 기대한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 박인수(이하 박) : 오디오가 매우 멋집니다. 이런 것이 여기 있을 줄 몰랐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이하 유) : 공일곤 선생의 향 건축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음악도 좋아하시고 하나…

●●● 조상훈(이하 조) : 관계가 없는 사무소이고요. 공 선생님은 건축계 대 선배님으로 음악과 오디오를 한참 먼저 좋아하신 분이시지요. 한자로 저희는 '향기 향', 공 선생님은 '시글 향' 차입니다.

● 유 : 장 소장님과 조 소장님은 1년 차이의 선후배 관계라고 들었는데, 건축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 함께 해 오신 것으로 봐도 될까요?

●●● 장용호(이하 장) : 그렇죠. 학부 때 작업실에서부터 같이 했으니까요.

● 조 : 장 소장님은 저의 1년 선배인데, 학교 때부터 늘 함께 했어요. 국전 등 공모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많이 친해졌죠. 같이 늦게까지 일하면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각자의 사무소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친해도 둘이 꼭 같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보완하게 되는 거지요. 요즈음은 말하자면, 저의 경우, 디자인에 전념하기가 어렵고 소홀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장소장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사」지에 소개된 은하수 공원은 장 소장님과 함께 하기로 하여, 일하기 전 공동수주 협약을 맺고(협약서를 보여줌) 같이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형식화된 문서없이 함께 하였지만 언제부턴가 이러한 형식

적인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협약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매번 프로젝트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성격을 가진 'hnd'라는 그룹을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함께 만들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수주도 같이 하고, 현상도 같이합니다. 보시다시피 포트폴리오가 두 가지로 인쇄되었습니다. 장 소장님의 앞에 나오는 경우와 제가 앞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리자면, 전 항도시 대표이사지만, 두호의 소속원이고, 장 소장님은 두호의 대표이사이면서, 항도시의 소속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에는 (주)hnd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또 있습니다. 인천법인입니다. 여기에도 장소장님과 제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유 : 꽤 지혜롭고 혁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복잡하지도 않고요.

● 박 : 지금 계신 사무소(구. 바른손 사옥, 현재는 동양으로 소유주가 변경됨, 이종호+양남철 설계/감리)에서 상하층으로 구분되었지만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서 협업을 하셨나요?

● 장 : 처음에는 한 50m 정도 거리를 두고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곳으로 옮기었고, 그 후 한 6개월이 지나 항도시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 유 : 이런 모습으로 함께 일하는 경우를 어디서 참고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로재 같은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항도시와 두호는 패트너십도 아닌 것인가요.

● 장 : 사실상 같이 일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도큐먼트를 만드는 내용은 달리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 조 : 이런 약정서는 무엇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발전시킨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 장 :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비교적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이지요. 아사다시피 요즈음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큰 프로젝트는 대형 사무소들이 썩 쓸어하는 형국이라서 작은 사무소들이 수주를 경쟁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 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사무소에서 규모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듯 함께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박 :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좋던가요?

● 장 : 아시다시피 현상설계에는 초기 투자비용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결과가 낙선 일 때, 그 심자는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이지요. 저희는 현상설계의 당선 비율이 30~50%정도 됩니다. 그러나 참 위험하죠. 현상을 시작할 때 대단히 많은 생각을 하고 시작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한 판단이 매우 신중한 것 같아요. 이럴 때 같이 하면, 이런 위험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 박 : 그렇군요.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라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대로 열매를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 조 : 저희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누가 주도를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데, 대개 5:5로 나누고, 경우에 따라 다를 때도 있지만, 그것도 6:4 이상의 차이를 갖진 않아요. 이 은하수 공원의 경우, 5:5의 자분으로 한 것입니다. 또 사무소를 운영하다보면, 손이 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백업 시스템이 있으니 자신감도 많아 생기죠. 어떤 프로젝트이던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죠.

● 박 :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이 창업 때부터라고 하시는데, 일을 하며 불협화음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 조 : 제 생각엔 미리 비율만 정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문제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하기로 약정까지 했어요.

● 박 : 하지만 협업하는 사무소에서의 성공사례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심지어 몇 개월 만에 깨지기도 하는데, 혹시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조언을 해 주신다면?

● 장 : 어려울 때에 동업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될 때에는 잘 깨집니다. 어려울 땐 잘 안 깨져요. 잘 되었을 때, 서로 어떤 공이 있어 무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됩니다. 아니면 똑같이 나누거나.

● 조 : 제일 중요한 게 신뢰이고, 또 약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약정서를 매 프로젝트마다 다시 쓰는데, 얼마씩 투자하고, 어떻게 이익을 나누고, 저작권은 어떻게 하고를 전부 서면으로 기록해 둡니다.(협약서를 다시 보여줌)

● 박 :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협업의 약정이 있고, 프로젝트별로 또 다시 약정을 하는 거군요.

● 조 : 그렇습니다.

● 장 : 살아보니까, 언젠가는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늦추려면 잘 될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공정하게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게 헤어지는 것을 미루는 방법이죠.

● 유 : 대부분의 일을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따로 하시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 장 : 두호의 경우 15년 정도를 거의 현상공모로만 지내왔지요. IMF 때도 어려움을 못 느꼈죠. 그 때 현상이 많이 되었고, 어려울 때를 쉽게 지날 수 있었죠.

● 조 : 최근까지 큰 프로젝트는 모두 같이 했어요. 각자 수의 계약으로 의뢰받는 일을 빼고서, 현상, 턴키, BTL 등을 모두 같이 했지요.

● 박 : 소위 경쟁하는 것은 모두 같이 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조 : 우리가 함께 대형사무소와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모 사무소와 공공기관 이전 프로젝트 현상설계를 수행하여 당선 되었습니다.

● 박 : 좀 전에 하신 말씀처럼, 메이저급 사무소와 일할 때, 상대적으로 당치가 작은 사무소들이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 조 :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규모의 차이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소형사무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설계작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데 대형사무소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대개 2.8이나 2.57.5 정도로 비율을 정하고, 작은 사무소가 자문 수차인 2나 2.5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적이 많지요. 모든 것을 대형사무소에서 떠안고 가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도 매우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사무소들이 작은 사무소가 할 수 없는 전문적인 능력과 조직력 그리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건축본질의 작업에 대해서는 작은 사무소의 장점도 있는데, 아예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종시 은하수 공원 전경



세종시 은하수 공원 봉안당 중정

● 박 :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 조 : 그런데 몇몇 대형사무소는 꽤나 미인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수치로 정의하는 것이죠. 대형사무소들은 실시설계를 거의 외주사무소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사무소내의 인원으로는 실시설계를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미흡 한 것 같더군요. 협업을 하면서 대형사무소는 기획과 엔지니어링, 소형사무소는 실시설계를 담당 한다든지 하는 지혜를 짜낼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서로의 생각만 조금씩 바꾸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건축가가 어려울 때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 박 : 화제를 바꾸어 설계하시는 방법을 물고 싶군요. 국내법에 따르면 설계과정이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나뉘어 있고. 미국 기준에 의하면 PD, SD, DD, CD, CA 등으로 나뉘는데, 지금 두 분은 이런 과정을 설계에 어떻게 도입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조 : 저희는 좀 전통적인 설계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 소장님이나 저나 모두 아틀라에 출신이고 그러다보니 건축사 중심의 업무를 많이 배웠습니다. 맨 처음 건축사인 소장이 매스 모형이나 큰 개념의 스케치를 통해 큰 내용이 완성되면, 실장이나 팀장이 도면을 그리면서 구체화 하죠. 그런데 이때, 팀을 팀장이 운영하면서 실체화시키고, 또 시원들과 함께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표자와 직원들이 계획부터 실시설계 시공의 과정과 사후관리까지 모두 참여해 내용을 파악하고 그 결과들에 따라 다시 피드백 하여 품질관리를 하는 방식인 것이죠.

● 박 : 네, 그런데 사실 설계라는 게 쭉 진행되며 좋은데 그 특성상 뒤로 가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중요하고 판단이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만일 이런 과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뒤로 돌아갈 때 그 근거나 기준이 매우 모호해져 두 번 세 번 무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매우 쉽게 판단해 설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향이 생긴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예를 들면, 일자로 배치된 안을 진행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ㄱ' 자형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면, 사실 실시설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발주처와 그 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추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나 보상이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공공의 현상설계인 경우, 부실한 치침서에 의거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설계안이 확정되지만, 진행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장 : 사실 저희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방 자치단체의 건물이었는데 단체장이 변경되면서 안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계비를 더 요구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결국 합의를 해서 비용을 받게 되었죠.

● 조 : 현상설계의 경우는 그나마 대부분은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앤이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정산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공공기관설계의 경우, 사소한 아이템의 변경 때문에 건물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감리를 못하니까 현장에서 설계에서 지정한 설계요소들이 바뀌는 거죠. 핸드레일 재료 같은 경우 참 민감한 요소 아닙니까?

● 장 : 그래도 책임감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저희랑 협의를 해주면 방법은 있어요. 무료 봉사란 게 문제죠.

● 박 : 그럼 이번엔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께요. 공공하고 계약할 때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나요?

● 장 : 그런 것들이 물론 있죠. 서류 쓸 때, 참 주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이 무언가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공문이나 팩스, 메일 등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용이 또 바뀔 때가 있어요.

● 유 : 대부분의 경우 공공의 계약서는 매우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니 협의할 내용이 별로 없지 않나요?

● 장 : 그래서 저희도 소송한 적이 있어요. 모 지자체 일이었고, 다른 회사가 피엠역할을 하고 저희가 설계로 참여하는 것인데, 그 피엠회사가 공사비와 설계비 예산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 비용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원청자에게 우리의 비용을 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결국 판결 직전 합의를 통해서 설계비가 합의 되었어요. 피엠회사에서 부담을 하였죠.

● 박 : 하지만 설계비 보다는 공사비가 더 큰 문제 아니었을까요?

● 장 : 그렇죠. 그래서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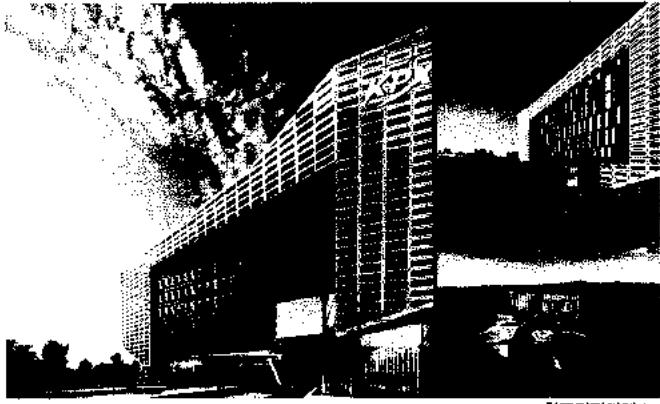
● 박 : 요약하면, 경험도 지식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밀도 안 되는 예산을 수립해서 프로젝트의 존폐 위기를 만들어 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 이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실행 가능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 내야겠네요. 혹시 그런 예산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던 사례가 있나요?

● 장 : 대부분 잘 안되죠. 하지만 경험이 있는 지자체는 그렇지 않더군요. 서울시의 경우,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많아서, 비용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는 많은 소송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 : 말씀 듣다보니, 좋은 변호사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 장 : (웃음) ...

● 조 : 설계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계속 준비해서 소송을 통해 권익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미비하고, 건축을 대우하지 않는 풍토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계획설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0



한국전력거래소

여 년 전에 들은 이야기 인데, 모 지역 중장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에서는 중장비를 쓰려는 사람들이 계속 소평을 하니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공사에 누가 중장비를 얼마에 쓰려고 했다는 내용을 협회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정보를 공유해서 필요 없는 업무를 줄이고,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류의 업무를 부산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상황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당하지 말고, 당당히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 : 사무소를 시작하신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조 : 저는 이전 대한건축사협회회관을 설계하셨던 송광섭 선생님의 활 건축사 사무소에 만 근무하다 1995년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어요. 장소장님은 20대 때부터 단독 업무를 해오시다가 건축사 업무는 30대 중반에 시작 하였습니다.

● 유 : 장소장님은 다른 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 없이 사무소를 오픈하셨나요?

● 장 : 그건 아니죠. 아기반에서도 일했고, 우원건축에서도 일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일을 배웠죠.

● 유 : 두호는 무슨 뜻인가요?

● 장 : 가까운 선배 분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실 전 그 분하고 사무소를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분 큰 아이 이름이 호영이고 둘째아들이 두영 인데, 그 아이들 이름을 가지고 사무소 이름을 만들었죠. 정림에서 일하시고, 안산에서 실무하시다 한 1년여 만에 돌아가셨어요.

● 유 : 향도시란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 조 : 제가 처음에 동업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몇 개의 이름을 지어와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결정했죠. 한문으로는 향기 나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두호와 저희가 하나의 시무소로 합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간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 관성이란 것이 생겨 조금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계속 따로 선 차로 협업하기로 했어요.

● 박 : 두 사무소의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조 : 비슷한 구조입니다. 두 곳 다 파트너급의 소장이 있고, 또 실장도 있고,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 장 : 지금 제 사무소의 파트너 소장은 실습생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 : 저희 사무소도 장기근속자가 많고 대부분의 인원이 신입부터 지금 까지 근무한 직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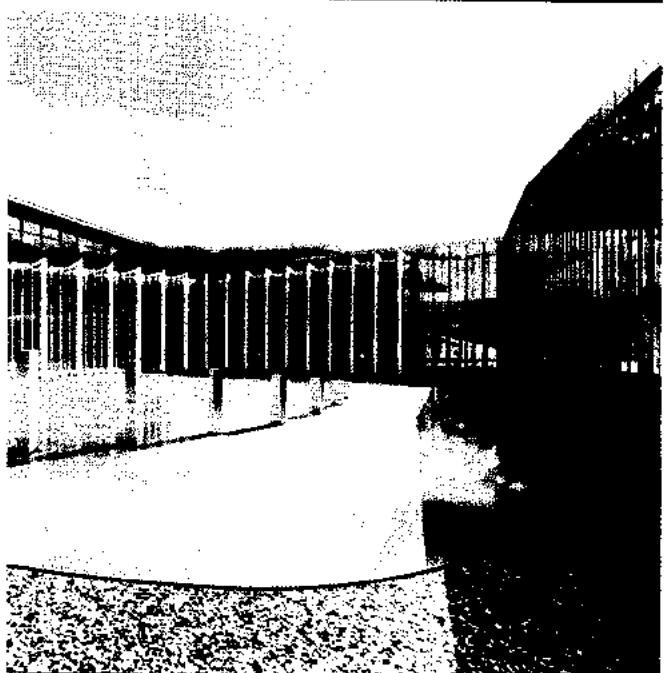
● 박 : 그러면 사무소의 조직구성이 좀 어렵지 않나요?

● 조 : 그런 어려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 장 : 소장이 직접 일을 같이 하면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특별히 질해주는 것은 없거든요.

● 박 : 혹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건축사사무소에서 가장 바람직한 직원의 모습이랄 것이 있는지요?

● 조 :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을 가장 신뢰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실성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디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 주변 환경

인을 잘 할 수 있는 기능성을 보지만, 성실성과 기량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 보면, 5~6개의 소프트웨어는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REVIT 프로그램도 경험하고 오면 좋다고 생각하죠.

● 박 : 결국 요약하면 '성실성' 이네요. 그런 것을 얼굴보고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 조 : 그래서 추천을 받는 거죠. 학생들이 그간 지내온 것들을 학교에서는 아니니까 그런 거죠. 사무소에서 모두가 디자인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스템프가 필요한 거죠. 사무소가 어렵든 어렵든 함께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요새는 위낙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차이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 유 : 말씀처럼 와서 잘할 줄 알고 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 장 : 학교 다닐 때 저는 공모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이력서는 다른 친구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참 열심히 했었죠. 요즘 학생들도 다양한 수상과 경험을 갖고 오긴 하지만, 그것만 보고 사람을 냈더간 대개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최근 이력서들을 보면, 한 줄 더 있는 것이 실력으로 반영되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다른 사무소에 갔다가 거기서 어떤 직원이 활동을 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는데,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법과 똑같이 정확하게 같은 일을 하고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을 보고 건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테리어 회사로 옮겼는데, 그 감각이 매우 좋았어요. 당시 투시도 회사에서 일했던 친구였는데, 진짜 잘했어요. 그런 감각적인 것은 잘 볼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사무소가 시험을 볼 수도 없고.

● 유 : 요즘 잘한다는 학생들이 모두 대형 건축사 사무소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교수가 추천 했다고 해도 롬클래스에 있는 학생은 아닐 수 있잖아요?

● 조 : 그래서 추천을 받고 또 보는 거죠. 하지만 항상 성공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 장 : 전 솔직하게 신입 지원을 하는 학생들에게 '너 진짜 건축할거니? 안 하는 게 좋지 않나?'고 이야기 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의 징후가 어느 정도는 보이잖아요? 특히 먼 지역에서 오게 되면 하숙비 내고 나면 근근이 살게 될 텐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 조 : 몇 해 전 건축직 리크루트를 위한 행사가 있었어요. 참 많은 학생들이 왔었지요. 지원 경향이 대전을 중심으로 치러더라고요. 대전 이북 지역에서 지원 1위가 S설계이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대전 이남 지역의 학생들의 1위는 미국 AIA 실무핸드북에서 말하는 '이인쉬타인형' 사무소인 건축사 사무소였지요. 서울의 경우,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S설계를 가겠다고 했고, 대학생들의 경우, 100% S설계를 확망하였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 유 : 그거 재미있네요. 한국에 많은 대형사무소가 있는데, 그 중에도 S설계가 인기가 제일 좋군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 조 : 사실 대형사무소들의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디자인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대관업무도 하고, 감리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요즘 보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행정과 진행업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진행을 위한 지원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의 이해도는 점점 약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도 모르고, 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전 학생들이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박 : 신입사원 이야기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여 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 : 현상에서 당선될 때가 제일 좋죠. 그리고 직원들의 건축적 역량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주 보람 있습니다. 나빴던 때는 어떤 건축주에게 계획설계를 1년 가까이 해주었는데 말 한마디 없이 다른 곳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슬프죠.

● 유 : 사무소 직원이 제일 많았을 때는 몇 명이나 되었나요?

● 조 : 한 사무소 당 20명이 넘었던 적이 있었죠. 한 40명이 넘었어요. 감리 포함해서.

● 장 : 전 저와 관련된 일을 할 때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한 설계를 하기보다는 저를 위한 프로젝트를 위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 조 : 장 소장님은 재주가 너무 많으세요. 제출 모형도 직접 만드시고,

● 박 : 그럼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일까요?

● 장 : 현상에서 떨어질 때,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손실이 엄청났을 때, 그 때 참 어렵죠. 세상말로 현상설계는 정말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인거죠.

● 조 : 텐키의 경우를 보면 건설사에서 설계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서 지불하도록 예산을 잡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소가 현상설계에서 몇 번 떨어지면 사무소 운영이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도록 텐키처럼 현상에 떨어져도 어느 정도 사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주 비용이 적게 들게 제도를 바꾸거나.

● 장 : 예를 들어 1등에 10억이 돌아갈 때, 2, 3등에게 2억 정도를 나누어 준다면 좋은 안 많아 나오게 됩니다. 지금처럼 1등만 쟁겨주면 건축계에 죽습니다. 농구할 때, 끝이 정확하게 링 안에 들어가는 것만 골은 아니잖아요. 벽에 맞고도 들어가고, 링에 맞고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은 떨어주어야 합니다.

● 유 : 그동안 설계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 장 : 처음에 했던 용미리의 장례시설입니다.

● 유 : 또 지어진 건물 중에 내놓고 싶은 건물이 있으실까요? 은하수 공원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이 장례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용미리 전경



종묘

● 장 : 저희가 처음 이렇게 장례시설을 하게 된 것이, 현상설계를 통한 것 이었는데, 스터디를 하다 보니 외국의 경우에 유명 건축사들이 독특한 장례시설을 설계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더군요.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아도 별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지요. 당시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자료들을 보고 있다가 선배와 술을 마시면서 제가 하소연을 했지요. 장사시설을 하고 싶은데 자료도 없고, 사례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니 그 선배가 “우리도 있어, 종묘가 있잖아.”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죠. 아주 가까운데 있는데도 마치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종묘를 보고, 그 개념을 끌어내면서 서울시립 용미리 추모의 집 현상에 당선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저희가 장례시설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이유입니다. 나중에 들키는 만장일치였다고 하던데… 현상을 준비하면서 컴퓨터 그래픽을 했어요. 1996년 인데, 당시로선 잘 하지 않던 표현이었지요. 당시 설계비가 2억 원이었는데, 투시도 비용이 2천만 원이 들었어요. 당시 CG업체가 드물어서 달라는 대로 준 것입니다. 꼭 이 기기 위해서.

● 유 :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납골당이었나요?

● 장 : 아닙니다. 공간의 고 장세양 선생님이 벽제에 하신 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지요. 저도 많이 참고 했습니다.

● 유 : 이런 유익 사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장 : 용미리의 경우 오픈한지 3년 만에 다 차 버렸어요. 당시 고 건 시장 시절이었는데, 화장을 장례하는 차원에서 1기당 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매우 저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단 화장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하루에 1인이 사망합니다. 우리의 경우 서울, 경기권에 2,000만 명의 인구가 있으니 하루에 200명이 서울, 경기권에서 사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으로 400명이 매일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장장이 서울, 인천, 수원 정도의 자치단체에 있고, 안양, 부천 등에는 없어요.

● 유 : 은하수 공원이 생기기 전에는 대전 인근에도 화장장이 없었던 것 이군요.

● 박 : 그렇다면 이전에는 대전에서 벽제 등으로 올라와서 화장을 하고 다시 내려갔던 것이었나요?

● 조 : 그래요. 이동만이 문제가 아니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자체

에 속한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지만 타 지역의 사망자인 경우 비용도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화장하는 직접경비가 약 50만원이 넘게 들고 시간도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많은 저자체에서 기피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 유 : 적어도 도에 하나씩은 있어야 하겠네요.

● 장 : 서울의 경우, 강북에는 벽제에서 처리하면 되지만 강남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주춤한 원자동 화장장의 기능이 꼭 필요한 형편입니다. 서울시에서 다시 추진해서 화장로 10기가 설치된 화장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 : 10기라고 하면 하루 화장 능력이 어떻게 되나요?

● 장 : 하루에 서울시가 1기가 5교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장비가 빨리 수명을 다하게 되지요. 물론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장례라는 절차와 의식이 있어서, 마음대로 빨리 당겨서 진행할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적당한 것은 1기당 3교대 정도가 여러 면에서 적당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1일 사망자를 100명으로 본다면, 한 화장장에서 50구씩 처리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 그렇게 본다면 서울에 2~3곳 정도의 화장장이 필요한 형편이네요.

● 조 : 하지만 그건 100% 화장을 할 때 이야기이지요.

● 유 : 서울에는 묘소 자리가 더 이상 없을테니 대부분 화장으로 유도하려 하지 않을까요?

● 장 : 지금 70%가 화장을 하고 있어요. 전체 비율이 50%가 되면 화장 국가에 속하게 됩니다.

● 유 : 그리고 어마 매장된 분을 이장하며 화장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 장 :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꽤 있죠. 아마도 머지않아 저희들이 세상 떠날 때, 매장해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고 건 시장이 붐을 만들었던 화장도 의미 있지만, 단일한 방식으로 흐르는 것 보다는 다양한 장례방식이 함께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0여국의 장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외장이 많고, 외장을 윤장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60년까지 외

장이 가능한데 그들은 그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묘에서 나와야 합니다.

● 유 : 60년이면 두세대 정도의 기간이네요.

● 장 : 그렇죠, 두 세대입니다. 복지부에 모여서 한번 이야기 했는데, 우리도 30년, 한 세대로 끝내야 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3층으로 적층하여 외장을 하기도 합니다. 단일한 화장으로만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망우리 공동묘지의 경우, 일본인이 설계를 한 것인데, 자연을 참으로 잘 이용한 묘지입니다. 지금도 참 아름답고, 등산 살리고, 놀랄만하게 좋은 묘지더라고요. 일산 지나서 보이는 계단식으로 된 그런 묘지와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도 일본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한국 근대사에 중요한 분들의 묘가 매우 많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기보시면 좋을 거예요. 바람도 쏘실 겸해서.

● 박 : 어릴 때 그곳에서 놀던 기억은 있지만, 그런 관점으로 본 적이 없군요.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 유 : 그럼 혹시 고마운 사람들이 있나요?

● 조 : 그건 우리를 신뢰하고, 결과물에 만족하는 건축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매우 고맙죠. 그건 바로 건축에 대한 건축주의 수준인데 안목이 있는 분들입니다.

● 장 : 이 은하수 프로젝트는 건설사가 지어서 사회에 헌납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나 건설사가 건축주였던 거죠. SK건설의 전 회장이 작고하면서, 유언으로 사회에 기부하는 건물이었어요. 매우 깨끗하게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 조 : 이 현상은 대형사무소 3사 그리고 저희가 지명 경쟁했던 프로젝트

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심사위원은 20명 정도이었고, 대부분 장례시설의 전문가들 이었는데 저희가 동선과 기능 같은 것을 다른 경쟁사 보다 점수를 더 받은 것 같습니다.

● 유 : 지어지는 과정에서 건설사와 문제가 없었나요?

● 장 : 건축주가 직접 짓는 건물이었으니까 여러 말할 것 없지요. 사실은 민간 프로젝트인데, 기부체납하면서 공공건물이 되었죠. 감리도 직접 할 수 있었고요.

● 조 : 건설사도 감리는 설계자가 직접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하게 되었어요. 설계자에게 가점을 주었지요.

● 유 : 서울에 짓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조 : 지금 골조공사하고 있어요. 감리는 당연히 못하죠.

● 유 : 그래도 계속 일을 보셔야 하잖아요.

● 조 : 지금은 무료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가 없으니 어쩔 수 없지요.

● 박 : 그럼 이 건물의 배치 등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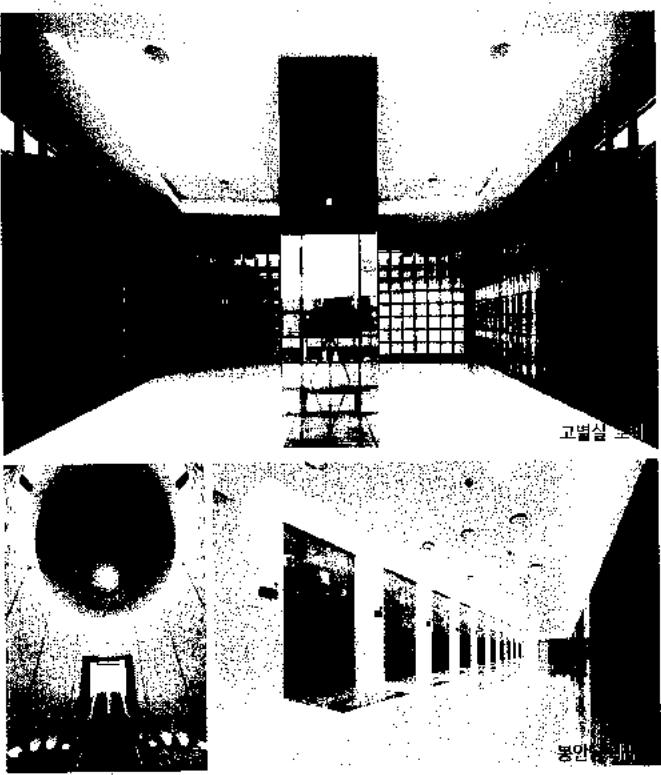
● 조 : 행복도시 순환도로변에 면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는 경사지고 굽곡이 심한 대지에 순응하여 세 가지 기능을 배치한 겁니다. 가능한 한 토목공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징례를 하고 화장하고, 납골하고, 유택동산으로 가서 산골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형적인 흐름을 취한 것이죠. 중간에 지원시설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사하는 곳이 10실이 있어요. 그리고 운구하는 동선이 있지요. 저희가 생각했던 중요한 개념은 중심성을 주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승화률의 도입입니다. 화장장 앞에 원형공간을 두어서, 승화 공간으로 생각하고 화장하는 동안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어요. 주로 이곳은 3일장을 치르고 녹초가 되어서 오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죠. 화장장에 와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면서 사자와 이별하는 가장 중심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외부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주위 녹지 공간에 쉽게 접하여 휴식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화장장과 납골당의 중간영역에는 관리영역을 배치하고 납골당은 하늘과 소통하는 중심공간을 두어 이곳을 채광과 활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게하는 기능과도 부합되게 하였습니다.

● 장 : 이런 종합 장례시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프랑스에서 한번 보고 전 세계에서 못 보았어요.

● 유 : 국내에는 또 없나요?

● 조 : 아니, 창원에 있긴 하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이것 이 거의 최초입니다.

● 장 : 그런데 진행하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워낙 지명된 현상의 상대들이 대규모사무소이고 해서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현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바로 어떻게 정확하게 상황을 읽어 내느냐 일 것



세종시 은하수 공원

입니다.

● 박 : 감리도 하셨지만 건물 지을 때 문제가 좀 없었나요?

● 조 : 이게 좀 특별한 경우였던 것이 건축주가 시공자니, 현장에서 몇몇 재료가 바뀌긴 했지만 대부분 잘 진행되었어요.

● 장 : 정상적인 책임감리는 재료를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건축주가 시공자이다 보니, 몇 개의 재료가 바뀌고 무난히 진행되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좋아진 면도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종합 장례시설로는 최고의 시설입니다. 서울 주모공원은 저희가 대형사무소와 함께 터키를 수행해서 당선된 경우 인데, 주민반대가 심해서, 화장장만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대규모의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화장로 두기 정도의 작은 화장장들이 지역에 많이 있는 게 더 좋지요. 하나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고요, 고장 나거나 정비할 때에도 적어도 하나는 돌려야 하거든요.

● 유 : 혹시 학교에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곳이 있나요?

● 조 : 보건전문대학에 장례지도학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례관련 협회들도 있고, 교수 한분이 이쪽에 논문을 좀 쓰시고 있어요.

● 유 : 수목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 장례에 대해 좀 더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장 : 사실 장례시설은 공사비도 높고, 건축사가 생각해서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기가 매우 쉽지 않아요. 실적이 없어서 그렇죠. 저희도 처음 이 일을 하기 위해 장세양 선생님이 설계한 벽제 화장장을 리모델링하는 일을 먼저 하였어요. 수의계약 하는 범위 내에서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우선 계약을 해서 실적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화장장의 이해가 매우 깊어졌어요. 화장장은 일종의 플랜트예요. 그리고 민간인은 완전히 통제되죠.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화장로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지요. 아무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자그마한 실적을 하나 갖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실적을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북유럽 쪽의 장례시설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도 잘 안되잖아요.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지도 잘 부리워요. 우리나라의 수목장 등은 참 우스운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문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수목장에 산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실제 자연장을 잘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 대개 나무 밑에 뿌리거나, 물어요. 그리고 한국에선 뼈를 거의 파우더 같이 갈지요. 근데 이건 나중에 완전히 칼슘덩어리가 되어버려요. 물이 닿아도 풀어지지 않고 응고해서 둘 같이 되죠. 이걸 물에 풀어야요. 그럼 물밑에 둘처럼 쌓여있어요. 또 나무 밑에 묻게 되면 둘처럼 굳어버려요. 그런데 자연장을 잘하는 나라의 분골은 잘게 부수기는 하지만, 가루로 만들진 않아요. 서로 양키지 않도록 말이죠. 마사토 같은 것 하고 섞이면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요. 지금은 업자들이 모두 사업으로 이러한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화가 생기고 상식이 넓어져서 지경이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계몽식 문화는 참 문제가 많아요. 또 집에 분골을 두는 것도 방법이고, 형제들이 조금씩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화장을 하면 분골의 성분은 모두가 칼슘이고, 약간의 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하거나 별레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 박 : 이 건물이 지금 활발히 사용되고 있겠죠?

● 장 : 네. 그리고 좋은 건 이 사설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 또 다른 화장시설을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협의 중인데요. 대규모입니다. 중국의 인정이라고 복지부에서 와서 협의를 했어요.

● 박 : 그럼 엄청난 화장로가 필요 하겠네요. 아까 10만 명당 1인이 사망한다는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 장 : 중국의 경우는 화장이 100%라고 합니다. 등소평이 사망하면서, 법으로 화장을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등소평 이후로 죽는 사람들은 모두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유 :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조 : 저희 경우가 소형사무소가 서로 협업해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례가 되면 참 영광이겠습니다.

● 장 : 작은 사무소들이 이제는 특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례시설 말고, 수족관과 교도소 같은 곳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공사례는 없지만 계속 현상을 통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상을 하다 보니 참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방 쪽에 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수족관 등의 바다와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 유 : 국내에는 그런 시설이 확실히 부족하네요.

● 장 :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시설이 참 좋은 거예요.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제도가 잘 정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무소 운영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서 하라는 것이죠.

● 조 : 공공 프로젝트의 발주 시스템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냥 진행 했다간 낭패 볼 수가 있어요.

● 장 : 낙선작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합니다. 덤키 수준만큼 되어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조 : 최근의 대형 현상설계에서 BIM설계가 필수사항인 추세입니다. 최근에 억 단위의 금액이 필요한 현상설계에 참여 한 적이 있습니다. 당선 되긴 했지만… 총 설계금액의 10% 정도가 현상설계 제출 비용으로 소요 되더군요. BIM 설계라고 해서 설계요율이 더 적용되진 않고 있는데, 이 또한 큰 문제더군요. 건축단체가 이런 부분도 포함 발주방식, 용역비 현실화에 좀 더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 듯합니다.

● 박 : 오늘 참 재미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좋은 관계 잘 유지하시고, 또 좋은 건물 부탁드립니다.

● 유 : 귀중한 시간 감사드리고, 또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으로 또 봅기 바랍니다. ■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박연식

건축사무소 장원

1950년 7월 서울 생

총학대학교 건축학과 졸업(1973년)

## 건축과 출신 과외선생의 영향으로 건축과로 진학하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건축과에 가는 것이 특이한 일에 속했습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가정대학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이화여고에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이화여대 가정대학에 가는 것이 지정된 코스처럼 여겨지는 때였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한다면 영문과로 많이들 진학했지요. 아무튼 제가 건축과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담임선생이 깜짝 놀라시고, 건축과 진학에 대한 자료가 없었으니 당황하셨지요.

고등학교 일학년 때 무예건축에 근무하던 주길중 선생에게 과외지도를 받을 때인데, 건축을 좋게 말하시곤 했습니다. 책을 보여주는데, 그리스건축에 대한 기록도 보여주며 설명해주었지요. 건축과로 진학하면 좋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일학년 때 건축과로 진학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영문과로 진학하라고 하셨지요. 고등학교 삼학년 때는 연세대학교 건축과로 구경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건축과 학생들이 둘러앉아 토론하는 모습과 건축사진 등이 불어있고 그랬지요.

## 여고 졸업동창들이 건축사인 저를 부려워합니다

요즘 고교 동창들 만나면 저를 부려워합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당시 영문과 진학은 학교성적이 둑클래스에 들어야하는데, 현재 그렇게 성적 좋았던 동창들이 전업주부로 집에서 할 일이 없이 시간을 보내며 저를 부려워하더라고요. 당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시야가 좁았던 것이지요.

## 아버지께서 과제 재출 전에 늘 풀평을 해주셨다

그렇게 가고자 했던 건축과에 입학해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여학생은 둘밖에 없어 매일 둘이 불어 다녔지요. 과제를 하면서 하도 빙을 많이 쌌기 때문에 차리리 이를 줄 알았으면 의과대학을 가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하곤 했지요. 너무 혹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다섯 명이나 돼서 아버지께서 공과대학을 간 딸이 무엇을 하나 늘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제방을 기웃거리며 같이 이야기하고, 학교과제를 넣 때 내기 전에 아버지가 항상 느낀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위 크리틱을 해주신 셈이지요. 어머니는 무관심하셨지요. 아버지께서는 혹시 이 딸이 장래 아들노릇하나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 첫 직장은 한정건축, 두 번째는 송민구건축에서

1973년 졸업 후 한정건축(소장 한창진)에 입사했습니다. 거기서 남편인 동정근 교수를 만났지요. 삼년 있다가 1976년에 송민구건축으로 옮겼습니다. 송민구건축에서는 규모가 큰 건축설계를 많이 하

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남산 중턱에 있는 미라마호텔(현재 하이아트호텔) 실시설계, 서울대학교 건축과동, 여의도에 있는 TBS방송국 등을 설계했습니다.

## 자녀를 갖게 되어 사무소를 개업하다

그러다가 아이를 갖게 되어 고심 끝에 1980년도에 사무소를 그만두고 마침 건축사면허 취득한 후 사무소를 개업하였습니다.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개업할 당시에 이미 자녀가 둘이 되었기 때문에 남의 사무소 다니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자유롭겠다 싶어 개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동정근 교수는 효성건설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같이 합류한 것은 1990년도입니다. 1992년도에 인하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었지요.

## 대학교 삼학년 때 주택공사 공모전에서 수상하다

한정건축에 있을 때는 주로 단독주택설계나 주택단지 계획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어지지 않고 불발된 계획안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어진 것은 작은 주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정건축에 들어가 보니 직전에 류준수 선생이 사무소를 그만두고 나가셨더군요. 류준수 선생이 주택 스케치 해놓은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교 삼학년 때 주택공사 공모전 3회에 응모하여 입상했는데, 당시에 입상자명단에 조성룡, 민현식 선생들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은 김수근 선생이었습니다.

## 개업 후에 관공서 및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을 많이 하다

개업 후에 한 일들은 주로 관공서인데, 광주전화국, 오산우체국, 면목동주택단지(우성건설이 발주로 준공되었음), 갈월동 연립주택단지, 구기동주택, 염리동주택, 1993년도에 분당주택단지에 설계한 분당 주택 및 분당연립주택 등이 있었으며, 근린생활시설로는 서원건설이 발주한 압구정서원빌딩, 분당서원빌딩, 가락동서원빌딩 등을 설계 했습니다. 최근에는 송파 어린이집, 노량진 사육신전시관,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편이 교수되기 전에는 술상무 노릇을 하다

들어오는 일들은 주로 입소문으로 들어오는 일들이지요. 동정근 교수가 교수되기 전에는 저희 사무소 술 상무(?) 노릇을 했습니다. 저 대신 건축주를 만나주었습니다.

## 일들을 성실하게 해주니 자연스럽게 일들이 들어오다

들어오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주면 소문이 나서 “이런 여자 건축사가 있는데, 그 사람 알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들어오는 겁니

요즘 건축경기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건축사들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과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저는 정말 싫습니다.  
각자의 내면의 삶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이지요.

다. 일이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맞더라고요.

소장 포함 4명인데 일인당 1억은 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 규모는 직원 세 명, 소장 한 명인데 일 년에 일인당 일억은 해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스케치를 많이 하여 설득하면 수정이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획안이 나오면 스케치를 여러 장 하는데 그걸로 건축주를 이해시킵니다. 그런식으로 추진하면 수정이 별로 없게 되더라고요. 공사장에도 그 스케치들을 옮고 나갑니다. 감독관이나 현장소장이나 스케치를 보면 이해가 빠르고 또 그 자리에서 스케치해서 이해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면만 보여주어서는 이해시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공간을 투시도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손으로 그린 스케치를 가지고 이해시키는 것이지요. 그에 따라 도면이 나오면 별로 이의가 없지요. 수정이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건축의 일부라고 생각하기에 다해준다

저는 인테리어를 건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건축주에게 인테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인테리어 설계비를 별도로 더 받지는 않습니다.

여자건축사의 애로점은 정보에 약하다는 것이다

여자건축사가 대표인 사무소의 애로점을 굳이 말하자면 정보에 약하다는 것이지요. 남자들은 술자리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지요. 바로 내가 말하는 술 정보, 술 한 잔하면서 할 이야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외에 하나 더 있지요. 집안 살림, 바깥살림 행거야지요.

남편의 크리틱이 많은 도움이 된다

남편이 같은 건축가라 도움이 되는 것은, 계획안 다 해놓고 크리틱 해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줍니다. 구조계획이 잘 안 풀릴 때리든지 이럴 때 도움을 주지요.

동교수가 학교 은퇴하면 그 이후에는 같이 하게 되겠지요.

서로간의 건축에 대한 관점은 이데올로기보다 더 다르다

그런데 동일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에 대해서만은 너무 다릅니다. 어찌 보면 이데올로기 보다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이삼년 동안 같이 할 당시에 프로젝트를 서로 나누어서 진행하곤 했습니다. 서로 코멘트는 해줄 수 있지만 취향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은 서로가 피터지게 다룰 정도로 토론하다가 불발된 프로젝트도 있어요. 서로간의 건축철학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화가 길버트와 조지라는 동성애자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들인데 둘이서 작품을 같이 그립니다. 두장을 따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장을 둘이서 그린다는 것이지요. 건축계에서는 헤르초그 드류론 혹은 로버트 벤추리와 스콧 같은 부부건축가도 있지만, 벤추리 같은 경우는 스콧이 이론을 담당하고 벤추리는 설계작업을 담당하는 식으로 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방법론 두 편을 발표하다

저도 건축설계에 이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설계방법론 두 편을 썼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제목으로 「건축사」지에 원고지 100매 정도의 분량으로 게재했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에는 '씬 앤 시퀀스'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방법론을 써서 저의 건축설계의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기간이 5년 단위로 그 당시 발표되었던 작업들에 담겨있던 생각들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씬 앤 시퀀스'라는 제목의 방법론은 건축세계라는 잡지에 6회 정도 분량으로 발표했습니다.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제목의 방법론은 건축은 어차피 입체를 만드는 것인데, 도면은 이차원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입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입체구성 자체를 이차원에서 출발하자는 거지요. 주로 해체의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건축법규, 컨텍스트 등을 분석하여 재조립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무소를 물려준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다

사무소를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건축경기가 안 좋다고 건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후학들을 위해서는 절대금물이다

요즘 건축경기 안 좋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건축설계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건축사들이 정말 돈을 잘 벌어서 과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저는 정말 싫습니다. 각자의 내면의 삶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이지요.

전시회 가는 것을 즐기고, 그것들이 나의 건축에 자양분이 된다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하는 것과 저희들은 건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에 접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하는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딜레탕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소화할 수 있고 그렇지요.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봐도 저의 건축에 영양제가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즐기는 거지요. 즐기는 그 자체가 건축작업의

역시 사람은 만나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면 그들의 퍼팅월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사무소는 방배동에 위치한 작은 사무소이다. 조용한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조용한 사무실에서 하나하나 보석을 세공 하듯이 건축을 만들어 내는 그의 성실힘에서, 어태껏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는 저력이 나왔다는 점에서 아주 놀랄만하다.

대부분의 사무소들이 약간은 포장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정말 다소곳하고,

꾸밈없고, 진솔한 그의 말에서 건축주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밀기고 설득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두번두번 걸어온 그의 건축에 대한 족족이 당분간도 계속될 것이라는 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03년에 한국여성건축가협회장을 지낸 사실을 강박했다.

최동규 편찬위원장

연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주 행복한 일이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건축설계업계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축인들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모교인 흥익대학교에서 12년간을 가르치다

저도 모교인 흥익대학교에서 12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실제인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후배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고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 나는 백남준 선생의 익스트림 벨류를 좋아한다

살아오면서 인생의 신조라고 생각하는 말은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저는 백남준 선생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의 어록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익스트림 벨류를 좋아합니다. 그런 생각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이겠지요. 예를 들면 젠(ZEN)같은 경우도 모더니즘의 극단적인 가치가 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주변상황과는 확 떨어지는 무엇인가가 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작업 바탕에 깔려있는 태도나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지요.

#### 우리나라 건축사들은 너무 일찍 손을 놓는다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온 나만의 노하우를 접악할 수 있는 원기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만 그 이상의 비전은 특별히 없구요. 언제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만나는 선배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건축사들은 너무 일찍 손을 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둘더라고요. 대한건축사협회가 지정한 70세? 그것도 폐업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언제부턴가 그 금액이 일억도 안 된다고 해서 실망했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성북동에 주택을 착공하려고 준비 중이고, 통의동 한옥 밀집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 중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집은 막 준공이 됐고요, 솔바람어린이 집은 설계완료 후 착공 준비 중입니다.

제가 건축하는 것이 2000년도에 '신 앤 시퀀스(Scene & sequence)'라는 사고를 가지고 해왔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다른 건축하는 이들과 생각하는 것이 비슷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 혼자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 다음단계로 이륙할 건축철학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발표되는 작품들이 서로 너무 비슷한 것과 마찬 가지의 경우에요. 아마 모두 그것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

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죠. 나만의 어떤 것이 될 것을 찾는 단계라는 것이지요. 하나의 유행과 경향과는 다른 나, 다만 다음 단계로 이륙할 사고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점이죠. 새로운 아이템이나 건축철학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적당한 프로젝트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여하튼간에 2000년도부터 생각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건축계는 성황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것이 2010년을 기점으로 예전 같은 발전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형프로젝트들이 발주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둘이 나오면서 재래식 사고와 충돌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오히려 발전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새롭다는 것이 각자에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둘에 미취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인간 보편적인 불변의 피안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세상의 변화가 눈부시다

부부가 같은 건축설계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크리틱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한마디만 해줘도 다 알아 듣는다는 거지요.

혹간 여자건축사 중에 남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을 보면 저보다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같은 정보 속에서 작업을 해나가지만 남편이 다른 직업을 둔 여자건축사는 혼자만의 정보를 가지고 직업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요즘은 시나리오도 혼자 쓰지 않고 여럿이 합동으로 쓴다고도 합니다. 어하든 세상의 변화가 눈부십니다.

#### 타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권하고 싶다

후배건축사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여러 타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작은 사무소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겠지만 사무소규모의 이원화요. 중간 크기의 사무소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요. 최근 조달청의 설계공모 운영방법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발표는 매우 적절해보입니다. 소규모, 신진 건축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요. 서울시의 공모건축가제도도 마찬가지구요. 국내외적으로 건축계의 모든 영향력은 직원들을 기계처럼 조직화해서 대표 건축사가 되어 마구 찍어내는 그런 큰 사무소보다 작더라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작은 사무소들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 설계경기 | Competition

### 국립 현대미술관 (가칭) 서울관 SHAPELESS MUSEUM

당선작 / 민현준(건축사사무소 엠피아트)  
+ (주)사이플랜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65, 165-3, 165-4, 165-10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 미관지구,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군기무사령부 특별계획구역
주요용도	전시, 문화시설
대지면적	27,354.00m <sup>2</sup>
건축면적	11,780.00m <sup>2</sup>
면적률	38,605.79m <sup>2</sup>
건폐율	43.00%
용적률	80.46%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발주처	국립 현대미술관
설계담당	엠피아트건축_배규환, 이우진, 김한얼, 박종민, 박찬수, 이주형, 정상학, 배민정, 윤지애 사이플랜건축_조주환, 윤정현, 곽수희, 김동찬, 손석계, 박윤식 PLA_박현철, 임평수

우리가 제안하는 미술관은 서울의 역사적 장소에 새로운 아이콘을 만드는 것 보다는 형태적으로는 단순하여 도시의 배경역할을 하고 공간적으로는 기존 아이콘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술관의 형상 자체가 화려하지 않더라도 주변을 잘 활용하여 대단히 도덕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을 제안하고자 했다.

인 이 마당들은 주변의 길들과 연결되어 도시적 활력을 주는 동시에 전통성과 현대성이 만나는 매개 공간으로 제안된다.

#### 군도형 미술관

외부 마당 및 길과 연결된 전시공간은 군도형 즉, 네트워크형으로 배열되어 탈중심화된 미술관이 탄생한다. 이는 대지 주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내외부가 통합되는 새로운 미래형 미술관이 된다. 군도형 미술관은 삼청동길과 구기무사의 진입이 상장적 중심이다. 이곳에서의 일련의 시퀀스를 가지는 전시관들의 연결은 서울관의 대표적인 전시관이며 작품위주의 전통적 중앙집중적 미술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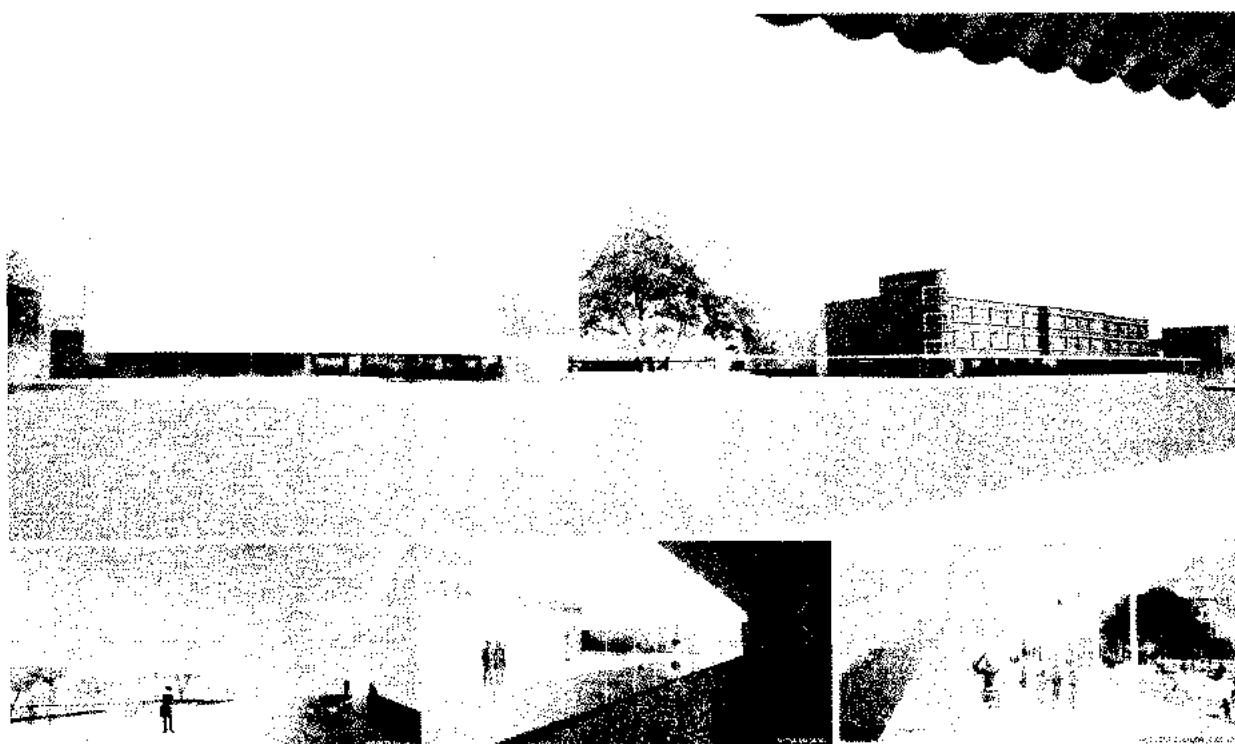
북촌길과 종친부길 주변진입은 부대시설 및 실험적 전시시설을 배치한다. 이 시설들은 하나로 연결된 지하공간의 잠망경처럼 마당위로 올라오며 다른 문화 영역과 미술관을 융합시킨다. 이는 미술관 중심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도시문화와 빙웅하고 개별적으로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관은 다른 문화와의 화학적 물리적 결합을 시도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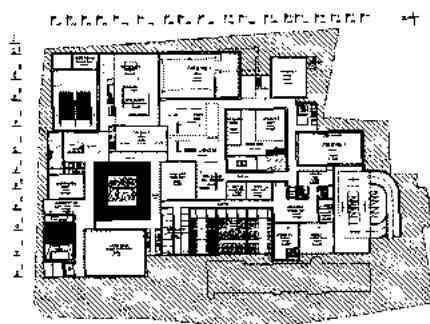
#### 길과 마당(과거와 현재)

역사적으로 삼청동 일대는 전통적인 길들이 잘 보존된 지역이었다. 현재에도 북촌과 삼청동, 경복궁 등 옛 도시 골격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과거의 종친부 모습에서도 길과 마당의 연속성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술관 부지는 군부대 등 특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변 길들과 단절 되고 있으며, 도시적 맥락과는 관련성이 없는 폐쇄적 공간으로 주변을 황폐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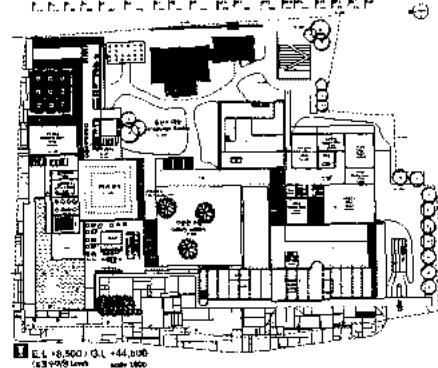
#### 회복(제안)

길과 마당의 재생은 이러한 도시적 단절 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써, 미술관의 공간구성에 중요한 개념이다. 전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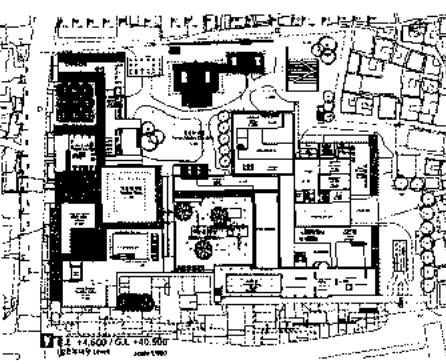


EL. 7,000 / GL.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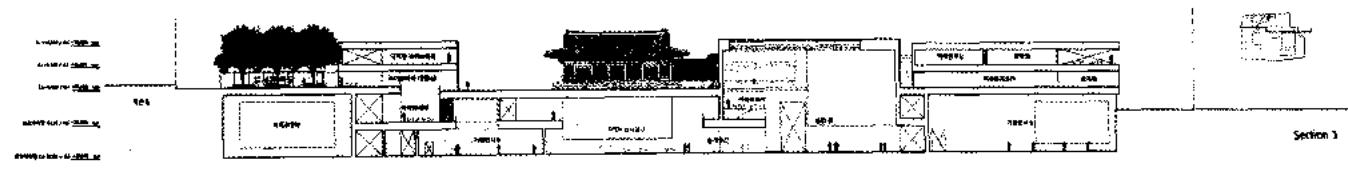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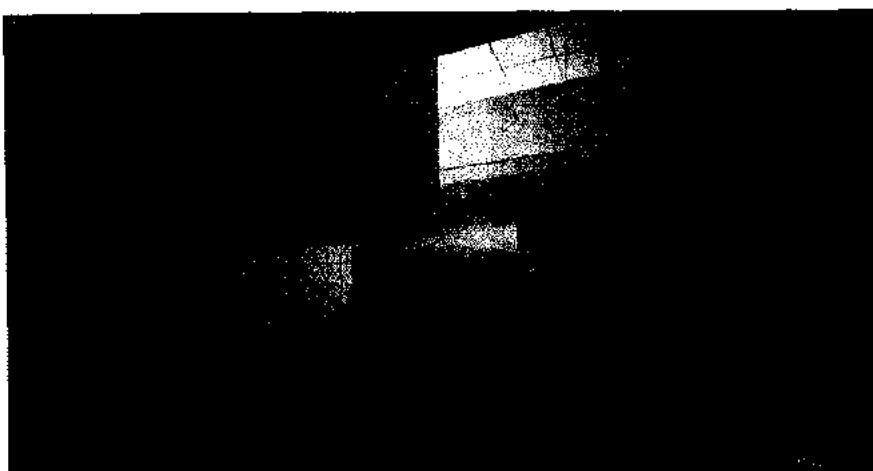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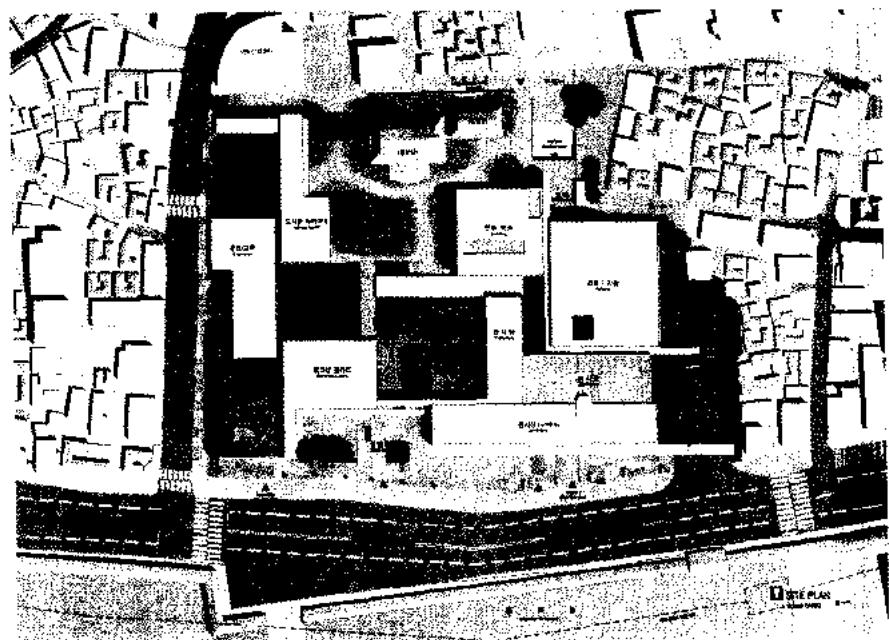
EL. 10,500 / GL. +44,000

+33.9000 Level



EL. 10,500 / GL. +40,500

+33.9000 Level



## 설계경기 | Competition

### 고리1호기 모의제어반 건물

Gori#1 Simulator Building

당선작 / 손영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엔지

대지위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산 1456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전원개발실시계획고시구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81,432m <sup>2</sup>
건축면적	1,222.22m <sup>2</sup>
연면적	1,371.37m <sup>2</sup>
건폐율	0.67%
용적률	0.76%
규모	지상 2층
발주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설계담당	박수강, 이동경, 문천식, 백현미, 구나경

#### 계획개념

계획대자는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조성되어진 원자력 교육원 부지 내에 위치하며, 고리 1호기 모의제어반이라는 특수한 기능의 교육원 역할을 담당 할 목적으로 설계되어졌다. 모의제어반의 거대한 Mass는 계획대지 내의 배치에 있어 공간적 제약을 가져다줄과 동시에 적절한 위치 선정에 있어 다양한 배치 형식을 제한하였다. 또한 기 설계된 고리 3, 4호기 모의제어반 건물과의 연계성을 두고 계획하였으며 교육동선과 관람동선 등의 접근 방식에 부합되는 외부공간 배치와 진입방식 등에서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 배치계획

- 상징성(Nuclear Corn)\_원자력 교육원이라는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대지의 중심부에 상징적 원형(Corn) 영역설정
- 기능성(Massive Space)\_거대한

(20m × 24m) 공간이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대지의 넓은 공간에 Mass배치

- 축의 순응(Axis Adapt)\_교육원 및 인접건물의 축에 순응하고 접근성을 고려한 기능적 Mass배치
- 연속성(Skin Flow)\_인접건물의 Skin과 연속하여 입면의 흐름을 배려한 Mass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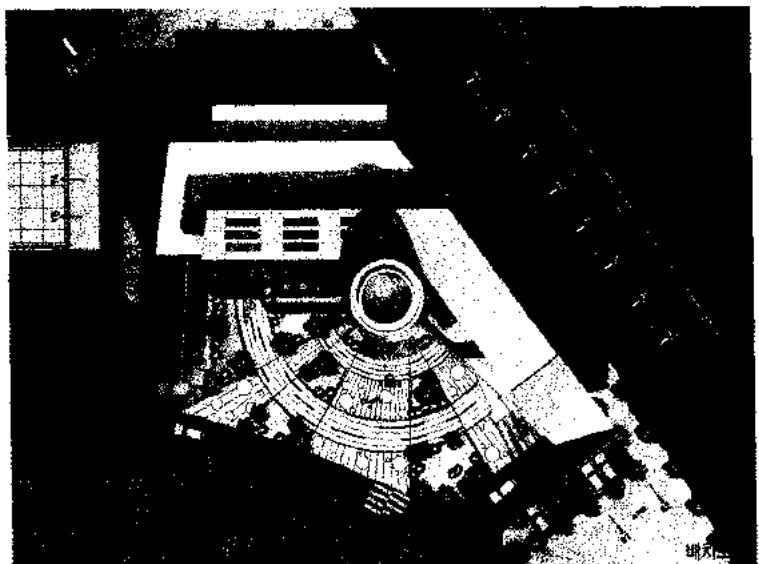
#### 평면계획

- 모의제어반, 교육시설을 영역별로 그룹핑하여 분리함으로써 기능별로 공간을 집약
- 1층은 모의제어반실과 기전실을 배치하여 그 기능별로 동선을 분리하여 편의성을 높임
- 2층은 교육시설과 휴게시설을 배치하였으며, 지상에서 2층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생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임
- 옥상은 휴게정원을 계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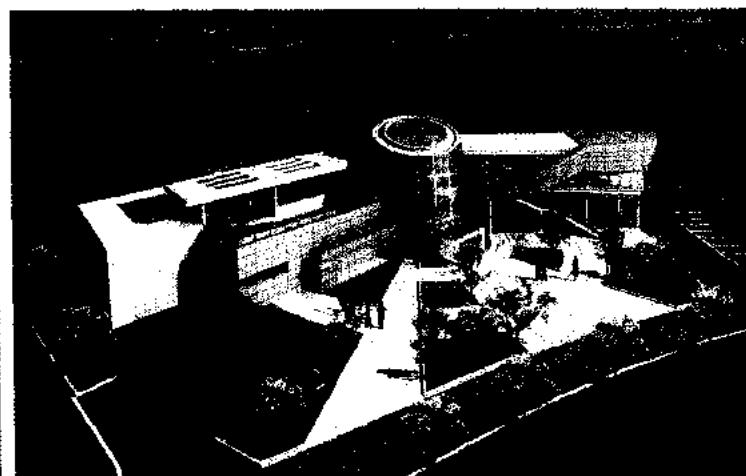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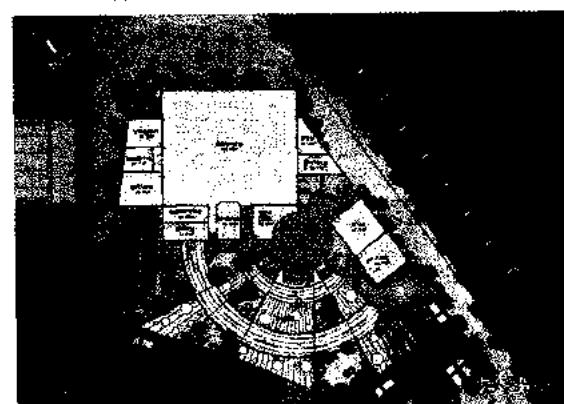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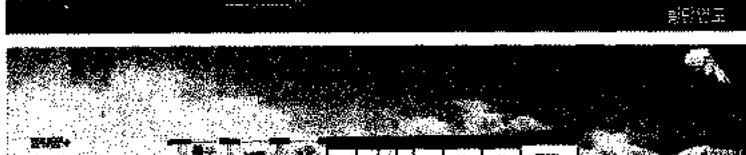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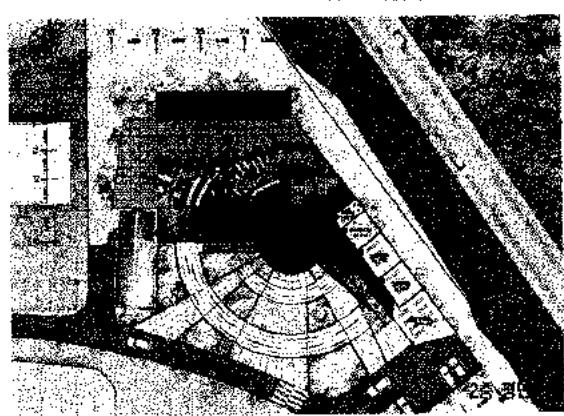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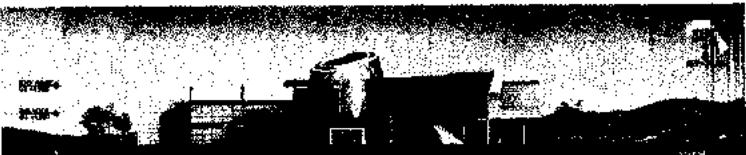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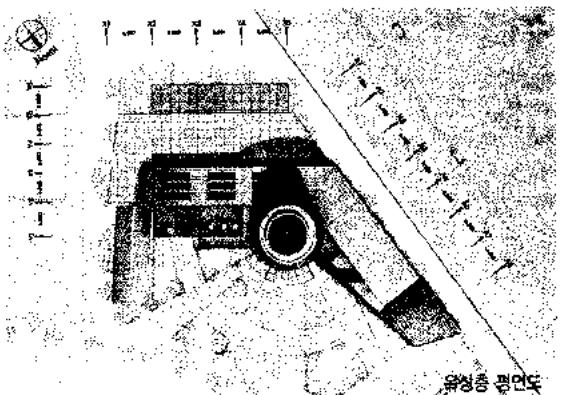
### 임면계획

- 현대적 이미지를 독자적인 외관의 구성으로 조형성 및 상징성을 부여
- 투명한 재료의 사용으로 개방적인 이미지와 열린공간의 표현
- 도로와 동선의 흐름을 유입하여 자연과 이어주는 흐름의 이미지화
- 충별에 다른 성격의 입면요소를 적용하여 기능적 프로그램을 외부로 표출
- 마감자재는 미관과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



### 단면계획

- 닫힌 공간과 열린공간의 다양함을 통해 다른 충가에 연속성과 상호작용, 자연체광과 환기를 적극적으로 도입 ■



## 고리1호기 모의제어반 건물

Gori#1 Simulator Building

우수작 / 김광호 한국원자력기술원 · 장성욱 한국원자력기술원  
(주)삼인디엔씨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456 일원
지역구분	자연녹지지역, 전원개발사업구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81,432m <sup>2</sup> (신축부지 3,300m <sup>2</sup> )
건축면적	1,184.21m <sup>2</sup>
연 면 적	1,394.92m <sup>2</sup>
건 폐 율	35.89%
용 력률	39.20%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설계담당	장성욱, 윤영수, 한충희, 정지은, 안재관, 박경용

### Design Concept – 설계개념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걸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및 부대시설이 밀집해 있는 전원관리구역 내의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하여 금번대지는 원자력 교육원 부지에 고리1호기 원자력 발전소의 모의제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였다.

본관 연수동을 중심으로 한 외곽 원형순환 도로로 인하여 계획부지의 전면의 선형이 형성되었고, 계획부지 남서쪽의 기존 녹지 대와 서쪽의 선발주되어진 신고리 3, 4호기 모의 제어반이 위치하여 대지의 형태가 형성되었으며, 신고리 3, 4호기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청정에너지 기업이념과 미래의 비전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금번 설계안에서 주안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의 회사 이념과 비전인 깨끗한 청정에너지 원자력발전의 이

미지를 건축물에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계획안의 건물은 크게 두 개의 매스로 이루어 지는데, 교육장과 홀을 중심으로 원자로 안에 친환경 에너지를 품고 있는 기본 형태를 상징화한 매스와, 모의 제어반 시스템이 주요실로 배치된 울주군의 군조인 바돌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날개를 기본 모티브로하여 세계로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한수원의 비전을 개념화한 매스를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했다.

### Site Condition – 대지현황 및 입지분석

좌측의 3, 4호기 모의제어반과의 옥외 진입 공간과 사이트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본관 연수동에서의 접근동선이 건축물의 정면성과 진입공간을 결정하게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트 남측으로는 동해가 자리 잡고 있어 열린조망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대지와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배치계획

3, 4호기 모의제어반 부지의 진입광장과 연계한 진입공간계획으로 확장된 옥외공간 조성과 주차장은 차량동선의 연계를 고려하여 부지 좌측에 배치하였으며 동해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남측에는 교육원들의 독립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교육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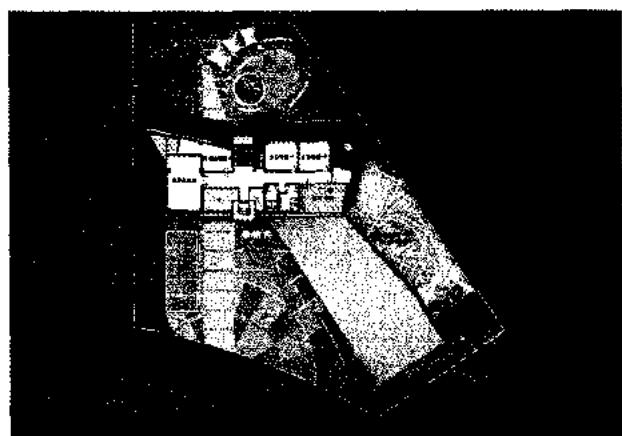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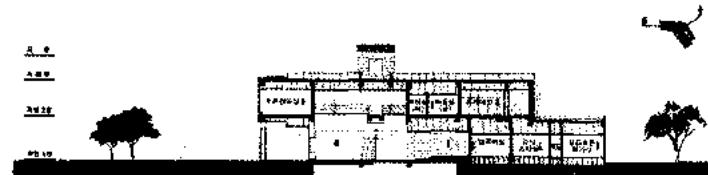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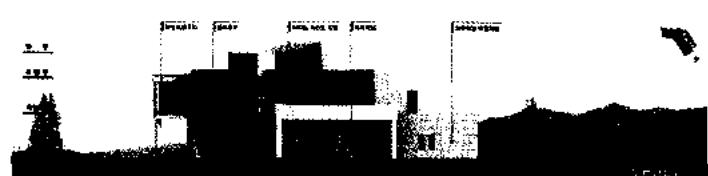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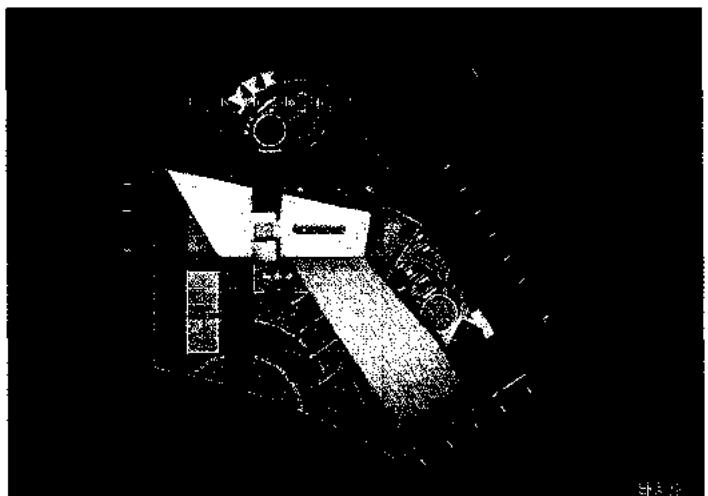
### 프로그램 및 평면계획

시뮬레이션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위하여 모의제어반과 부대 시설을 조닝하였으며 방문관람객을 고려하여 짧은 동선을 확보하였고, 강사진의 동선과 훈련자의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에는 강의실을 배치하였고 동해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휴게라운지와 옥상조경으로 주변자연환경을 건축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 임면계획

한수원의 미래지향적 이미지와 옮주군의 지역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에너지를 안전하게 담고 있는 원자로를 표현한 매스와 세계로 향하는 날개짓을 상징화한 매스에 세상을 밝히는 빛을 상징화한 타워계획으로 청정에너지기업의 이미지를 담고자 하였다. ■



## 고리1호기 모의제어반 건물

Gori#1 Simulator Building

가 작 / 윤종식

(주)건축사사무소 도시이십일)

대지위치	울산시 울주군 신안리 원자력교육원 부지 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전원개발실시계획고시구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3,300.00m <sup>2</sup>
건축면적	1,143.13m <sup>2</sup>
연 면 적	1,351.41m <sup>2</sup>
건 폐 율	36.64%
용적률	40.95%
규 모	지상 2층
설계담당	이명호, 손세윤, 안창석, 김민지, 문정은, 이수정

### 배치계획

기존 마스터플랜을 완성하는 영역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배치를 구현하고, 자연과 함께 대지를 위요하는 배치구성이 되도록 계획했다. 그리고 #3, 4 모의 제어반이 가지는 흐름을 연결하여 마스터플랜이 가지는 대지축의 소통을 이어주었다.

또한 정적·동적인 매스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상징성을 부여했고, 주변자연환경 포용하고 기존 마스터플랜으로의 확장성을 가진 성장하는 외부 공간을 계획하였다.

### 평면계획

열린 로비를 통하여 자연의 관류를 형성하고, 충분한 자연채광의 유입으로 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한 친환경 휴게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운전요원/교육요원 및 관람객을 위한 기능적 공간의 명확한 구분으로 체계적인 공간구성

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남향배치 및 편복도 계획을 통해 쾌적한 교육 환경형성을 하고자 하였다.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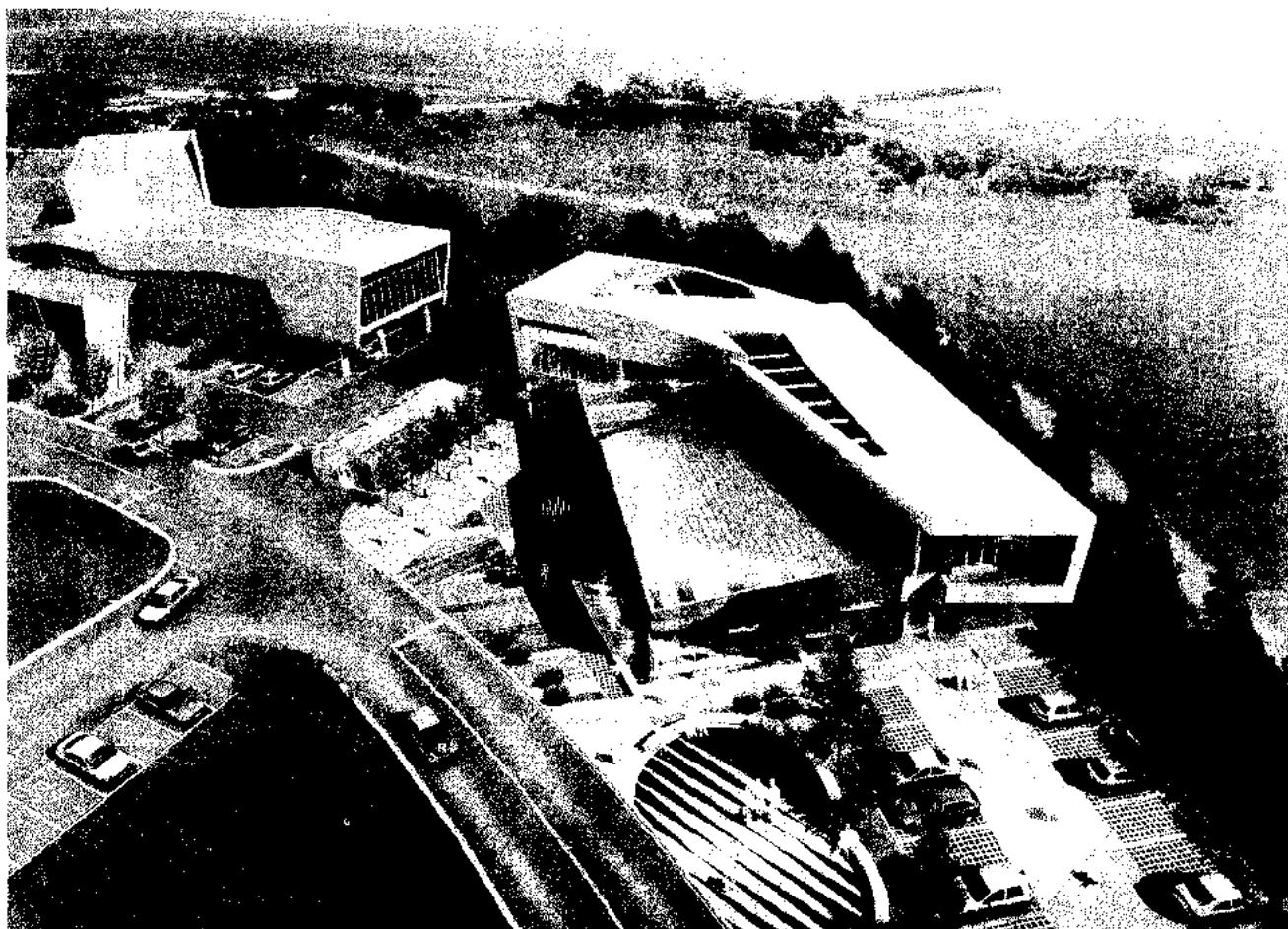
대지와 인접한 신고리 3,4호기 건물과의 형태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입면계획을 하였다.

다이나믹한 지붕 디자인으로 미래지향적인 한 수원의 이미지의 부각과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건물 스킨은 수직·수평적 요소의 적용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고, 불규칙한 패턴의 창은 속도감 있는 구성과 리듬감을 부여하였다.

### 단면계획

효율적인 층별조닝으로 동선을 단축시키고



영역성을 확보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증대하였다.

2개층으로 보이드 된 볼륨감 있는 공간인 로비는 한국의 전통적 차 경수법을 도입하였고, '진입마당-로비-풍경'을 잇는 이야기가 있는 공간 계획을 하였다. 그리고 테크를 통한 경관 열어주기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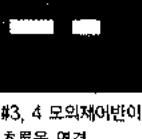


대지 \_ 기초 마스터플랜 내 영역 설정



비례/균형 \_ 마스터플랜을 고려한 안정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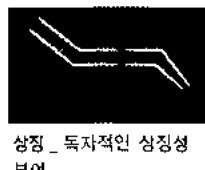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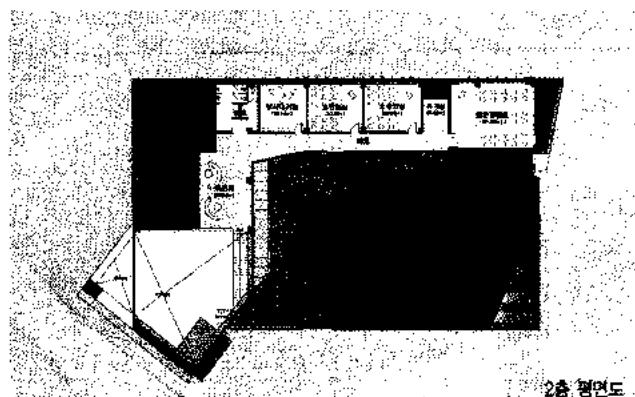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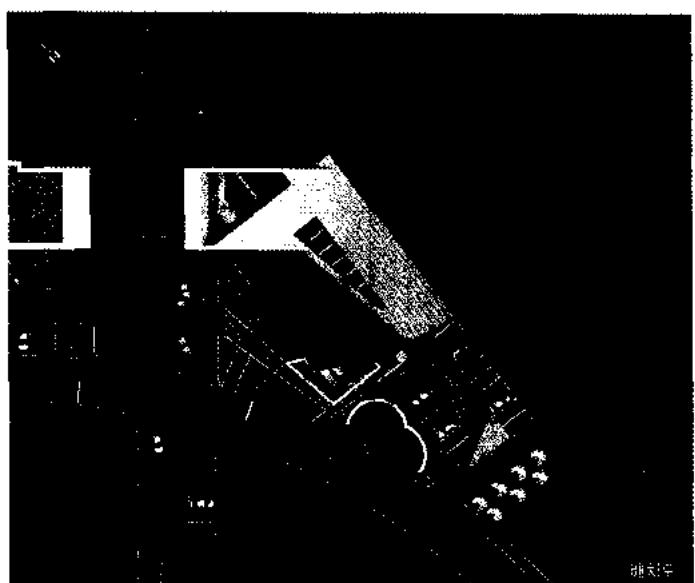
#3, 4 모의재어반인  
가지는 호흡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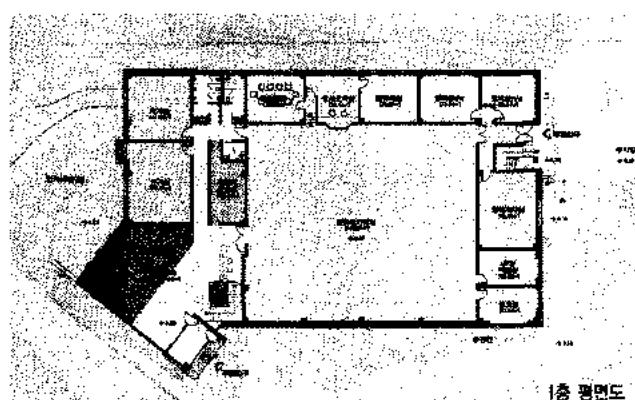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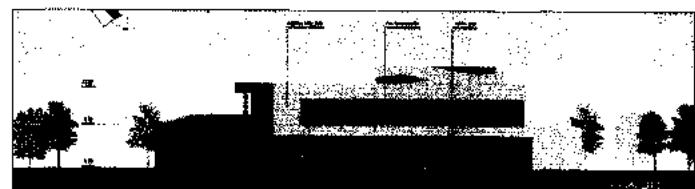
호흡/변화 \_ 변화를 통한  
방향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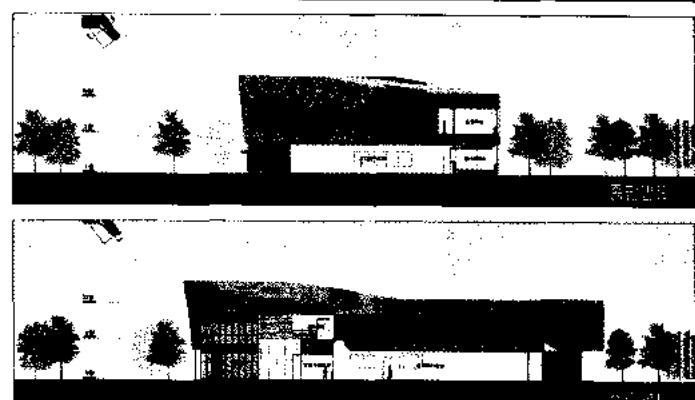
상징 \_ 독자적인 상징성  
부여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고리호기 모의제어반 건물

Gori#1 Simulator Building

### 가 작 / 최규철

(가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이동훈(이담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울산시 울주군 산업리 원자력교육원 부지 내
지역지구	전원개발실시계획고시구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81,432㎡ (신축부지: 약 3,300㎡)
건축면적	1,303.17㎡
연 면 적	1,370.26㎡
건 폐 율	39.49% (신축 해당 부지)
용적률	41.52% (신축 해당 부지)
규 모	지상 2층
설계담당	가원_강봉조, 이동준 이담_박수인, 이칠봉, 황수진, 자상민, 이상민

### 기본계획방향

고리호기 운전원의 조기 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 장소 만들기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고 교육원 전체를 향해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운전원들의 기능향상을 위한 교육공간 제공과 더불어 원자력교육원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역동적이며 상징적 아이콘을 제안한다.

### 배치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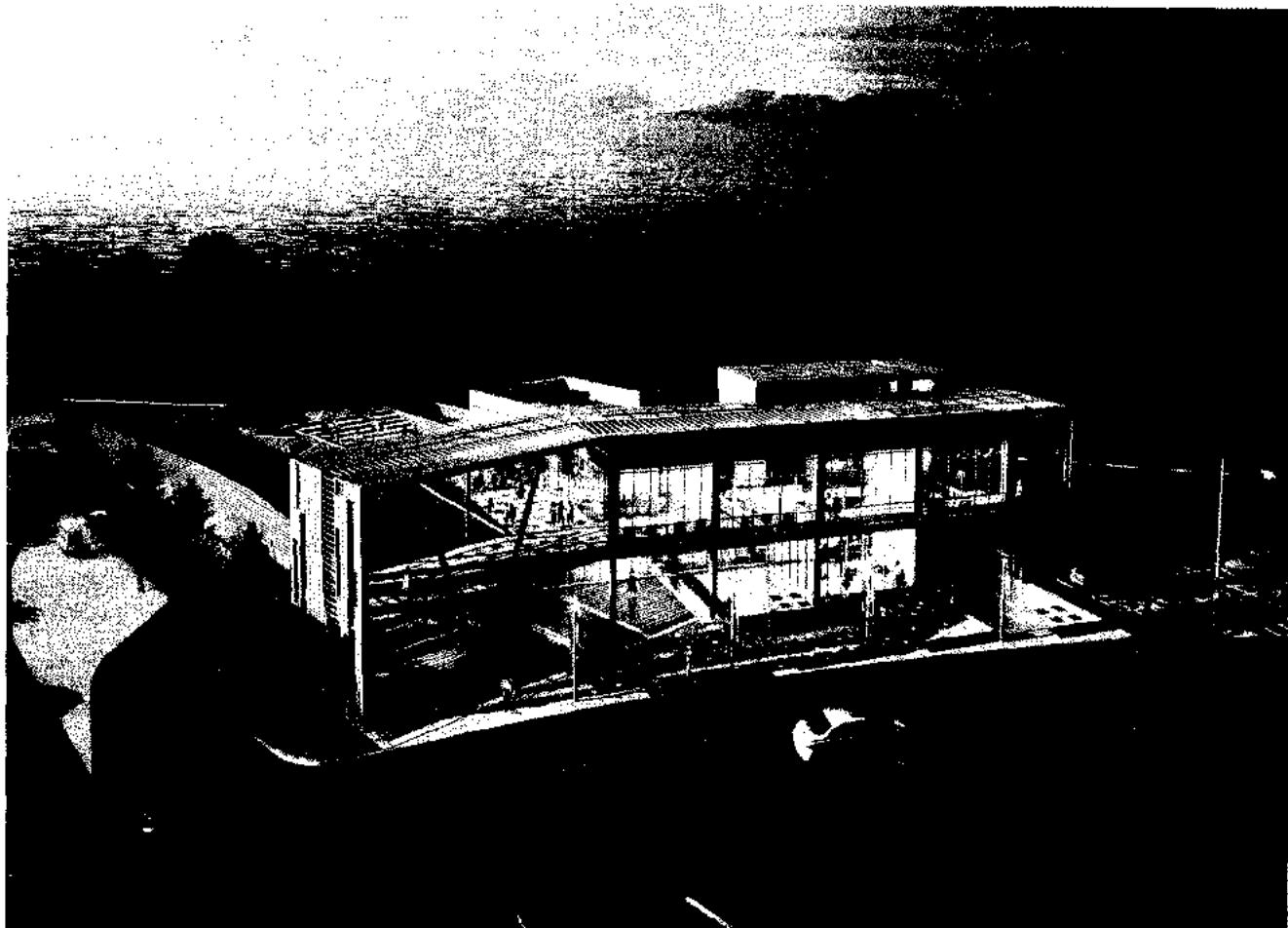
- 자연과 하나되는 교육원 만들기  
- 수직적 그린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외부 공간 도입으로 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간 창출  
소통하는 교육공간 만들기 \_ 주변 맥락을 고려한 열린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이벤트를 유발하는 내외부 프로그램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 동선계획

- 교육원 진입축을 중심으로 열려진 진입동선 계획
- 보차동선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보차영역의 명확한 분리
- 각 기능별 별도의 출입동선 확보로 동선의 혼선 최소화
- 다양한 외부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동선계획

### 평면계획

- 쾌적한 공간을 위한 친환경적 조닝 계획
- 자연채광 및 환기를 고려한 내부공간 계획
- 실내외 휴게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휴게공간 제공
- 교육과 연구에만 한정된 공간이 아닌 쉼터로의 역할이 가능한 열린 공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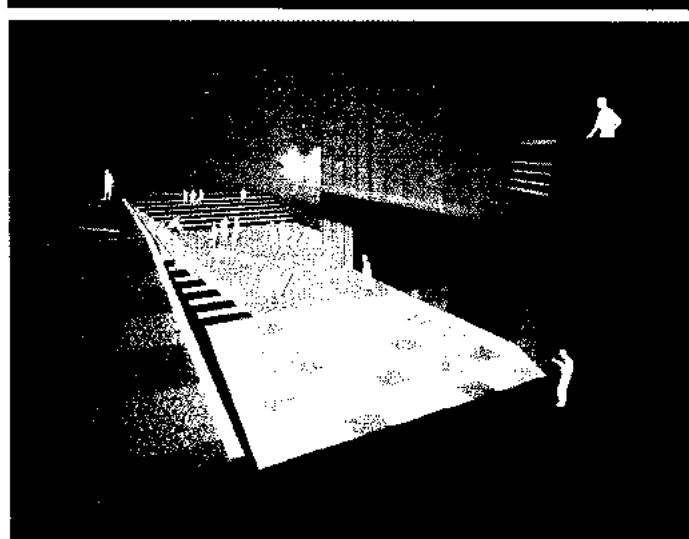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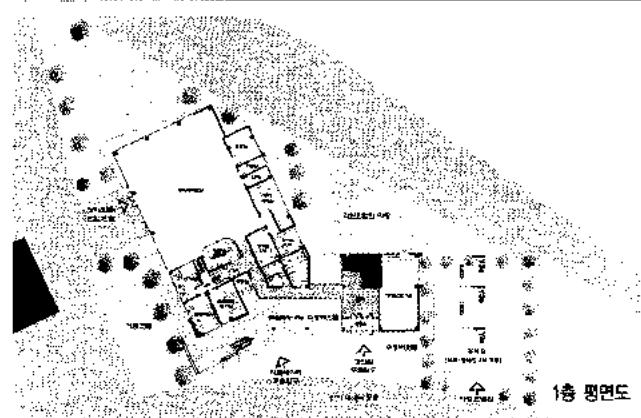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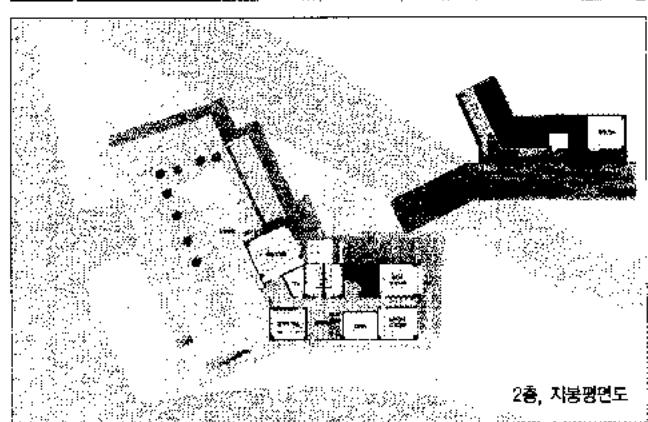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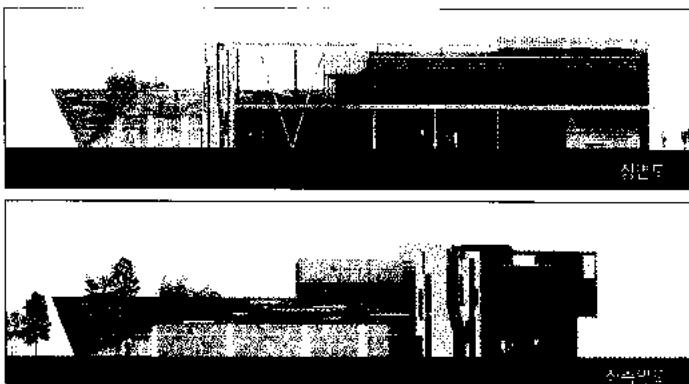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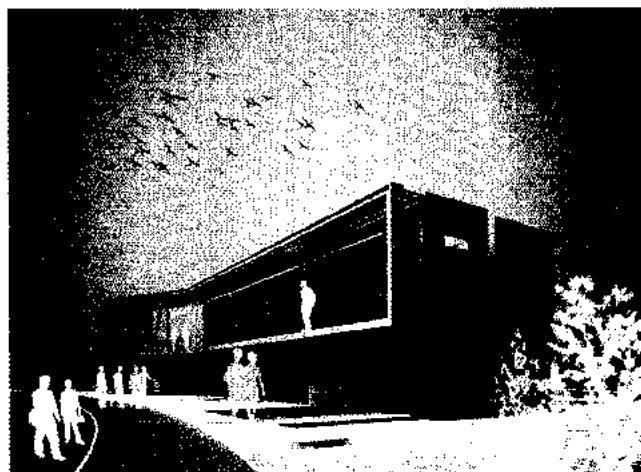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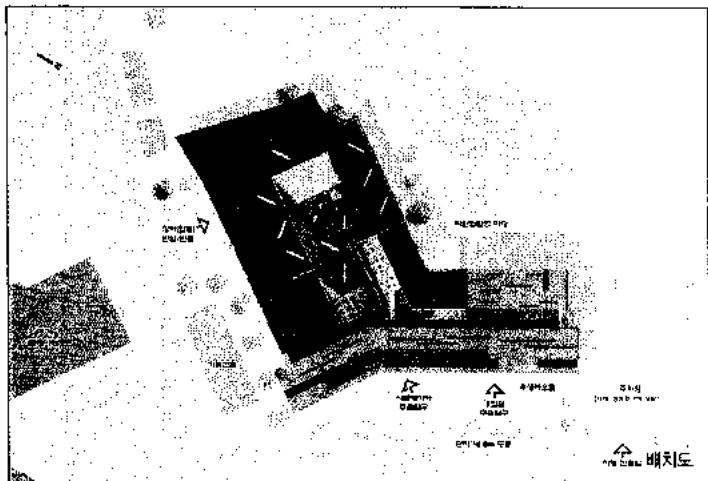


### 입면계획

- 건물 내부에 주변 자연환경을 투영시켜 담아냄으로서 인공적 인 구조물이 자연과 맞닿는 경계에서 합일되는 스킨계획
- 대지 주변 자연의 이미지 요소에서 추출하여 입면에 표현

### 단면계획

- 녹지의 연계 : 입체적 녹지공간 구성으로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그린 네트워크 구축
- 공간의 소통 : 공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사람과 사람간의 소통 유도
- 공간의 공유 : 단면의 높이차를 이용한 수직적 커뮤니티 공간 구축



## 설계경기 | Competition

### 성원고등학교 기숙형고 기숙사 Domitory of Sungwon High School

당선작 / 김남중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태철(동아대학교)

대지위치	전북 남원시 왕정동 267번지(기숙사 부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5층이하)
대지면적	교육 및 연구시설(기숙사)
건축면적	26,250m <sup>2</sup>
연 면 적	959.47m <sup>2</sup>
건 폐 율	2,887.31m <sup>2</sup>
용적률	3.66%
규 모	10.99%
설계 담당	지하 1층, 지상 4층 성원고등학교 정병권, 백성민, 박혜진, 박진영

기술형 고등학교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공교육이 지방에 평균적으로 보급 또는 지원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숙사의 특성인 생활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때 교육은 극대화 되겠지만 자칫 생활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정서적인 부분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핵심은 학생들의 거주성에 있다.

각 침실들에 대한 거주성의 고려, 특히 생활의 다양함을 이를 수 있는 완충적 유니트 플랜을 고려했다.  
또한 기존 학교시설과의 조화는 당연한 건축적 과제이다.

추의 방향을 재설정한다.

'밴드'는 평면상 폭을 활용 유니트 플랜의 완충적 공간을 부여할 수 있다.

#### Linkage of M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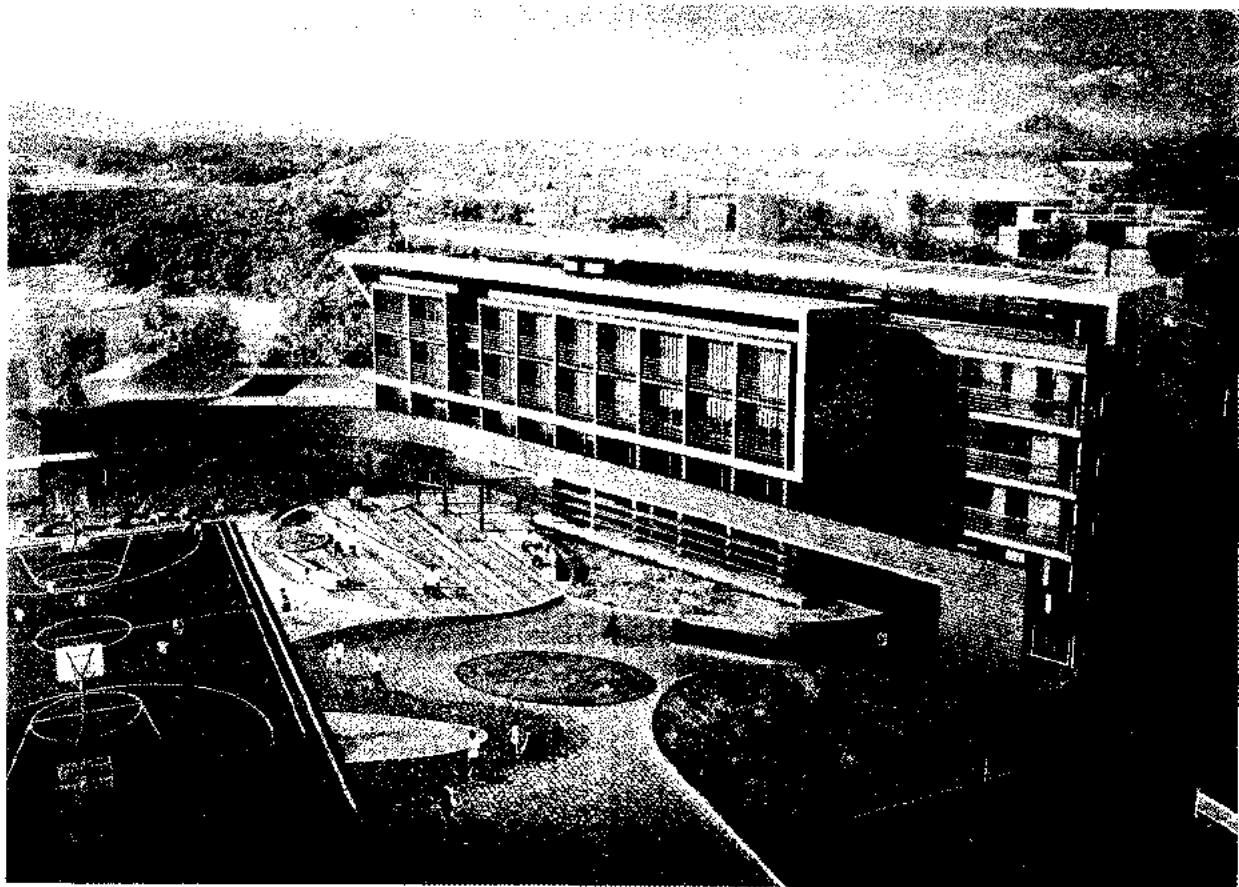
다양한 엣지 즉 기존의 건물과 운동장과 새로이 들어서는 건물간의 사이공간인 Sol마당을 중심으로 동선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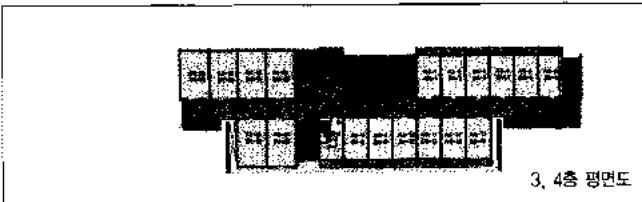
#### Tolerance

큰 곡선의 파사드는 학생들간의 다양한 행위에 따른 커뮤니티를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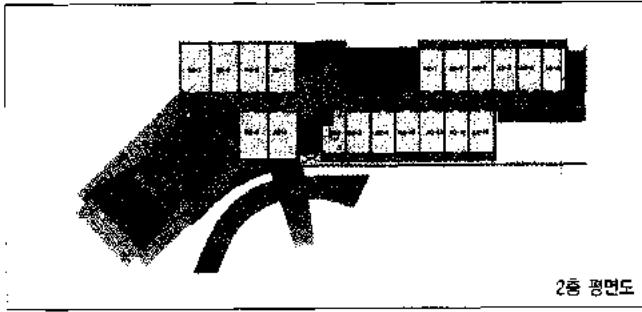
#### Eco Friend

전반적인 대지의 상황이 향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배치를 하기 어려워 패시브 건물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전면의 루버들은 기존의 본관이미지의 연장으로 서측의 태양광을 조절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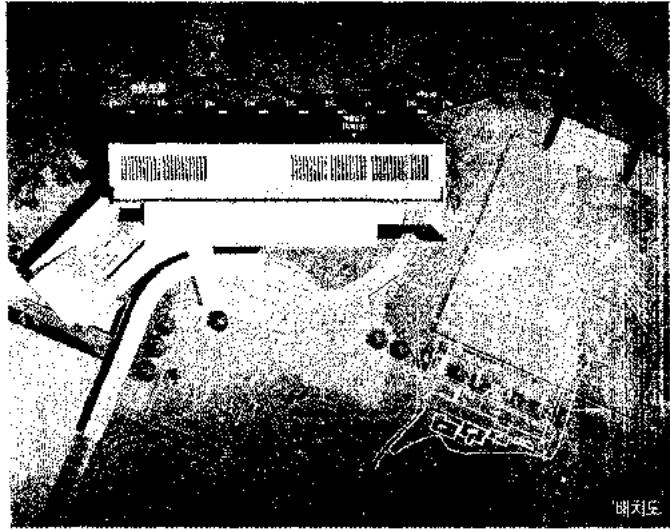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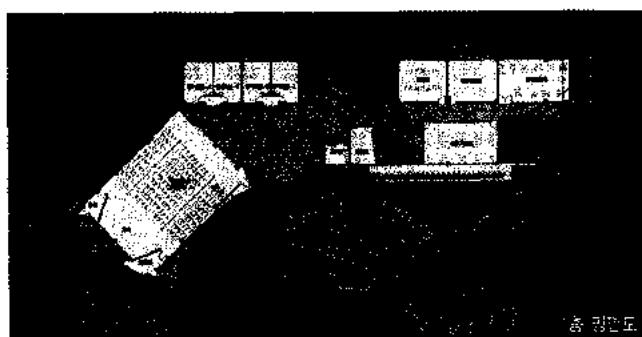
3,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주방

식당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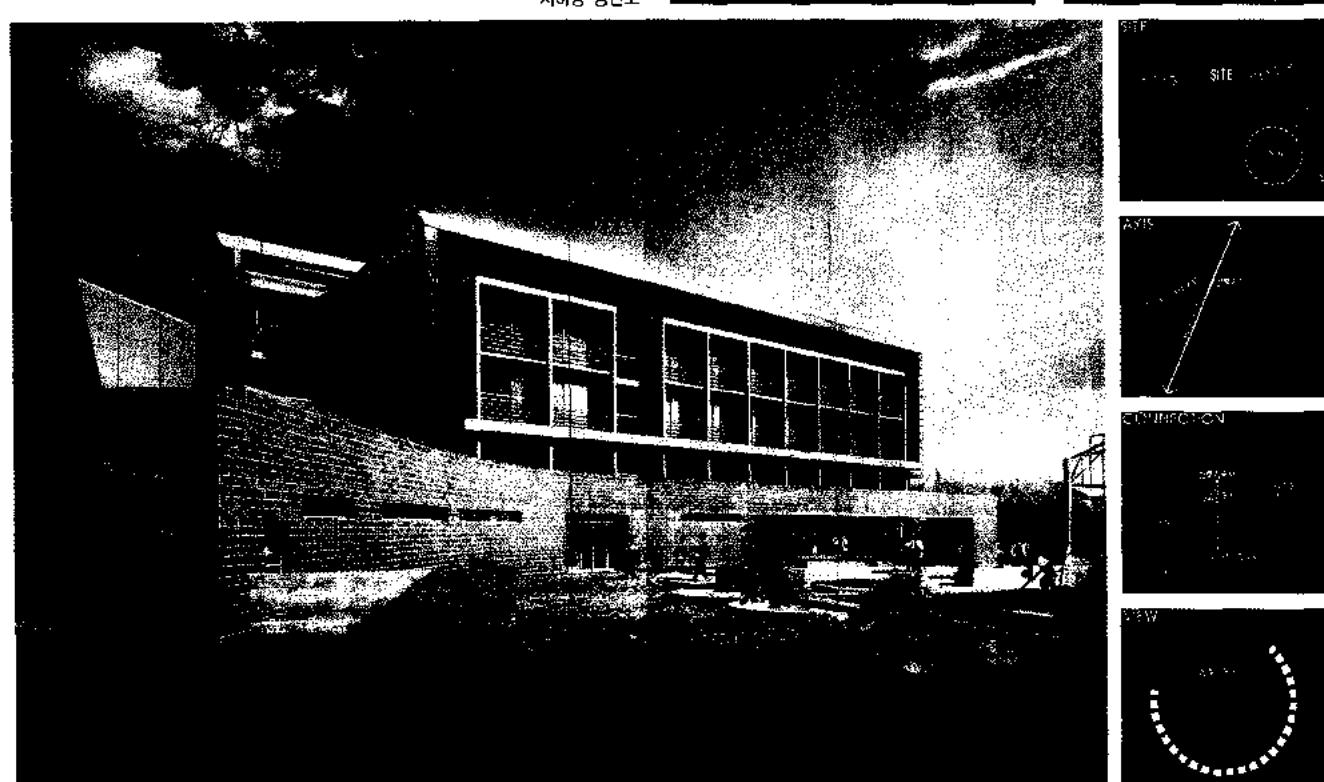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주방

식당



2층 평면도

## 성원고등학교 기숙형고 기숙사

Dormitory of Sungwon High School

우수작 / 노현희 교정

(아키엔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전북 남원시 왕정동 267번지 (기숙사 부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5층이하)

주요용도 교육 및 연구시설(기숙사)

대지면적 26,250.0m<sup>2</sup>

건축면적 761.7m<sup>2</sup>

연 면 적 2,881.4m<sup>2</sup>

건 폐 율 17.04%

용 적 률 36.01%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담당 이수용(전남대 바이오하우징연구사업단)

지역의 명문사학을 뛰어넘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성원고등학교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친숙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최적화된 학습 환경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교정의 전체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형태 및 공간

을 구성함으로써 기존 질서체계와 어울리면서도 독자성을 갖는 새로운 공간적, 시각적 질서체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의 교정은 교육의 장소라는 본질을 넘어 하나의 커다란 '기억의 터'이다. 그 속에 설립의 기원이 있고, 이에 따른 의지의 표상들이 있으며 각 구성원들의 기억이 각인되고 누적된 여러 장소의 Layer가 중첩된 하나의 도시이다.

이에 학교 교정(校庭)의 공간조직 맥락에 부합하면서도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여 성원고등학교의 인자성을 높이고자 한 새로운 기숙사는 교정에 새로운 장소성을 구축함과 동시에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전체성 속

의 구성요소로서 교정의 배경이 될 것이며, 우리 아이들은 이곳에서 '꿈꾸는 나무' 가 된다.

### Void & Sol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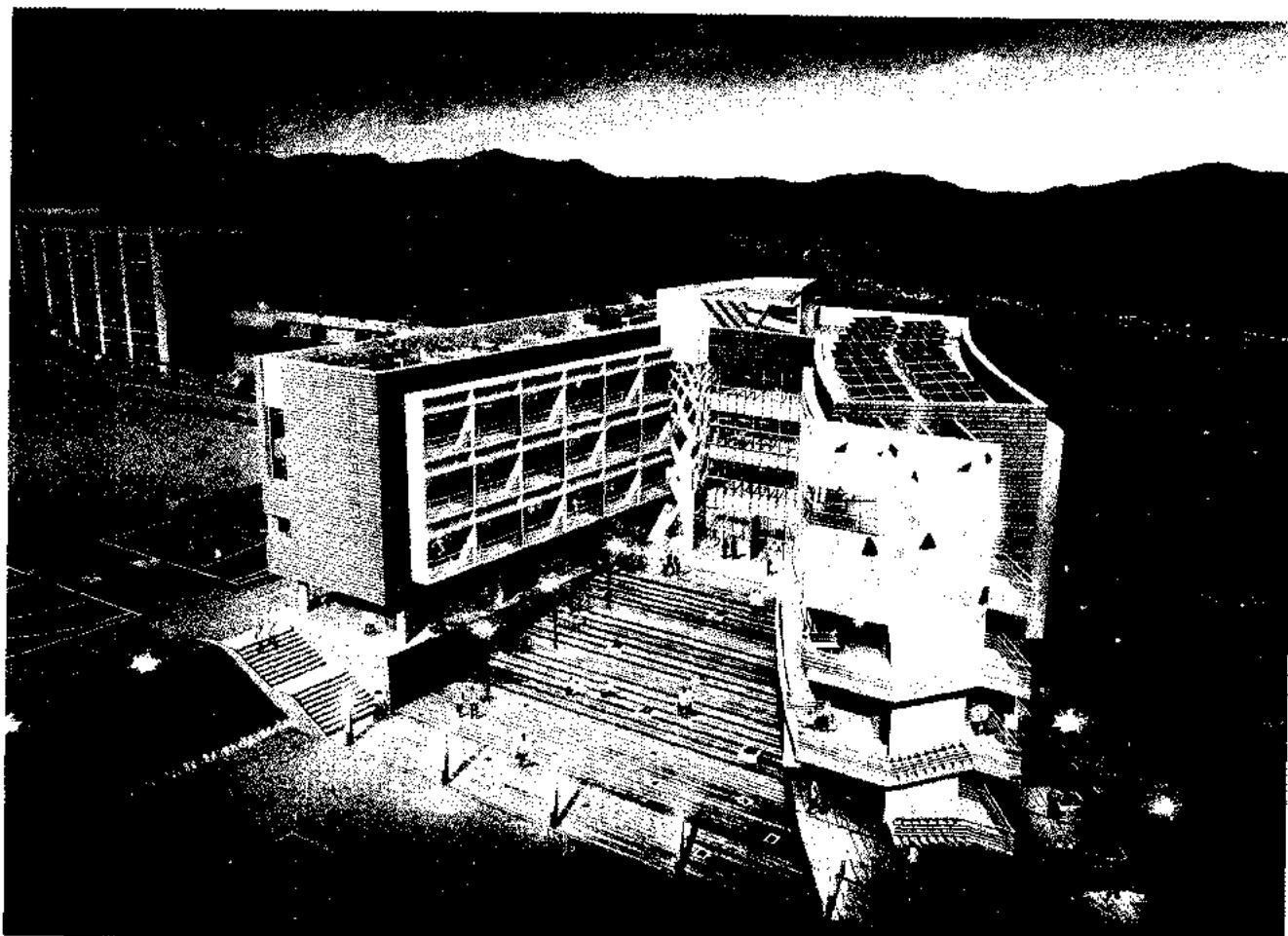
"비움으로 채우고 다양성으로 채우고, 가능성으로 퍼지자."

인위적인 개념설정이나 디자인이 아닌 대지의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비움과 채움을 유기적으로 조작하였다.

채움은 학생들의 생활공간으로서 활동을 단기위한 장치로 사용되었고, 비움은 대지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 Fa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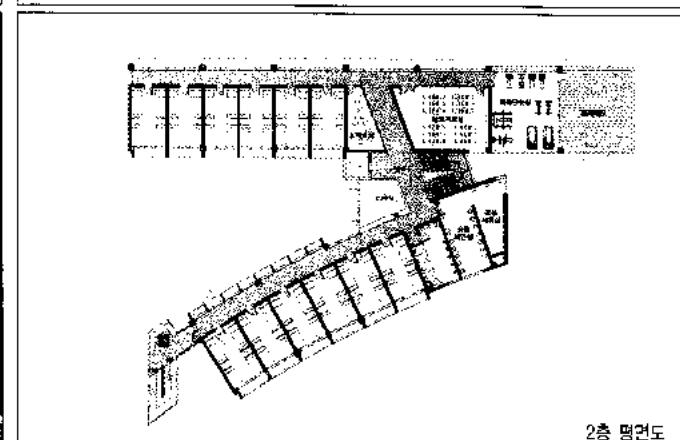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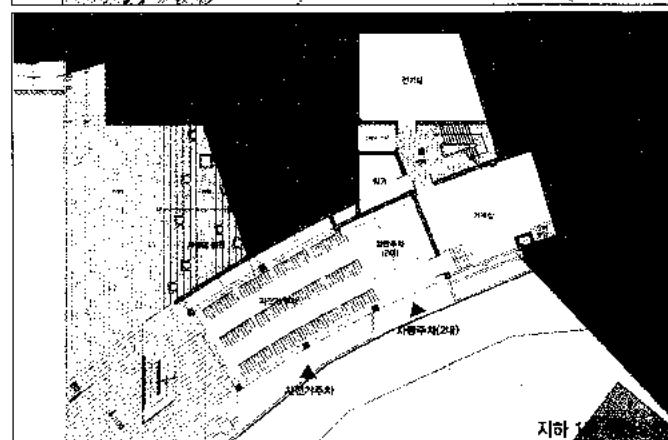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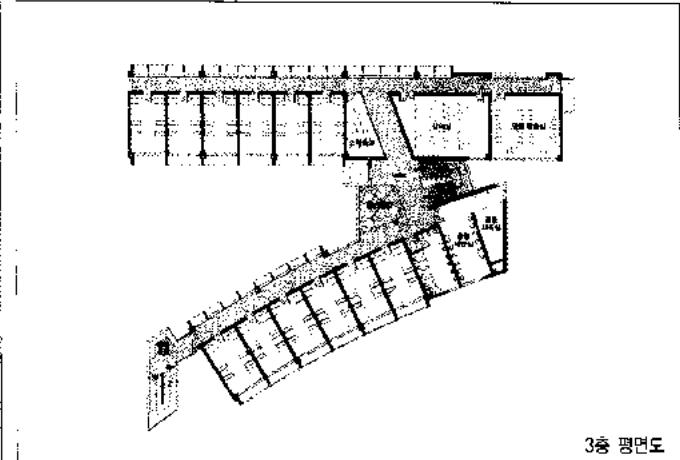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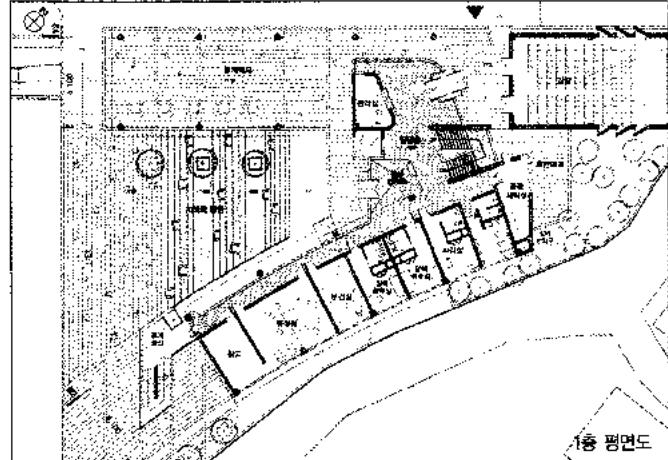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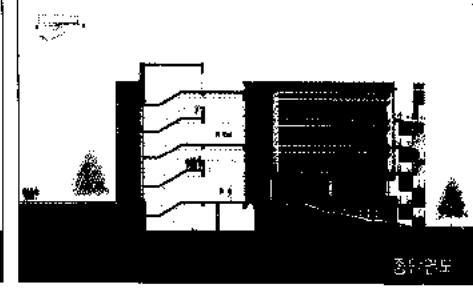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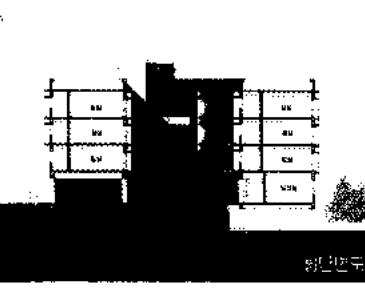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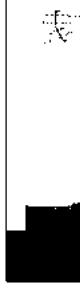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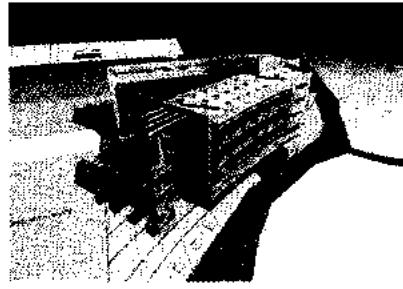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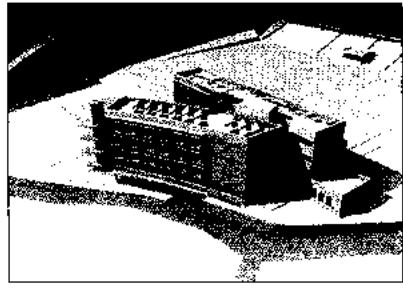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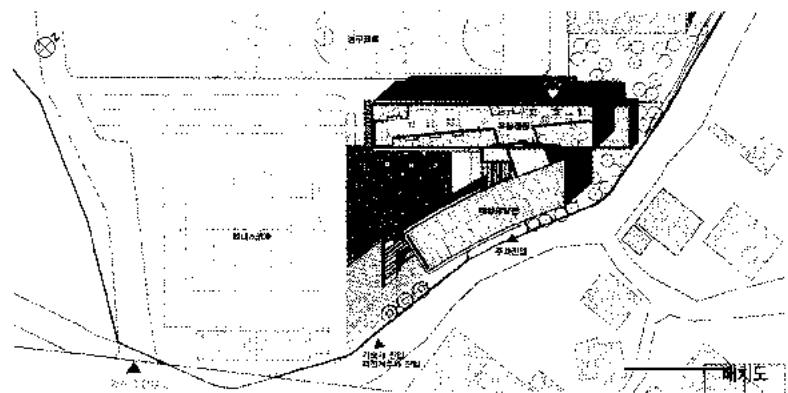
오방색(五方色)을 활용한 입면 디자인으로 남원이 갖는 전통이미지와 연계하고, 루버를 활용한 태양광 조절로 passive solar design 을 구현하였으며, echo-balcony를 활용한 온열환경의 조절과 다양한 생활지원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 단위 unit

침실은 주로 취침과 개인용품의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 침실 내에서 공부나 휴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은 별도로 두지 않는 교과부의 기숙형고 원칙을 적용하였으며, 단위침실 공간은 사생활보호, 사회성 함양, 학습효율,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4인 기준이며, 장애학우는 1인1실, 1층의 사감실과 인접하여 계획하였다.

각 단위 침실은 개인별 웃장배치를 통해 개인적 영역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



## 성원고등학교 기숙형고 기숙사

Domitory of Sungwon High School

가 작 / 빙인섭 (건축사사무소 녹)  
+유.아이엠아키텍츠)

대지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267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25,077m<sup>2</sup>

건축면적 4,056.78m<sup>2</sup>

(기준 3,511.85m<sup>2</sup>+신축 54.93m<sup>2</sup>)

연면적 9,739.20m<sup>2</sup>

(기준 6,968.56m<sup>2</sup>+신축 2,590.13m<sup>2</sup>)

전 배율 16.18%

용적률 37.92%

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설계담당 녹건축\_빙인섭, 김종왕, 이명운, 윤옥선,

송선영

아이엠아키텍츠\_임준범, 오세준

### '작벽인광'

벽을 뚫어서 불빛을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새 역사 창조의 기수가 될 성원고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먼저 2.6m의 level차를 데크를 형성함으로써 데크 아래공간을 활용하고 기존지형과 연계시켜 진입하게 하였다.

기능에 따라 매스를 분절시켜 기숙과 학습, 휴게의 기능을 각각 부여하였고, 축에 따라 통로를 형성하여 보행동선을 배려하였다.

또 다른 매스의 결합은 새로운 영역을 확보하고 기능에 따른 공간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골조리를 통한 랜드마크적 인자성을 강조하고 학교의 부정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간선도로에서의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 -외부환경 및 주변시설을 고려한 배치

새로운 휴게기능과 기존녹지공간을 연계하여 기존 체육관 전면공간을 재생시켰으며 완충녹지 및 다양한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보호수목을 활용한 가로변과 친환경 쉼터를 계획하였다.

### 평면계획

보관기능과 휴게공간을 균형배치하여 연결성을 확보하고 선큰을 통해 지하공간의 활성화를 극대시켰으며, 각 요소마다 자원공간을 배치하여 관리 및 접근성이 용이하며 연결데크를 통해 커뮤니티공간을 확장시켰다. 또한 수직동선에 의해 학습공간과 기숙공간, 2인실과 4인실의 기능을 구분하여 분리하였고 각 기능을 데크와 연결복도로 확장시켜 휴게 및 커뮤니티공간을 형성하였다.

### 입면계획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인 수직 목재루버는 자연과 건물이 하나되는 이미지를 형성한다.

책과 나무의 수직적 패턴이 선은 면으로 변형되어 공간을 만들고 공간에 에너지를 불어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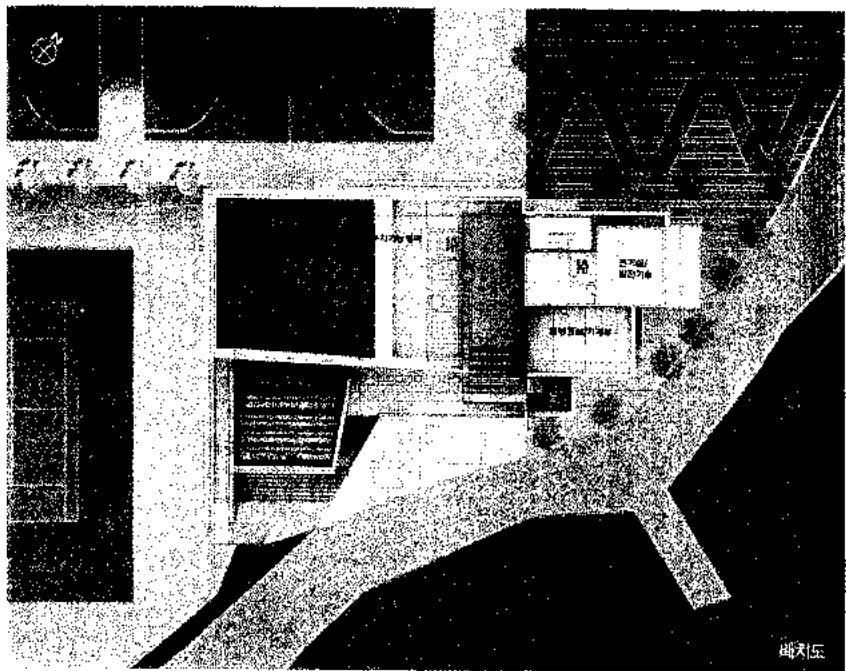


는다. 수직선의 반복적 사용으로 연속성 부여하고  
층마다 수평성을 부여하여 안정감을 주었다.  
또한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벽을 뚫어서 불  
빛을 끌어들인다는 착벽인광의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단면계획

기존지형 및 부지레벨을 적극 활용하고 순응하는 단면계획으로 외부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친환경공간 및 반외부공간의 확보로 쾌적한 학습공간을 형성하였다.

기술기능과 휴게기능의 연결을 통해 유기적 공간 구성을 하였고 Mass의 Open Space를 통해 바람 길을 형성하여 휴게 및 조망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였다. ■



A screenshot of the Windows Task Manager interface. It displays a list of running applications in a grid format. The visible applications include 'File Explorer', 'OneDrive', 'Microsoft Edge', 'File History', 'Windows Update', 'Windows Security', 'Windows Defender Firewall', 'Windows Update Assistant', and 'Windows Update Catalog'. Each application has a small preview icon next to its name.



# 사림(士林)의 도시(上) 完

##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짬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획을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적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인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畝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아래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난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조영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밀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면식을 지난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빠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타래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쇄원에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촉

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사문학의 대부 정철과 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교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와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명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물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난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아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삼, 학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압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 복 차

1. 어로(輶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_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_Puzzle
3. 역사 코드 만들기\_3. 단양(丹陽)지도 읽기!  
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p
4.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학교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퍼즐 2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6. 퍼즐 3.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7. 퍼즐 4. 퇴계 이황과 단양, 산과 산길 그리고 산촌\_Mountain, it's path and village
8. 퍼즐 5. 퇴계 이황과 단양\_Toege-Lee Whang and Danyang
9. 퍼즐 6. 단양, 1970년\_Puzzle 6. Danyang 1970
10. 퍼즐 7. 1970년 단양 도시구조\_Puzzle 7. The urban structure of Danyang 1970
11. 퍼즐 8. 퍼포 1548년\_Puzzle 8. Maepo 1548

필자 : 한재수, 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HKIRA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옥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간 농림부 과제로 한옥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출원*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둘러낸 '황도개경의 비밀(2002, 도서출판 옛오늘)', 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퍼즐8. 매포 1548년

### - Puzzle 8. Maepo 1548 -

오전 7시 35분 원주역에서 기차를 탔다. 약 한 시간 전 청량리를 출발하여 양평, 지평, 양동을 지난 무궁화호 열차였다. 이 열차가 제천을 지나 단양역에 도착한 것은 한 시간 12분 뒤인 8시 35분이었다. 불과 5년 전 만해도 모든 역을 다 거쳐 가는 바람에 무려 4시간이나 걸리던 거리가 버스 환승거리 중심으로 조정한 탓인지 불과 두 시간 거리로 단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주에서 단양 구간을 기차로 달린 시간은 자동차를 타고 중앙고속도로를 달려간 시간과 거의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차를 탄 것은 이 지역 변화에 철도가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이 지역에 놓인 철도여행의 맛을 느껴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열차가 남한강 철교를 지나자마자 단양역이 있었기 때문에 상진 대교까지는 걸어서 불과 15분 거리이었으므로 굳이 버스를 갈아타려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경기 좋은 거리 때문이기도 했다. 도담역을 그대로 스쳐 지나친 열차의 차창에 도담 삼봉을 순식간에 비친 순간 하과 터널을 지나자마자 상진터널을 빠져 나온 열차의 차창에 비친 것은 상진대교와 남한강이었다. 이즈음 쇠끼리 맞갈리는 마찰음을 내며 속도를 늦추기 시작한 열차는 남한강 철교를 지나자마자 바로 단양역이 들이 닥쳤다.



(그림1) 1968년 단양과 매포 1/50000



(그림2) 1960년 단양과 매포 1/50000

그러나 불과 25년 전만 해도 기차선로는 달랐다. 하과터널을 빠져 나온 기차는 바로 상진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천주산 자락을 우회하는 천주터널을 통과한 뒤 남한강을 따라 애곡리 어울고개 입구에서 단양

천을 바라보고 남한강을 가로 질러 현천리를 지나 북하리 단양역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이미 산업철도로 개통된 중앙선과 부분적으로 개통된 간선철도가 연결되어 물류 유통에 유리해진 까닭에 매포 일대는 풍부한 석회석과 함께 시멘트공업이 발달할 만한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중앙선, 길이 총 연장 386.6km인 이 선로는 서울 청량리역~경주역을 잇는 철도선으로 1942년 4월 1일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이 철도는 경부선(京釜線)에 이어 한국 제2의 종관철도로, 연선(沿線) 일대의 광산·농산 및 임산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부설된 것으로, 1939년 4월 청량리(淸涼里)~양평(楊平) 구간이 개통되고 1940년에는 양평~원주(原州) 구간이, 1942년 4월 1일 전구간이 개통됨으로서 영서(嶺西) 내륙지방의 개발에 초석이 된 철도였다. 경부선이 평야지대의 대도시를 잇는 철도였다면 양평·원주·제천(堤川)·영주(榮州)·안동(安東)을 지나 영천(永川)에서 대구선(大邱線)과 접속하며 경주까지 이르는 중앙선은 산업도시를 연계하는 물류 중심의 철도였다. 그리고 이 두 철도를 잇는 간선철도 충북선(忠北線)<sup>1)</sup>과 태백선(太白線)<sup>2)</sup>가 제천에서 교차하여 내륙도시가 산업도시로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의 일이었다.

그를 위한 첫 삽이 떠진 것은 충주~봉양 구간으로 8·15광복 후 십년이 지난 1955년 11월에 착공되어 1958년 12월 31일에 준공, 중앙선에 연결됨으로서 길이 129.2km 중부 내륙 도시를 동서로 잇는 충북선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이 선로를 기획했던 것은 조선총독부이었다. 1920년 3월 당시 조선철도주식회사(착공 당시 중앙철도회사)는 경부선의 조치원역(鳥致院驛)과 봉양역(鳳陽驛)을 잇는 길이 129.2km 철도선을 계획했는데 1920년 3월 조치원~청주 구간 노선 공사에 착수 같은 해 11월에 준공한 것을 효시로 1923년 5월 증평(曾坪)까지, 1928년 12월 충주까지 총 91.7km를 하였으나 끝내지 못했다. 충북선은 이런 토대위에서 선로를 1958년 연장 개통한 것이다. 그러나 태백선은 좀 달랐다. 이 선로는 충북 제천에서 강원 태백시 백산역에 이르는 길이 103.8km 산업철도로 1955년 12월 31일 제천~영월 38.1km의 영월선을 개통한 후, 1975년 12월 5일 태백~백산 9.3km를 개통, 제천~백산 전 구간을 개통하면서 태백선이라 명명된 것이다. 이 철도는 길이 103.8km로서 중앙선이 제천역에서 갈라져 나와 영월·함백·고한·태백 등을 거쳐 영동선의 백산까지 이어지는 19개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구간이었다. 1955년 12월 31일 제천~영월 38.1km 구간이 개통된 이후, 1957년 3월 9일 영월~함백

1) 이 선로는 중부내륙 수송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의 복선화(113km 구간)가 1980년 10월에 완공되었고 2005년 3월 30일에는 전철화가 되었다. 충북선의 수송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의 복선화(113km 구간) 계획이 추진되어 1980년 10월에 완공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게 되었다. 1999년 6월 14일 전철화가 공사가 시작되어, 2005년 3월 30일에 개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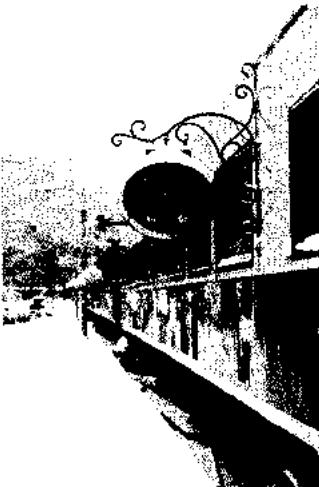
2) 이 선구(線區)는 현재 단선(單線) 운전 구간이지만 전구간이 전철화(電鐵化)되었다. 주로 태백산맥의 준령을 가로질러 건설되었기 때문에 터널이 많으며 고한~추전의 정암(淨岩) 터널은 길이가 4,505m이다. 또 제천에서 92.1km 지점에 위치한 추천역은 해발고도 852m로 최고점에 위치한 역사(驛舍)이다.

22.6km를 개통되자 함백선이라 했다가, 1966년 1월 19일 다시 예미~고한 30km이 개통되면서 고한선으로, 1973년 10월 16일 고한~태백 15km가 마지막으로 1975년 12월 5일 태백~백산 9.8km 개통이 개통되면서 제천~백산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태백선이라 하게 된 것이다.

국토를 동서로 잇는 횡단 철도, 바로 이 작업이 근대화, 산업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시작되고 있었던 셈이다. 소백산 줄기 북쪽에선 충북선과 태백선이 제천을 중심으로 연결되었고 남쪽에선 경북선(慶北線)과 영동선(嶺東線)<sup>3)</sup>이 영주에서 교차하여 경부선과도 직접 연결되기 시작했다. 경북선은 역시 원래 조선철도주식회사(朝鮮鐵道株式會社)가 경북 내륙지방을 개발하기 위해 경부선의 김천~안동을 잇는 철도를 1922년 착공하여 1931년 10월 15일 전 구간을 완전 개통한 길이 115.2km 단선철도이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일본은 군수산업용 철재공급이 부족하자 1944년 9월 30일 점촌~안동 간 철로를 철거하게 되면서 경북선은 김천~점촌을 잇는 구간으로 단축되어졌다. 그런데 8·15광복 이후 정부가 태백산 지구 지하자원 개발에 착수함에 따라 수송량이 증가되자 중앙선의 수송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이를 줄이려는 방안의 하나로 영동선과 경부선을 직접 연결시키는 방편의 일환으로 점촌~영주 간을 연결하는 경북선 연장공사를 1966년 10월 10일 완공했고 마지막으로 이 철도는 청량리~원주 구간이 복선전철화(複線電鐵化) 공사<sup>4)</sup>가 완성되면 수송능력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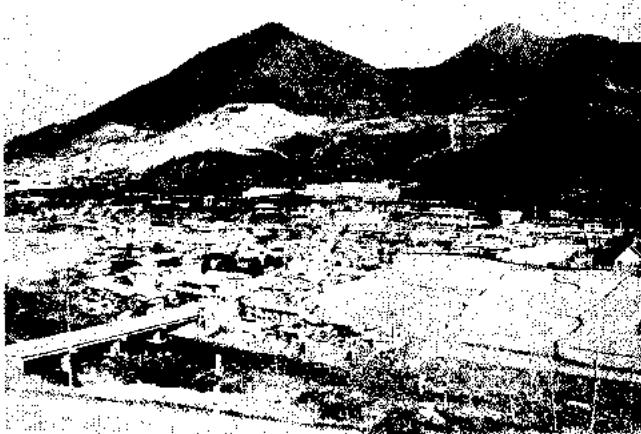


(그림3) 단양역



(그림4) 역전 열차카페

제천과 영주 사이에 있는 단양은 이런 철도사업의 구심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실 단양 읍이 수몰되기 이전, 북하리에 있었던 철도 역사



(그림5) 1970년대 북하리 단양역

(驛舎) 단양역은 여객중심의 역사이었으나 매포 객관 아래 있는 도담역은 주변에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가 들어서 있고 북쪽에 있는 심곡역 역시 주변에 현대 시멘트가 있어 시멘트 운반 전용선로가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성격이 달랐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매포 일대에 시멘트 공장들이 1960년대 들어섰던 것도 단순히 석회석 매장량 때문만이 아닌 셈이다. 이런 점에서 단양과 매포란 도시의 발전은 철도의 역사(歷史)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산업화와 전통적인 경관성이 강하게 충돌하고 문화 콘텐츠가 혼재되고 장소성의 변화속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일제강점기 초기만 하더라도 매포는 시멘트 공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평범하고 자그마한 도시에 불과했다. 단지 일제강점기 작성된 1918년 지령도에 앞으로 일어날 대변화의 조짐이 우랄레와 톨리네가 지형으로 표기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단양역사를 빠져 나온 것은 오전 8시 40분 조금 지나서였다. 춘분을 사흘 앞둔 3월 19일 청량리에서 6시 10분에 출발한 기차는 1시간 25분 만에 원주에서 승객을 태우고 불과 한 시간 만에 단양역에 닿았다. 금요일 아침이라 기차에서 내린 사람은 적었으나 역사(驛舎)는 북하리에 있었던 단양역 시절의 단출한 시골역사가 아니었다. 건물 입면자체부터 도회지 냄새가 풍기는 콘크리트 라멘조의 거친 구조를 작설적으로 드러낸 단성역과는 달리 박공지붕 형태를 부드럽게 살려낸 아담한 건물이었다. 대합실을 빠져나오자 나는 오늘 일정 생각에 잠시 망설였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퇴계 이황의 매포 출장길을 옹골차게 담시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역전 아래 5번 국도로 걸어 내려와 원편으로 길을 잡아 현천리에서 다리를 건너 성재산 자락을 휘돌아 가서 관아가 있었던 하방리에서 담사의 첫발을 정식으로 내딛는 것에 비하면 여기서 상진대교를 향해 5번 국도를 거슬러 가며 시작하는 것

3) 경북 영주와 강원 강릉 사이를 잇는 길이 193.6km의 철도이다. 이 철도는 본래 철암선(鐵岩線: 철암~목호 사이 60.5km) · 영암선(榮巖線: 영주~철암 사이의 86.4km) · 황지본선(黃地本線: 통리~심포리 사이의 8.5km) 및 동해북부선(목호~강릉 사이 44.6km)을 통합하여 1963년 5월 17일 영동선으로 명명한 것이다. 1969년에 전철화를 착공하여, 2005년 9월 8일에는 동해~강릉 구간이 전철화되어 개통되었다. 길이 193.6km, 중앙선과 경북선이 교차하는 영주로부터 태백산맥을 횡단하여 동해안을 따라 강릉에 이르는 대신입철도이다. 이 철도는 본래 철암선(鐵岩線: 철암~목호 사이 60.5km) · 영암선(榮巖線: 영주~철암 사이의 86.4km) · 황지본선(黃地本線: 통리~심포리 사이의 8.5km) 및 동해북부선(목호~강릉 사이 44.6km)을 통합하여 1963년 5월 17일 영동선으로 명명한 것이다. 철암선은 1940년 8월 1일 삼척탄전의 개발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고, 영암선은 1955년 12월 31일, 황지본선은 1963년 5월 30일 개통되었으며, 동해북부선은 1962년 10월 31일 개통되었는데, 목호~속초 사이를 연결할 목적으로 경포(鏡浦)까지 개통하였으나, 강릉~경포사이의 철도는 그 후 철거하였다. 1968년 5월 대통령의 산업선 전철화 지시에 따라 1969년에 전철화를 착공하였다. 1975년 12월 5일에 철암~동해(당시 복朋) 구간이 전철화 되어 개통되었고 1997년 3월 28일에는 영주~철암 구간이 전철화 되어 개통되었다. 2005년 9월 8일에는 동해~강릉 구간이 전철화 되어 개통되었다.

4) 1973년 6월 청량리~제천 간, 1987년 12월 제천~구단양 간, 1988년 12월 단성~영주 간이 전철화 되었고, 2005년 12월 청량리~덕소 간, 2007년 12월 덕소~팔당 간, 2008년 12월 팔당~국수 간의 수도권 복선 전철이 개통되었다. 차령산맥(車嶺山脈)을 넘기 위한 치악산(雉岳山)의 금대(金岱)터널과 소백산맥(小白山脈)을 넘기 위한 죽령(竹嶺)터널 등의 루프식 터널이 있다.

온 거리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더구나 이 길을 택하면 시간이 넉넉해 보였으므로 굳이 오늘 하루 일정을 챙기려고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다른 때 같으면 크게 망설일 필요 없이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저하게 된 것은 판아에서 매포리 까지 1872년 지도에 표기된 거리는 삼십리에 불과했으나 실제 거리는 사십리 남짓했으므로 반나절 거리를 훨씬 웃돌았다. 그냥 평지 길을 걷기만 해도 하루해로는 부족한 일정이었다. 퇴계 행보를 따라 매포로 길을 나서고자 했던 까닭에 내용으로 보면 간단한 답사였으나 다녀야 할 행보는 오늘 중으로 일정을 소화하기 벅찬 점이 많아 주저가 생겼다. 아직 시간이 이를 닦아지 열차는 도착했어도 열차 카페는 인기척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대합실에 앉아 자료를 살펴보았다. 경첩이 지난 뒷인지 이따금 창 너머 길가에 파릇파릇한 푸른 기가 감돌았고 바람에 실린 추위도 다소 누그러진 것 같았다. 머지않아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춘분을 기점으로 한 보름 더 지나면 농사꾼의 일손이 가래질로 바빠지는 청명이다. 바야흐로 생명의 열기로 천치사방이 가득해 질 것이다. 하지만 산이 깊은 이곳의 봄은 절기보다 늦게 찾아오고 계절보다 일찍 나갔다. 엉동이 가신지는 이미 오래였으나 길바닥에 찬바람은 여전했고 대합실을 빠져나간 사람들은 쪐걸음으로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 오백년 전 아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12년을 거슬러 올라간 1458년 2월 단양현감 퇴계 이황이 증도리 들판을 가로 질러 매포를 찾아간 것도 아마 이맘때이었을 것이다. 당시 그가 매포를 찾아간 이유는 간단했다. 지금의 매포는 당시 북면 매포리이었는데 그곳 창발에는 현에서 관장하는 사창이 있었다. 해마다 여지없이 찾아드는 보릿고개가 온 것으로 보기에 아직 시기는 일렀으나 땅이 워낙 척박했던 뒷에 이곳은 춘궁기가 어느 곳 보다 일찍 찾아 왔다. 봄이 채 머물기도 전에 죽 한 끼를 제대로 넘길 수 없도록 춘궁이 극에 달하자 그는 곡식장고를 열고 북면 사람들을 구휼하기 위해 부임하자마자 서둘러 이곳을 찾은 것이다. 어본 아이 할 것 없이 굶주림에 배창자가 비비 틀려 하끼비 걸음을 걷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어지럼증에 휘둘리고 부황기가 눈에까지 퍼져 흰자위가 누르스름하게 물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 갔다. 굶주림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에게 성리학과 예악(禮樂)은 도덕도 아니었고 우주의 본질인 이(理)와 기(氣)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 어지럼증을 더해주는 어지러움일 뿐이었고 귀 물음을 더 깊게 해주는 귀 울림일 뿐이었다. 아이들은 한사코 마을 뒷산에 기어올랐다. 물오-

름이 시작된 산에는 그나마 생명의 불씨를 지켜줄 최소한의 머거리가 있었다. 아이들은 다투어 솔가지를 꺾어 송기를 뺏았으며 솔 순을 분질려 입에 물어넣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아이들만 아니었다. 남정네들도 산을 탔다. 아낙네들은 죽거리나 찬거리를 삼으려고 산나물을 찾아 해맸고 남자들은 히이나마 캐내려고 팽이질을 해댔다. 그렇다고 송기나 솔 순이 배가 더자도록 한꺼번에 많이 먹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이나 떡처럼 배가 부르지도 않았고 얼마만류 먹으면 그 독하고 진한 솔 냄새가 비위를 뒤집었다. 이럴 즈음이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은 달라붙은 뱃가죽을 움켜잡고 흐느적거리는 걸음을 걷기 마련이었다. 퇴계 이황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한 혁령이었다.

당시 매포리와 북면 인구가 얼마였는지 기록이 없어 얼마만큼의 양식을 구휼하려 했던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단양인구는 235호 724명이었고 군정은 시위군이 26. 선군이 26이었던 점 그리고 삼백여년이 지난 1789년 편수된 것으로 추정되는 호구총수<sup>5)</sup>를 보면 읍내면 295호 인구 1219명 남자 599명 여자 620명, 북면 509호 1,658명 남자 822명 여자 835명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확률적으로 120호의 360명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와 비슷한 시기 작성된 여지도서<sup>6)</sup>의 자료를 보면 북면 인구<sup>7)</sup>는 656호, 남자 1,114명 여자 1,172명이었다. 이 자료를 참고한다면 삼 백여 호, 천 여명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 통계 차이로 비약이 지나친 게 아닐까 염려스러운 생각들이 다시 떠올라 마음이 부거워 졌으나 그렇다고 신경 쓸 일도 아니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곡식을 퍼주었을지 궁금해서 한번 양이라도 가능 해보자고 따져본 일이었고 실제로 어느 누구도 하기 불가능한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한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단지 역사적 진실을 보고 느끼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사료란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읽고 사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나 나름대로의 지론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세종실록지리지를 곰곰이 따져 읽는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그가 출장을 나서려고 하는 매포는 당시 단양현의 속장(屬莊)이었다는 기록이었다. 이곳은 단양현의 중요한 농업 생산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다. 충주북 속현 가운데 유독 단양에만 집중하여 간전(耕田) 1,169경이 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단양은 개간사업이 진행되고

5) 권 9책, 필사본, 편찬자는 미상이나, 한성부의 초기(草記)를 바탕으로 1789년(정조 13)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1책은 1395(태조 4)~1789년의 전국적인 호구총수의 변화와 충정부의 인구 상황을 기록했다. 2책 이하는 1789년 당시 한성 5부와 8도의 호구를 수록하되 각 부(府)·군(郡)별로 호구 총수를 먼저 제시하고 각 방(坊)·면(面)의 원호(元戶)·구수(口數)·남녀수를 밝히고 있다. 호구 수는 매 쇠년마다 작성해 대장을 호조·한성부·본도(本道)·본을(本邑)에 두고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의 명령에 수세원으로 삼았다. 이러한 호구 자료는 <조선왕조실록>, <학지지>, <읍지류> 등에서도 사발적으로 보이나 복잡 시기의 지역별 호구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책은 특경시기이지만 전국 각 방면의 호구수를 일람해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부기된 방역의 이름과 숫자는 지방행정조직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6) 55책. 채색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295개 군현의 읍지, 17곳의 영지, 1곳의 진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 군현 중 39곳의 읍지가 누락되어 전한다. 제1~5책은 경기도, 제6~13책은 충청도, 제14~17책은 강원도, 제18~21책은 황해도, 제21~30책은 평안도, 제31~35책은 함경도, 제36~49책은 경상도, 제50~55책은 전라도의 순서로 읍지들이 묶여져 있다. <여지도서>는 1530년에 <동국여지승람>이 신증된 이후 250여 년이 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지리지를 편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이 책은 각 읍에 읍지 편집 규칙(規式)을 하달하여 각 군현에서 편찬하여 도에서 모은 읍지를 그대로 편역하기 때문에 항목구성을 일정하나 내용은 상세함과 소략함, 글씨, 자도 등이 군현에 따라 상이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비하여 군현별 지도·방역(坊里·里)·제역(賛域)·노로(道路)·전역(田域·旱田)·부세(賦稅: 進貢·綱糧·田稅·人稅·均稅)·군병(軍兵)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사회적·경제적인 내용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도와 읍지의 결합지도 필요성의 증대, 인구·상업 및 유통의 증대, 지방 재정 파악의 강화 등 18세기 종업의 사회적·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18세기 종업의 조선 사회와 전국 각 지역의 시장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서도 중요하다. 1973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2권으로 축소 영인·간행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7) 北北面 三谷里白官門北距五十里編戶六十六戶男七十六口女七十九口○靈泉里白官門北距四十五里編戶三十戶男四十六口女五十七口○詩坪里白官門北距四十里編戶六十戶男一百五口女一百二口○鶴洞里白官門北距四十里編戶七十五戶男一百三十一口女一百四十一口○安洞里白官門北距三十五里編戶二十六戶男四十九口女四十三口○友德里白官門北距三十里編戶五十戶男八十九口女一百四口○梅浦里白官門北距三十里編戶三十三戶男四十八口女五十一口○槐谷里白官門北距三里編戶三十七戶男六十四口女六十八口○於儀谷里白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三十一戶男五十七口女六十七口○別谷里白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十五戶男二十四口女二十四口○上津里自官門北距二十五里編戶廿七戶男八十三口女九十二口 所也村 基洞里自官門西北距三十里編戶四十二戶男六十一口女六十二口○角基里白官門西北距三十五里編戶七十戶男九十九口女一百七口○大可羅洞里自官門西北距四十里編戶三十戶男六十二口女六十四口○遠谷里自官門西北距五十里編戶二十四戶男四十七口女四十五口○波浪洞里自官門西北距五十里編戶二十戶男四十三口女四十八口

있었던 유일한 곳이었을 것이고 1918년 총독부 지형도에 매포천을 따라 별판이 전개되어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매포리는 농업생산기지이자 중요한 과세 대상지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먼 눈길로 천주봉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도시 규모로 따지면 이웃한 충주목은 도호부였으므로 호수 1,871호 인구 7,452명의 대읍이었다 치더라도 속현 가운데 음성현은 171호 726명으로 단양군과 엇비슷하였고 나머지 청풍현(191호 656명)과 연풍현(143호 341명), 영춘현(195호 582명)은 의외로 단양현보다 인구가 적었다. 단지 제천현이 415호 1,235명으로 배 가까운 인구가 있었고 이웃한 강원도의 영월역시 호수는 324호로 많았으나 실제 인구는 611명으로 적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단양은 산골이었지만 제법 규모 있는 도회였던 셈이다. 깊은 호흡으로 세종실록지리와 여지도서 그리고 호구총수의 통계에 간접 곱작 달싹 하기 힘들었던 생각들이 자자들기 시작하자 이곳 현감으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 맨 처음 매포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도 나름대로 그 일대가 농업생산기지로서 수확과 과세 대상 경작지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에서 구휼을 한다면 무엇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 내용은 충청도 관찰사 이맹균(李孟均)이 올린 장계한 내용에 소상히 나타나 있었다. 세종실록 세종 1년(1419) 3월 9일조의 기록내용을 살펴보면, “지나간 을미년에 호조의 공문으로 된 난민 구제 규정의 내용을 보면, 장년(壯年)의 남녀는 매인당 하루에 쌀 4홉, 콩 3홉, 매주 1홉, 11세에서 15세까지는 매인당 쌀 2홉, 콩 2홉, 비지 반 흡씩이옵니다. 그런데 송(宋) 나라 부필(富弼)의 청주(青州) 난민에 대한 구제 규정 내용은 15세 이상이 매인당 하루에 1되, 15세 이하는 매인당 5홉, 5세 이하의 남녀는 제외되었으니, 호조에서 상정(詳定)하기를, 쌀과 콩과 매주를 합하여 8홉이므로, 1되가 차지 아니하는데, 중국의 1되는 우리나라 1되 6, 7홉에 준한다. 지금 농사일이 비야흐로 시작되는데, 전례에 의거하여 나누어 준다면, 비록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나, 농력이 부족하오니, 부필의 구제하던 예를 참작해서, 15세 이상은 하루 쌀 7홉, 콩 6홉, 비지 2홉과 11세 이상은 쌀 4홉, 콩 3홉, 비지 1홉을 주고, 10세 이하 5세 이상은 비록 농사일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아이가 주려서 올면, 부모가 훌로 배부르게 먹지 못할 것이니, 역시 11세 이상의 준례에 의거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하니, 의정부와 6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한 바, 다 말하기를 “나누어 주는 것은 전례대로 하고, 백성에 종자곡식을 대출하여 농사를 권장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대로 따랐던 적이 있었다. 당시 거의 대부분 행정은 관례를 근거로 진행되었으므로 퇴계 이황 역시 하루세끼 연명할 곡식을 나누어 주려고 길을 나섰을 것이다.

역사를 꿰뚫어 볼만한 안목이나 시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니었으나 단양 현감 퇴계 이황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가능한 자료를 종합하여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 부족했지만 그대로 그의 의도를 대략 간파되었으므로 이제 남은 일은 창말이 어디인지를 찾아내고 주변 역사경관을 검토하는 일이다. 과연 그가 찾아가는 매포창이 있었던 창말 일대는 어디인가. 매포는 이미 1960년대 시멘트 산업의 본향으로 변하게 되자 이곳 지형이 완전히 공장지대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곳 실상은 퇴계가 보았던 당시 풍경과 극과 극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장소성의 실존을 찾

는 일이나 진배없었다. 존재는 공간의 그림자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따진다는 것은 거리 면적 위치 세 가지 요소가 전부였다. 그 가운데 어떤 것으로 이 궁금증을 해소 할 수 있는지 곰곰이 따져 보았지만 경관의 맥을 짚어보기에 어느 것도 합당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공간의 물리적인 형태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일 뿐이었다. 역사경관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비교의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거리라는 척도로 해석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이지만 1872년 지방도를 보면 판야가 있는 읍내면에서 매포까지 거리는 삼십리 남짓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포리와 도담리, 과곡리 모든 지역이 관내에서 삼십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지도의 생명인 거리개념에 문제가 생긴 셈이다. 말이 삼십 리이지 실제 거리는 훨씬 웃을 것이 분명했다. 오늘 일정은 단양역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았으나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던 시골 현감의 매포 출장은 아마이른 새벽부터 길을 재촉했을 것이다. 관아에서 매포까지 그가 이동한 경로는 남한강변을 따라 중도리를 지나 북상하다가 상진나루에서 강을 건너 산 너머 매포로 왔을 것이므로 지도에 나타난 그의 발자취는 사실 단순했다. 그런데 의외로 상진리 일대 산세와 길에 대한 대동여지도의 기록은 부정확했으므로 나는 비변사지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지도는 군사용 목적으로 만든 지도이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지도는 주로 홍문관·규장각·비변사 등에서 제작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홍문관이나 규장각은 학술기관이었으나 비변사는 일종의 상설 국가안보회의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국방은 물론 주요 국정 현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했으므로 이곳에서 사용하는 지도의 내용도 달랐다. 홍문관·규장각에서 만든 지도가 읍지제작과 지방 통치



〈그림6〉 비변사방안도와 퇴계 이동로

그리고 조세수입 확대를 위함이 목적이었다면, 비변사의 그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목적이 커고 비교적 축적이 정확했다. 18세기 비변사에서 만든 ‘비변사 인(印) 방안지도’를 보면 전국을 5만분의 1 내지 8만분의 1의 축척으로 그린 까닭에 1m 정도의 지도 수백장을 성책할 정도로 방대한 지도책이다. 예를 들면 비변사지도 중 경상도지도만 보더라도 각각 세로 106~108cm, 가로 83~89cm 크기의 총 71개 지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제적인 규모와 양은 가히 짐작할만했다. 그보다 한 세기 뒤에 만들어진 대동여지도가 16만분의 1 축척인 점을 고려해 보면 비변사지도는 지도 상세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지도

의 중요한 특징은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 방안(方案) 위에 내용을 작성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건축사들이 흔히 설계를 할 때 트레이싱지 위에 사방 1cm 방안 그려놓고 건물배치를 하거나 공간 디자인에 필요한 메모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개념의 것이다. 지도의 모눈종이라 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한 종이 위에 지형을 그려 놓으면 위치·거리·방향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마련이다. 당연히 군사지도로서의 실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영안도연변도, 연변성지도, 양계연변방도, 서북면 연변도 등 수많은 국경지역 상세를 그린 관방지도가 다수 제작되었다. 특히 18세기 초 제작된 서북피아 양계 만리 일람지도는 조선·청나라의 국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작된 국경지역 상황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큰 지도였다. 이런 사실로 보면 대동여지도보다 50~100년 정도 이른 시기 제작된 동국대지도나 야국총도, 조선팔도지도의 정확성은 대동여지도에 육박하는 수준이었으므로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갑자기 돌출한 지도가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작되어온 지도를 그가 집대성하여 만든 지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평가였다.



〈그림7〉 1872년 지도와 퇴계 이동로



〈그림8〉 1872년 지방도 퇴계 이동로

그런데 역사 경관을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변사지도는 퇴계 이황의 노정에 짧린 콘텐츠를 기록한 지도는 아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형의 콘텐츠가 수록된 1872년 지방도를 통해 보완 조사하기로 생각한 것이다. 이 지도는 축적의 정확성이 비변사지도에 훨씬 못 미쳤으나 비변사지도나 대동여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커다란 장점이 있었다. 이 지도는 그려진 단양군은 여타 군현지도에 비해 읍내면 단양읍, 배포읍, 적성면, 단성면, 대강면 일대 산지와 마을 그리고 하천이 산수화적인 기법으로 잘 묘사되어 있었다. 신봉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종의 변동시점(variable perspective)이 하천을 따라 절경이 펼쳐지는 구담(龜潭), 하선암(下仙巖), 경천벽(敬天壁), 창벽(蒼壁), 도담리(島潭里), 삼봉(三峰) 등의 기암절벽 표기에 강조되어 그려져 있다. 다른 군현처럼 각면(各面) 밑에 소속 동리면을 표기하지 않고 노란 초가지붕으로 그려 동리(洞里)를 표시한 점 관청 건물을 청색 기와지붕으로 그려 점등이 돋보였다. 점막(店幕)이 표시되지 않고 단지 읍내와 북면(北面)에 시변(市邊)으로 장시를 표시한 것도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여느 지도와 마찬가지로 지도 상단에 도리(道里), 환총(環總), 결총(結總), 군총(軍總)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동서남북(東西南北) 방위가 글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도 상단이 남쪽이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다음 지도를 보면 위성사진에서 찾고자 하는 한 지점을 클릭하면 그곳 주변 상황을 사진으로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의 지도로 이해하면 되는 앞선 개념의 지도가 바로 1872년 지방도인 셈이다.

이 지도를 보면 단양읍은 농재와 우학교를 연결하는 길 지금의 46번 국도와 현천교에서 성재산을 돌아 읍내로 들어오는 길, 지금의 5번 국도가 7자형으로 접속되면서 읍내를 삼등분 한 도시였다. 나는 걸음을 옮길 생각을 하지 않고 창가에 서서 지도에 그려 있는 단양 관아와 배포를 잊는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지도에 그려있는 대로라면 배포로 가는 그 길은 지금은 빨밭으로 변해버린 하방리를 가로질러 성재산을 감돌아 상진대교로 이어진 5번 국도였다. 이 길 삼십리 밖에 배포리가 있고 상진대교에서 북하리로 가는 구간은 길이 없었다. 마음 한구석은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었다. 실제로 하방리 판아터로 가서 길을 따라 나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 지금 그 땅을 다시 밟는다고 크게 얻을 것도 없어보였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지도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두악산을 바라보고 남향으로 서 있는 동현, 널따란 동현 마당 남쪽 끝에 서서 동현을 마주보고 있는 창사 그 뒤로 겹겹이 열을 지어 늘어선 장청과 군사 작청, 중요한 것은 동현마당과 직교하여 내삼문이 있는데 이들을 동현마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묶고 있었다. 그리고 동현에 들어서려면 거쳐야 하는 내삼문과 상휘루… 길 건너 즐비한 상점들 그 뒤에 단양천을 따라 선 객사와 이요루… 과거의 기억들을 보듬고 있는 지도 속에서 단양관아의 모든 것들이 시간의 먼지를 털고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눈길이 파란색으로 칠한 죽령천 물줄기를 따라가자 소백산을 향한 강변에 햇살이 스며들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늘어선 갈대숲, 남한강 여울물이 환을 지어 둘러싼 증도리 모래톱 그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이고 있는 초가 마을들, 그리고 이들을 품에 안고 감싸고 있는 슬금산… 이들이 한강줄기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광은 상상만 해도 가히 절경중의 절경이었다.

바쁜 걸음을으로 비탄길에 내려선 나는 증도리 들판과 길을 따라 늘어

선 가로수를 느린 눈길로 둘러보았다. 역전과 종도리 둘녘 사이 난차를 가로 지르고 있는 5번 국도는 예전보다 좁아져 있었다. 이제 걸어가야 할 거리는 사십리 가량 되는 반나절 좀 넘는 거리였다. 이 길을 하루 만에 다녀오려면 일찍 서둘러야 했다. 상진대교를 건너자 멀리 종도리 모래별이 눈에 들어왔다. 상진나루 도선 목에 도착한 퇴계 이황 일행은 나귀에서 내려 배를 타고 강을 건넜을 것이다. 한강은 언제 보아도 좋았다. 특히 독서당과 압구정에서 시회를 즐겼던 이황이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즐겨 압구정을 찾았던 사람이었다. 때문에 종도리를 지나면 그는 마치 이곳에 정자를 지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종도리 모래톱과 저자도를 배경으로 언덕에 서 있는 압구정, 사실 퇴계는 한명회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세운 정자 압구정 만큼은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단양에 오기 일주일 전에 친구들과 압구정에서 전별식을 했던 것이다.

상진대교를 건너자 완만한 산 능선으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8톤 트럭이 달리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 5번 국도는 옛 길이 아니라 그 옆에 숨을 죽이고 즐기차게 5번 국도를 따라 올라선 좁다란 경운기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콘크리트 포장길이 옛길이었다. 1872년 지도와 여지도서에 수록된 호구 수에 의하면 상진리 길 가에 오십여호 남짓한 조가집들이 둘러 있었다. 한 삼십여 분 걸었을까 옛길과 5번국도가 만나는 적성삼거리로 지나자 고갯마루에 올라섰다. 매포는 동쪽으로 어상천면과 가곡면, 남쪽으로 남한강을 경계로 단양읍, 서쪽으로 적성면, 북쪽으로 제천시와 접하고 있다. 주요 산을 살펴 보면 북쪽 제천을 경계 짓는 갑산(甲山, 776.7m)의 거친 숨결이 밑으로 예덕산(391.5m), 예덕산(391.5m)에서 상사리를 오른팔로 품고 보타산(297.7m)에 이르러 평동에서 자자들은 텃에 널따란 들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쪽으로 금수산(1,016m) 줄기가 남쪽으로 흘러내려 말목산을 스치며 적성 계곡 원편을 감아 잡고 휘돌아 서쪽 벽을 만들었고 그 줄기가 천주봉(天柱峰, 579m)을 지나 한강에 이르러 남쪽 담을 차고 숨을 멈추자 그 산자락에 남한강을 바라보고 들어앉은 마을이 하전리와 도전리 그리고 별곡리였다. 그리고 북쪽 갑산 줄기가 평동 동편으로 흘러내린 객 산 솔미산(632m) 동편 줄기와 능선에 석회석 산지가 즐비하게 분포했다. 매포 주변 산은 대개 해발고도 500m 내외로 낮은 듯했지만 고산준령으로 첨첩 둘러 싸여 있었고 커켜이 계곡이 많아 지천이 발달했다. 중요한 하천이 갑산과 예덕산 줄기를 타고 남으로 흘러내려 매포 별판을 적시고 하과리로 빠지면서 남한강에 합수하는 물길이 19.5km의 매포천이고 적성 각자에서 들어와 평동을 지나 안동 입구 들판에서 매포천과 합류하는 대가천, 그리고 도곡 소류지에서 시작하여 대가천으로 흘러드는 것이 도곡천이었다. 이외에 규모가 작은 저수지로 어의곡·도곡·배골·한드매 소류지가 강줄기를 따라 사방에 퍼져 있었다. 이들이 하나의 줄기로 흘러내리는 매포리는 강을 따라 기다란 별판이 하과 삼거리를 거쳐 도담 삼봉까지 이어지는 충적 평야지대였다. 그런데 이 터의 불행은 이곳이 전형적인 석회암 지대였다는 점에 있었다. 이곳에 전국 최우수 시멘트 공장인 성진양행이 들어선 까닭이다.

5번 국도는 완만한 경사였으나 지루하게 긴 것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정상에 오르자 지금 가지 힘겹게 다가선 길은 하염없이 꼬불꼬불한 산자락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여기서 산길 아닌 산길 5번 국도를 걸어 내려가면 하과 삼거리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트럭이 달려도 도로 폭

을 넓혀도 이 길은 계곡 사이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변에 크고 작은 산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오른편으로 매포천을 따라 조금 가다가 철길 못 미쳐 오른편으로 산자락을 끼고 들면 철길 따라 하과리로 가는 작은 길이 나온다. 그리고 철길건너 다리를 지나 성진양행 후문에서 오른편으로 큰 길을 잡아 가면 도담 나루가 있는 도담리(島潭里)에 가게 된다. 빠른 걸음으로 내리막길을 질러댄 탓인지 이곳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한 시간 가량이 지난 뒤였다. 이제 하과 삼거리에서 곧장 이천보쯤 내쳐 내를 따라 길을 질러 가다가 철다리께서 오른편 샛길을 잡으면 우덕리를 가루고개 너머 적성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밑으로 건너 성진양행 정문 앞으로 가면 자그마한 돌산, 단풍산이 있는 매화 모령이를 돌아 매포로 가는 언덕길을 만나게 된다. 이 나지막한 언덕을 올라서서 매화낙지혈을 거쳐 마방터 지나면 눈에 전개되는 들판이 매포들이다. 마방터는 이곳이 수몰되기 전 만해도 동일 여관자리였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자고 갔다. 그리고 이 근처에 있는 매화낙지(梅花落地)혈자리는 예부터 명당자리라고 하여 많은 풍수들이 찾아왔으나 누구도 그 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런 어느 날 토정 이지함이 이곳을 지나게 된 것이다. 서경덕에게 글을 배운 이지함(1517~1578)은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 선조 때 뛰어난 행실로 벼슬에 올라 포천현감을 거쳐 이산현감을 지냈다. 성품이 기위(奇偉)하고 효성과 우애가 돋도했던 그는 천문자리음양 의약·복서 등에 통달한 그는 괴상한 행동과 예언 등의 일화가 많았다. 사람들은 재물에 욕심이 없어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하였고 항상 배웃과 짚신을 신고 마포 강변에 흙담 움막집에서 청빈하게 살았던 그를 '토정'이라 했는데 그가 나이가 들자 구담봉에 살고 있었다.

그런 그가 이곳을 지나치자 갑자기 안개가 끼고 앞이 안보인 것이다. 기감이 빠른 그는 이곳에 팔시 명당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자신의 덕 없음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다니던 세웅 밥을 내어 차성을 드리자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때 이곳을 보고 그가 한 말이 어통지하 십수지내였다. 풀이하면 매포천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곳에 깎아지른 암벽과 절벽이 병풍처럼 쳐 있으니 그아래가 어용지하(魚龍之下)요 두 강물이 합쳐 모양이 열십자와 같으니 십수지내(十水之內)라 했는데 사람에 따라 매화낙지 혈을 잡으면 금시발복할 것이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했다. 또 일설은 그곳에 묘를 쓰거나 집터가 있으면 3대가 걸인이 된다고 했다. 그 말이 맞아들었는지 이 들판은 지난 90년대 홍수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동리 월 터로 이전했고 그들이 살던 집터는 모두 성토하여 사람 키 한배 반배 정도는 높아졌다. 텅빈 매포 들에 가득한 것은 침목이었고 멀리보이는 도담 역에 놀어선 자동차뿐이었다. 들판이라고 했으나 광장에 가까웠고 객산은 객 산대로 푸르름이 살아나고 있었다. 숲은 겨울에서 봄이 다가감에 따라 암갈색 옷을 벗어버리고 연녹색으로 색감이 다른 차장을 하고 있었다. 보리가 자라난 들판엔 햇살이 따가워짐에 따라 나날이 색조가 변해가고 있었다. 연두색 색조가 널리 퍼지면 펴질수록 드넓은 매포 들판은 보드랍고도 두터운 이끼처럼 파랗게 파랗게 부풀어 올랐다. 푸르름이 짙어가 마침내 연녹색에서 초록으로 색감이 다른 차장을 하게 되면 윤기어린 보랏 잎은 드문드문 불어오는 바람결에 수많은 물이랑을 이루며 부드럽고 무겁게 출렁였다. 그럴 때면 햇빛 조각들이 은통 살아서 뛰는 눈부신 초록빛 바다로 변해간 것이 누구나 감탄을 절로 훌릴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지닌 곳이 매포 들녘이었다. 매포읍은 그물결속에 무슨 부표처럼 하나둘 여기 저기 까맣게 찍혀 있는 점들의 흩어짐과 모임이 반복되어 무리를 이룬 삼파도 같았다. 시간을 거슬러 일제강점기로 올라가면 이곳은 철도와 나란히 매포 들녘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따라 시장 주변에 읍사무소와 경찰지서가 들어서 있었고 집들은 열을 지어 동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도담역 앞 어름에 매포지서 터가 있었고 그 앞을 지천 하나가 매포 들판을 훑어 흐르고 있었다. 이를 허여 매포천인데 그 지류를 건너는 허름한 철근 콘크리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넘어서면 사창이 있던 창말이었다. 그곳 터는 찾을 수 없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사창이 있었다고 했다.



(그림9) 도담나루



(그림12) 예배

퇴계 이황은 바로 이곳을 향했던 것이다. 창말에서 갑산 동남쪽 발 끝 머리로 산길을 오르면 어리이재를 넘어 영춘으로 가는 보부상로가 있었다. 그 길은 나루의 저지나 객주들이 즐비한 단양읍과는 달리 외방 저자를 도는 보부상들이 간호 이용하는 길이었으므로 지금은 잡초가 우거져 길을 찾기 힘들었다. 그리고 동쪽 산길을 잡아 바짝 객산 밭 등성이를 오르면 상괴리를 지나 갑산 계곡을 타고 제천으로 가는 길이다. 사실 이 길로 상인들이 장날이면 매포장을 찾았다. 이곳을 매질포(買叱浦)라 했던 것도 여지도서에 관사館舍, 매질포관이 있어 여기에 매자와 포자를 따서 매포<sup>8)</sup>라 했기 때문이다. 매포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매포읍 금산리 호령산(475m)에 닿았다. 이 물줄기가 하괴리에서 머리를 돌려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갔고 천변을 따라 놓어선 논은 이곳 사람들의 삶의 원천이었다. 논에는 벼와 함께 사는 것들이 그리고 많았으나 아직 철이 이른 텃에 잡아먹을 매우기도 없고 무령도 작아 독이 진해 먹기 힘들었다. 그러나 매포천 하구 갈대숲에는 참개가 있었고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방죽이나 풀숲에 어디든지 있어 달 먹일 먹잇감은 풍부했다.

이런 하괴리는 도담리와 매포를 잇는 길목이었다. 불과 삼십년전만 해도 매포천 강변에는 추녀가 땅에 끌리 듯한 일자집 마름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부엌을 겸한 마방을 가운데 두고 위편으로 안방이 있고 오른편으로 상방과 협방이 뒤곁에 붙어있었다. 수몰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곳 하괴리 미들은 마름집 삼짝이 길가를 마주보고 간간히 개짖는 소리가 적막한 정오를 수놓는 고즈넉한 곳이었다. 융에서 반마장이나 떨어진 이곳까지 사방이 훤히 트인 시오리 남짓한 길은 그런대로 포장된 4차선 도로였으므로 걷기에도 반반하였으나 점점 나루에 가까워지면서 들판은 폭이 좁아지고 강폭은 넓어져 강바람이 세차고 매서웠다. 대저 강이란 그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어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그 끝이 분명했으나 시작이 모연한 것이 한가이었다. 그러므로 한강은 아무리 건너보아도 나루가 지천으로 깔리었고 그 시작은 필경 구천에 이를 정도로 요원하였으므로 흐름이 가볍지 않았고 숲 또한 강줄기에서 멀지 않았다. 이 줄기에 한 가닥 매달린 것이 매포천이었다. 이곳을 살짝 비켜서 도담나루가 있었고 주변에는 갈밭이 늘어져 있고 하구 가득한 돌



(그림10) 매포천에서 본 도담봉



(그림11) 도담리에서 본 도담

8) 원래가 단양군의 복일면 지역이었으나 복일면과 복이면을 합하고 1914년 전국 행정 구역조정 때 창말과 신매리를 합해서 매포리라 부르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80, 12, 1, 매포리가 매포읍으로 승격되었으나 단양읍과 매포읍 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도전, 별곡, 도담, 상진이 대통령령 11716호로 '85, 6, 20, 단양읍으로 편입되었다. 88, '90 수해와 공해이주 보상으로 매포 1,2,3우역 1,2,3리 등 모든 마을이 이주했다. 88과 '90, 8, 19, 수해로 충주면 수위조절 문제로 인하여 성신양회(시멘트공장)가 물에 잠겼다.

발 사이를 흐르는 물소리는 무거운 강을 읊이기도 했다. 갈발 사이사이 남아 있는 하얀 모래톱 멀리 도담삼봉에 가린 도담리가 보였고 웃짓을 스치는 바람이 아직도 써늘하게 느껴졌다. 모래밭으로 강물이 와서 찰 쑥 거렸다. 이곳 사람들이 항상 건너다니는 도선장은 옛 나룻목이었고 강물은 예나 다름없는 한강물결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한강물을 줄기는 길고 멀어보였다. 갈대밭위로 천바람이 불어왔다. 한차례 바람이 지나칠 때마다 갈대는 눕고 바람이 멀리 강심 쪽으로 달아나면 누웠던 갈대는 다시 우수수 머리를 치켜 일어서곤 했다. 불과 오십 년전만 해도 도담삼봉(島潭三峯)을 바라보고 영월에서 내려온 시선과 옛배들이 나루에 즐비하여 성수기에는 나루질하기 조차 힘들 정도였다. 영월에서 내려온 시탄바리들과 한양에서 올라온 소금바리들이 밤 긴줄 모르고 이곳에 들이닥치면 이곳에 난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태여 매포읍까지 들어갈 까닭이 없는 행객들은 하고리 숫막거리에서 곧잘 묵어가곤 했다. 지금은 유월지로 변해버려 콘크리트 건물로 가득해졌지만 숫막거리엔 주상들과 인근에 모인 도부쟁이와 장사꾼들로 북새판을 이루었다. 원래 규모가 있는 큰 마루라면 물화나 선객들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부교나 잔교가 있기 마련이었고 그걸 애워싼 각주와 여각이 즐비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자그마한 거래가 오가고 장돌림들의 발걸음이 찾고 보면 진이나 곳은 포구가 되기 마련이었다. 매포는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이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 할 만큼 젊은 시절 이곳에서 청유했던 도담 삼봉과 함께했고 절경을 지닌 한강의 마포와 같이 포(浦)자가 붙은 것을 보면 사실 이곳에 있던 큰 나루가 실제의 매포<sup>9)</sup>가 아닌가 생각된다. 매포라는 이름도 이 나루터 때문에 생긴 것 같았다.

매포는 소금 배와 옛배가 드나들면서 장이 시작되어 한강변에 몇 안 되는 큰 장으로 성장했을 것이다. 나루 양편에는 야거리와 당도리 폐배 소금 배들이 꼬리를 물고 잇대어 있었을 것이고 덕판을 밟고 올라서면 발에 물을 적시지 않고 강변에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밥을 짓는 화장들이 피워 올린 연기가 포구의 저지를 잿빛으로 물들이고 들병장수와 팔죽장수들이 포구로 가는 길에 좌판을 벌리고 앉아 있었을 것이다. 떠들이 장돌뱅이와 뒷거래를 트는 월자, 이들이 섞여든 포구어름은 밭들여 놓을 틈 없이 복작거렸을 것이다. 이들에게 고개를 외로 꼬며 해살거리는 술집계집들의 교태로 초장부터 모주에 취한 행인들, 밤새 화초방에 처박혀 골짜기를 쪼다가 시뻘건 눈자위로 거리를 나돌아 다닌 상인들 이들과 애듯한 사연을 지닌 이곳 여인네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영월에 영춘에 흐르고 내리는 물은 도담삼봉 안고돌고  
도담삼봉 흐르는 물은 만학천봉 안고돌고  
만학천봉 흐르는 물은 옥순봉을 안고돌고  
옥순봉을 흐르는 물은 훌려흘러 잘도가네  
얼시구 좋다 절시구 좋아 술렁술렁 잘 내려가네  
맞줄하나 클려놓니 부지거치 떠나가네  
언제가면 언제오나 기억없이 떠나가네  
잘가시오 한양손님 머나먼길 이별일세

잘있거라도 담삼봉 변치말고 잘있거라  
명년삼월 돌아오면 다시한번 만나보세  
어이가나 한양뱃길 비틀비틀 소금배야 .

서로워서 못가겠네  
영월에 영춘에 흐르고 내리는 물은 도담삼봉 안고돌고  
앞 편강에 띄우는 배는 암을실은 꽃배인데  
뒷 편강에 띄우는 배는 노래하는 놀배인데  
얼시구 좋다 절시구 좋아 술렁술렁 잘 내려가네  
(침배노래)

남들은 자식기워 호의호식한다마는  
요내신세 어이하여 술장사가 웨밀이나  
오동통통 젊어서는 아늠저늠 좋다더니  
주름지고 이빠지난 술장사도 못하겠네  
저기가는 뱃놈들아 삼봉주모 잊었느냐  
소백대백 산마물에 맑은 술을 걸려놨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삼봉주막 들르더니  
옛날일을 잊었느냐 무심한 뱃놈들아  
삼봉주모 못믿을 건 한양손님 올라왔소 소금배가  
도담삼봉 양반들아 금년에도 철석 철석  
소금배가 당도했소 기다리던 한양손님  
어서나와 반기시오 강물다라 머나먼길  
돛대달고 올라왔소 어서어서 불러주게  
동남풍에 낮을 달고 영월영춘 올라가세  
도담삼봉 꽃님네들 술걸려서 가져오게  
목이말라 못가겠네 수리술령 내려울제  
다시한번 노다가세 도담삼봉 나루에 춤삼월  
다시 찾아온 소금배 반긴다  
내려울땐 오래오래 묵어가소

올라왔소 소금배가 도담삼봉 양반들아  
금년에도 철석철석 소금배가 당도했네  
기다리던 양반손님 어서나와 반기시오  
강물따라 머나먼길 돛대달고 올라왔소  
어서어서 불러주게 동남풍아 불어주게  
영월영춘 올라가네 도담삼봉 갈보들아  
술걸려서 가져오게 목이말라 못살겠네  
수리술령 내려울제 다시한번 놀다가세  
못믿을 건 한양손님 못줄하나 클려놓니  
부지거쳐 떠나가네 언제가면 언제오나  
기억없이 떠나가네 잘가시오 한양손님  
머나먼길 이별일세  
잘있거라 갈보들아 변치말고 잘있으면  
명년삼월 돌아와서 다시한번 만나보세

9) 1894. 4. 30. 이곳에 배를 댄 이사벨리 버드 비숍여사는 그녀가 남긴 기행문에서 “한강은 소나무로 둘러싸여 절벽을 둘러싸이며 절벽은 흙으로 빙어해져 멀리 흐른다. 북서쪽에서 흘러내린 강은 수려한 절벽 아래에 이름 없는 돌에 부딪히며 돌연히 소리를 내며 높은 봉우리 세 개로 이루어진 바위로 사라진다. 공원처럼 생긴 언덕 위의 도담 마을은 궁대할 뿐 아니라 풍요로움이 있었다.”라고만 썼고 있다.

어이가나 한양벗길 비틀비틀 소금배야  
서러워서 못가겠네  
(띠벳노래)



〈그림3〉 도담 삼봉



〈그림4〉 도담리



〈그림5〉 도담 삼봉의 옛 모습

한강물이 들고나는 포구와 매포천을 바라보고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세 개의 돌섬, 이 가운데 제일 큰 바위 높이 6m의 장군봉(남편봉)을 중심으로 원쪽으로 첨봉(팔봉)과 오른쪽으로 암전하게 둘어앉은 처봉(아들봉) 세 봉우리가 물 위에 솟아있는 것이 도담삼봉이다. 국가명승 제44호인 도담삼봉 아래 모래톱이 있어 하얀 모래에 반사된 바위의 아름

다움은 가히 극을 이루었다. 김홍도는 1794년 단양지역을 유람하면서 '병진년화첩'이라는 그림첩을 남겼는데 이 화첩에 도담삼봉이 등장했다. 그러나 보물 제782호로 지정된 이 화첩에 도담삼봉 정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자승람에도 도담삼봉 정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지난 1985년에 충주댐 완공되자 삼봉의 1/3 가량이 물속에 잠기면서 모래톱이 사라졌고 정자마저 흥수로 떠내려가고 말았다. 이후 도담 삼봉에 정자가 세워진 시점에 대해 사람들은 구한밀인 순조 때 설파 1950년이라는 두 가지 설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으나 둘 다 근거가 없는 분명치 않은 추측일 뿐이었다. 도담삼봉 정자에 대한 기록이 왕조실록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도담삼봉 정자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해주는 사람은 단양군수를 지낸 조정세(趙靖世)라는 인물이었다. 실록에 의하면 영조 때 사람인 그는 풍류를 꽤나 즐긴 나머지 도담삼봉에 '능양정'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자주 이곳을 찾았는데 "단양 군수 조정세는 오로지 탐람만 일삼고 있으니, 정컨대 사판(社版)에서 지워 버리소서 하나 임금이 이를 윤허했을 정도였다" 이후 도담삼봉 정자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972년 단양에 대홍수 이후 매포에 잇는 시멘트 생산업체인 성신양회는 정자가 유실되자 지난 1976년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육각형 정자를 세운 후 이를 단양군에 기증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때 정한 공식 명칭은 '석정', '섬섬' 자를 쓴 삼도정이다.

그러나 퇴계도 아곳을 즐겨 찾았다. 그는 부암한지 석달 여만인 1548년 4월 중순 기우제를 마친 다음 도담삼봉을 유람한 것이다.

#### 하년신물동운회 何年神物動雲雷

언젠가 용이 벼락을 내려

절경중간가석개 絶景中間且石開

절경 한가운데 바위를 열었구나

만고불수파랑거 萬古不隨波浪去

만년을 물결따라 뜨지않고

외연여대사군래 巍然如待使君來

우뚝 솟아 사또 행차 기다린듯

일도편주방벽란 一棹扁舟放壁瀾

조각배 노를 저어 푸른 물결에 띄워두니

횡천삼도경광한 橫穿三島鏡光寒

세봉우리사이 바추인 차거운 빛은

소희욕진서애승 沅洄 欲盡西崖勝

서녘 벼랑 승경 찾아올라 둘러와

수방동변백옥만 須傍東邊白玉灣

동편 백옥 여울곁에 깨끗하노라

구휼을 마친 그는 발길을 돌려 단양읍을 향해 석양빛으로 발갛게 달아오른 천주산을 바라보고 길을 재촉한 그는 산길을 오르막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며 마상에서 매포를 찾은 마음을 시에 적은 다음 관아로 돌아갔다.

나는 그의 행적을 따라 산길을 다시 오르면서 조선시대 도시를 무너트린 것은 교통수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사

립과 우마차가 다니던 길이 넓혀지고 길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변하면서 폭과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도 개념도 달라졌다. 길을 걸어가면 시속 4km가 통과 속도였으나 이것이 도로로 변하자 자유로웠던 선행도 가급적 직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도시계획 이란 미명하에 건물들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량 운송수단으로 철도가 들어온 것이다. 이 모든 변화가 일제강점기란 정치 군사적으로 비극적인 세월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시기 한반도는 대대적인 교통수단의 변화가 일어난 물질문명의 전환기이기도 했다. 단양은 이런 시대상을 한몸에 지닌 대표적인 도시였다. 일제강점기 1940년대 초 중앙선 철도가 철도 역시 적성현 수양개 마을에서 성재산으로 향해 들어와서 죽령터널로 빠져나가면서 북하리에 단양역사가 만들어지고 역전 촌락이 형성되면서 덕상리 죽령천가에 촌락이 길을 따라 길게 형성되지 않았던가. 역전 마을과 옛 단양을 잇는 현천교가 세워 지면서 이곳과 읍내를 잇는 자그마한 길이 놋재를 향해 생겨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심지어 옛길이 신작로로 개편되고 상진교가 만들어지면서 5번 국도가 이 다리 건너 중도리 산록에 새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자 육로로 곧장 죽령을 너머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봉화대로였던 조선시대 길이 36번국도로 개편되자 도시는 기촌형태로 구성되기 시작했고 더 심각해짐 것은 이제까지 배를 타고 남한강을 질려가던 옛 단양 진입 방식이 달라졌다. 그리고 5번 국도와 36번 국도가 도로포장이 되자 더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 북쪽의 원주나 남쪽의 영주에서 죽령 고개를 너머 단양으로 들어오려면 북하리에서 진입해야 했다. 현천교를 지나 단양으로 들어오는 길의 사용빈도가 점점 줄어든 것이다. 이를 기화로 단양은 죽령을 너머 가는 절점도시가 아니라 충주에서 영주로 가는 길목의 통과 도시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서서히 단양은 현대 사의 뒷자락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충주댐이 완성되면서 봉화대로 구간이 침수되면서 우화교 일대가 사라진 것이다. 산업화 근대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연활용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국토개발 사업으로 험촌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터를 빼앗기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명분으로 쌓은 충주댐은 1978년 6월 공사를 착수한 이래 8년 6개월 만인 1986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이 댐의 완공으로 한강인도교의 흥수 수위는 1m 이상 저하되고 연간 33억8천만m<sup>3</sup>의 각종 용수를 경인지역과 남한강 유역 각 도시로 공급해 물 부족을 해결하는 한편, 연간 8억4천4백만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규모 수력발전으로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요즈음 추세인 것을 보면 이런 우악스러운 대규모 댐은 산이 많고 물곡진 우리 자연환경과 경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무지막지한 작품이었다. 심지어 충주 탄금대와 중앙 탑을 호수로 연결하고 본 댐에서 단양팔경

까지 65km에 걸친 수상여행 길을 열어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꾸고 동분서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쓰럽기 짹이 없었다. 이후 수몰지역 위로 충주와 죽령을 잇는 36번 국도는 선형을 변경하여 다시 개설되었으나 한번 손상된 역사적인 정체성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가장 큰 손실은 인구 밀도가 높았던 하방리 중방리 일대가 지대가 낮았던 관계로 충주호 담수로 어이없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남한강 줄기를 가운데 두고 갈라진 듯 이어지는 단양읍과 매포 이 두 도시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 문화와 역사인식을 대표하는 우리시대의 얼굴일지도 모른다. 이제 천주산의 석양빛은 단순한 황혼 빛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빛과 함께 매포와 단양읍에 가득해지기 시작한 전등불빛은 자신을 거부하는 차거운 손이었다. 그 빛은 내 안의 어둠을 밝히는 그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살벌한 눈빛이기도 했다. 몇 일전 만 해도 나는 빛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단하듯동안 벌어진 일이 마치 멀고 아슴한 꿈결에서 겪은 일처럼 느껴졌다. 현재의 모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흡사 도둑고양이처럼 도시의 불빛을 피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몫골이 서글프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석양빛을 애써 외면한 채 길을 재촉했다. 단양읍내를 바라보고 상진나루로 산길을 재촉했을 현감 퇴계 이황도 그랬을까.

어느덧 건축사지와 약속했던 상권 11회가 저물었습니다.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신문으로 쓴다고 열의 가득했던 지난날들을 되짚어 보면 부족함을 느끼는 각고의 노력을 요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미려한 생각들을 정신없이 천매에 가가운 원고지에 도해내면서 역사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내 나름대로의 정의에 충실했고 부단히 노력했고 감성으로 읽는 장소의 역사 도시와 건축의 역사를 쓰려고 수없는 밤을 밝혔으나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의욕을 가지고 더 많은 답사와 공부로 이 글 후반부를 마쳐야 한다는 기대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애정어린 인내로 이 글을 세세히 읽어고 총고를 주신 많은 건축사 여러분과 학생 건축인들 그리고 늘 마감에 쓰긴 이 글을 관대하게 보아주었던 편집위원회들과 편집에 고생을 했던 최 팀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

## 이사회

### 제8회 이사회

2010년도 제8회 이사회가 지난 8월 18일 오후 4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대외기관과의 MOU 체결에 관한 건, 「한국건축문화 60년」 방송사업 추진에 관한 건, 건축사공제조합원 자격에 관한 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사무공간에 관한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2017년도 UIA총회 유치 추진에 관한 건, 특별회원 승인에 관한 건, 「한국건축문화 60년」 방송사업 추진에 관한 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사무공간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대외기관과의 MOU 체결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함.
- 제2호 : 「한국건축문화 60년」 방송사업 추진에 관한 건  
-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공제조합원 자격에 관한 건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원의 자격을 협회 회원으로만 한정할 경우의 법률상 문제점과 손익분기점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재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사무공간에 관한 건  
-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17년도 UIA총회 유치 추진에 관한 건  
- 2017년도 UIA 총회유치를 추진키로 하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므로 예산규모가 정해지면 추후 이사회에서 방침을 정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특별회원 승인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한국건축문화 60년」 방송 사업 추진에 관한 건  
- 「한국건축문화 60년」 방송제작 용역을 YTN에 의뢰하기로 하고, 저작권은 협회가 보유하거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함.
- 소요경비는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사용하고, 추가경비는 일시차용한 후 협찬금 수입이 되면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함.
- 제4호의안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사무공간에 관한 건  
- '11.6월 이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사무공간으로 '11.5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6층 좌측공간(166.56평)을 활용하기로 함.
- '10.11월부터 '11.5월말까지는 4안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함.

#### ▷ 임시사무공간 : 4안(소회의실+편집실

+여성건축가협회) 약 37평

- 편집실은 사랑방으로 이전하되, 불가피할 경우 여성건축가협회 상근직원과 함께 사용
- 감사실은 감사가 이용하지 않는 기간에 한해 회의실로 활용
- 여성건축가협회의 국제회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사는 10월말 이후 개시

## 위원회 개최 현황

### ■제3회 제2법제도개선위원회

제3회 제2법 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 추진 계획에 관한 건  
- 저작권 관련 :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계획설계 등)이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위원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추진방향(연구용역 필요성 등)을 정하기로 함.
- 특히 관련 : 특허청에 방문하여 우리협회가 건축부문 특허 관련 심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상호 협조할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2호 : 공공관리자제도 설계자선정기준 개선에 관한 건  
- 설계자 선정기준에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설계자의 "사후설계관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호 : '잘된설계', '효율적인 설계' 판단방법 예시(안)에 관한 건  
- 동 제도의 검토의견 초안에 대해 위원장이 검토한 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3회 문화홍보위원회

제3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  
-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

### ▷UCC공모전

- 수상작 DVD제작안을 검토함.
  - UCC공모전을 위한 별도의 TF팀 구성해 협찬금 요청, 주요사항 결정, 심사 등 공모전 추진
- ▷조직위원회 명단  
▷HAF&GV 명단

### 할 것을 협의 함.

- 논외로 조합 창립선포식 등에 활용하기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슬로건을 만들어 다음 공제사업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는 공제사업안내서와는 별도로 공제업무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을 협의 함.

### ■제6회 공제사업위원회

제6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보험사 업무제휴의 건  
- 홍국화재가 제출한 손해배상공제요율(안)은 2009년 제5차 1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재보험사와 협의를 끝내 후 다시 제출받기로 하고,
- 공제사업위원회는 홍국화재가 제출한 손해배상공제요율, 보험료, 사업비, 기타 지원사항 등을 검토하고, 업무부담비율, 계약기간 등을 논의하여 업무제휴 협정(안)을 확정짓기로 협의 함.
- 제2호 : 홍보물 제작의 건  
- 공제사업안내서의 배포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10월 초에 발송하여 조합 창립선포식(2010. 10. 22) 이전에는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협의함. 다만, 관공서 등은 공제사업 시행 후 발송할 것을 협의 함.
- 안내서의 내용에 건축사법 개정사항, 특히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바뀌는 제도를 인식하고 조합가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를 서두에 명시하도록 하고, 디자인, 문안 등도 홍국화재와 협의하여 호감도를 높이고 내용의 이해가 쉽도록 정리할 것을 협의 함.

### ■제3회 전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제3회 전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집행위원회 조직변경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 : 2010 전국건축사대회 기획사 선정의 건  
- 우선협상대상 기획사인 K-SUM A&C로 확정되며,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속적으로 보완해 가기로 함.
- 제3호 : 전국건축사대회 예산(안) 승인의 건  
- 대회예산은 총 3억원 범위내로 하고, 재원은 본협회 지원금 1억 5천만원 이외에 협찬금으로 본협회 9천만원, 경기도건축사회에서 6천만원을 마련하기로 함.
- 홍보동영상은 본협회에서 한국건축문화 60년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으므로 동영상 5분내외로 편집하여 사용하기로 함.

### ■제4회 전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제4회 전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전국건축사대회 개최계획(안)에 관한 건  
- 전국건축사대회 개최계획(안)에 관하여 협의함.

## ■ 제5회 친환경위원회

제5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MOU 체결에 관한 건  
-KGBD(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MOU 체결 협약서(초안)으로 협의하고, 체결 당일 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친환경포럼 및 친환경 책자 발행에 대해 협의하기로 함.
- 제2호 : UIA 친환경건축 분야 전문가 추천에 관한 건  
-UIA 관련 친환경건축 분야 전문가로 강정삼 위원장, 장현숙 이사를 추천하기로 함.
- 제3호 :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건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은 원안대로 하되, 협회가 친환경건축물을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각각 분야에서 (임원진, 사무처, 위원회, 회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함.
- 제4호 : 친환경건축 포럼 개최에 관한 건  
-산업대전 기간(‘10년 10월 21일 (목) 오후) 친환경 포럼을 개최하기로 함.
- 제5호 : “친환경 저에너지 통합 설계 사례집” 세부계획에 관한 건  
-친환경 저에너지 사례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공조 토토록 함.
- 제6호 : 기타의 건  
-해외 친환경 건축물 탐방에 관한 건  
▷ 11~12월 중 일본 친환경 건축물 탐방을 실시하기로 함.

## ■ 제6회 친환경위원회

제6회 친환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건축 포럼 개최에 관한 건  
-산업대전 기간 중 ('10년 10월 21일) 일산 캠퍼스 204세미나실에서 친환경·리모델링 포럼을 개최하기로 함.
- 제2호 : “친환경 저에너지 통합 설계 사례집” 세부계획에 관한 건  
-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실무TF팀을 구성하여 “친환경 저에너지 통합 설계 사례집” 발간에 협력하기로 함.

## ■ 제4회 친환경건축아카데미 교무회

제4회 친환경건축아카데미 교무회 회의가 지난 8월 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제4기 교육생 결강신청 처리 및 수료인원 확정에 관한 건  
-학사관리세칙 제2조의 2에 따라 결강신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수료인원을 확정하기로 함.
- 제2호 : 제2기 취업연계과정 모집에 관한 건  
-모집공고(안)을 수정하여 공고하기로 함.
- 제3호 : 홈페이지 개편(안)에 관한 건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협회의 회계규정(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9호)을 준용하여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업체선정 방식은 수의계약하기로 함

## ■ 제5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제5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축설계를 포함시 문제점 및 정리에 관한 건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축설계는 제외하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건축설계를 규정하고 있어 책임은 발생하

나 권한은 없는 법의 모순 및 문제점을 다음과 회의까지 정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제2호 : 기타의 건(※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에 관한 건)  
-동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되, 법체계 및 법리적인 문제점(난개발 우려)을 해결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여 이제도의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 제5회 정책위원회

제5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지 500호 기념 대토론회 실행 계획에 관한 건  
-금년 10월 중 건축계 유사행사가 여러 건 추진되는 바, 중복을 방지하고 행사 추진 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행사 지원 및 추후 국회 토론회 등 개최 시 이미 기획한 내용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함.
- 제2호 : 조사·검사업무 개선의 건  
-조사·검사업무 개선 추진에 앞서, 본 협회에서 기 수행한 관련 연구의 보고서를 정책위 구성원 개인이 배포 받아 상세히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서 문제점 및 개선 대안을 제시, 정리하기로 함.
- 제3호 : 설계감리용역업 구조개선 추진에 관한 건  
-설계감리용역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본 협회 홈페이지에 관련 문제 사례 및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건의하기로 함.

## ■ 제3회 회원교류위원회

제3회 회원교류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 상반기 동호회 활동상황 점검  
- 2010년 한중일 친선축구대회(2010. 6. 19~22 중국 상해)에서 대한건축사축구 연합회가 우승함.
- 등산 동호회 총회원(415명) 중 상반기 등 산대회(2010. 6. 12 충남 계룡산)에 200여 명이 참석하였음.
- 제2호 : 2010년 하반기 동호회 활동상황 점검  
- 동호회 지원금 중 마라톤 동호회 지원금(300만 원)을 당초 분할지급(200만 원, 100만 원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하반기 마라톤 대회(2010. 11. 7)에 맞추어 분할지급 이 아닌 일괄지급(300만 원)하기로 함.
- 제3호 : 2010년 전국건축사대회시 위원회 활동 사업계획 및 협조사항 논의  
- 2010년 전국건축사대회시 동호회별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주관하는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송치윤 부위원장과 백원철, 김원운, 정병협 위원이 계획하기로 함.
- 제4호 : 전국건축사골프대회 개최의 건 협의  
- 전국건축사 골프대회를 추진하기로 함.

### ▲ 기타

- 동호회 등록 및 지원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기로 함.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지원율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의 연회비의 1/12를 기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분배 지원한다.

1. 당해년도의 사업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 분배한다.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지원율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의 연회비의 1/12를 기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1. 당해년도의 사업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 ■ 제4회 문화홍보위원회

제4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건축 연수 실시, 도시·건축 관련 공동연구와 학술 및 정보 교류 등을 펼칠 계획이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에 관한 건  
-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함.
- ▷ 제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준비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

### ■ 제13회 행정위원회

제13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2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검토의 건  
- 제1장(총칙)부터 부칙까지 축조심의한.

또한 우리협회는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친환경건축물 개발, 확산 및 보급을 위한 협약을 지난 8월 30일에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과 이용락 상근부회장, 김영수 부회장, 장현숙 이사, 전명철 상근이사, 강정삼 친환경위원장 등이,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는 조균형 회장과 이승복 부회장, 이선영, 김애경, 이기완 이사가 참석했다.

양 단체는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정보 수집 및 공유, 친환경건축 관련 공동연구, 친환경건축물 인증 관련 제반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충북건축사회

#### 친환경건축실무교육 실시



**우리협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및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와 업무협약**



우리협회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 8월 27일 건축사회관 8층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을 비롯해 이용락 상근부회장, 이창을 부회장, 장양순 이사, 전명철 이사 등 5명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허재완 회장과 이우종, 최막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앞으로 두 단체는 업무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국내외 도

충북건축사회(회장 구창서)는 충청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부와 산학협동으로 충청대학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8월 30일부터 9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친환경건축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건축사, 교수, 건설회사 담당자들이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 사례 △친환경 통합설계 전략 그린도시 창출을 위한 건축물 역할과 설계방법 △해외 친환경건축 동향과 사례 등 의 내용으로 교육을 펼쳤다.

# 대한건축사협회-환경부 ‘녹색설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우리협회와 환경부가 지난 9월 8일 건축사 회관 1층 대강당에서 ‘녹색설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물의 녹색설계 구현,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과 환경부 이만의 장관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김상일 원장, 협회임원 및 전국 16개 시도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 친환경건축물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영집 회장은 환영인사에서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오늘 이 협약식은 아마 건축인 모두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동안 녹색성장의 기수, 친환경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건축사협회라고 표어를 정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과 관련한 여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마침내 오늘은 환경부와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되니 대단히 기쁘면서도 짐이 무겁게 생각된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빙아 녹색설계 보급, 확산방안이 적극 마련되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만의 장관은 “오늘 녹색설계를 위한 협약을 대한건축사협회와 체결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역사적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에 계신 건축전문가들께서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건축을 선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심지어 내리는 비까지 이 모든 것은 자연자본이다. 이러한 자연자본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강국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신념이다”며, “아울러 모든 중심은 사람에 있다. 사람이 깨어나면 사회가 깨어나고 사람



이 달하면 그 사회가 열리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리더쉽을 갖고 친환경을 위해 앞장 서주시길 바랍니다”고 꾀렸다. 이 장관은 협약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경쟁력, 인류 사회의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호흡하자고 강조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실천협약서 서명식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들과 환경부 장관이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장관은 16개 시도회장들과 서명 후 일일이 약수를 나누며, 전국적인 녹색설계 구축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와 환경부는 건축물로부터의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한정된 자원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통한 친환경적 공간조성에 건축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친환경건축물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건축사회 건축도시관련 세미나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신우식)는 지난 9월 10일 청운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도내 건축사, 공무원, 교수,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도시관련세미나'를 가졌다.

충남건축사회 신우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기조와 현대건축의 관심사인 지속 가능한 설계, 친환경 건축설계, 저에너지 고효율의 설계 등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 학, 연, 관이 각 분야의 경계를 넘어 소통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고 했다."

세미나의 내용으로는 청운대학교 이리행 총장의 '초고층 건축 현재와 미래', 룻데건설 김규동감사의 '초고층 건축시공에서의 콘크리트 엔지니어링 기법', 네트로피의 저자인 한지훈 강사의 '아생적 창조', 독일 볼프강 크눌 교수의 '기하학적 조형디자인의 원리'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 전북건축사회 창립 45주년 기념 '건축문화축제' 개최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는 창립 제4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국가발전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해온 건축사의 업적을 기

리고, 21세기 친환경 건축문화시대를 맞이해 건축사의 역할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건축문화축제'를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과 전주향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대행사로 건축작품전과 초청강연회 및 기념식을 가졌다. 먼저 건축 작품전에는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작품은 물론 중국 강소성감찰설계협회 회원작품과 독일건축사협회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했는데, 작품전을 통해 건축설계의 중요성과 전라북도 건축사들의 작품 활동 역량을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스포츠 경기장의 멤브레인 공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류춘수 건축사의 강연은 좌석이 보자람 정도로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다.

기념식행사를 통하여서는 건축인과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 그동안 건축사협회 발전과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건축인을 표창하고 격려했다. 끝으로 축하공연에서는 문화예술의 각 장르별 예술인을 초청하여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전북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창작예술의 한분야인 건축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2010 건축의 날' 행사 개최

'2010 건축의 날' 행사가 오는 10월 4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가 주최, 우리협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관계인사, 건축사, 대학교수, 실무종사자 등 내외빈 400여 명이 초청돼 자리将持续 예정이다.

행사는 강연회 및 시상식(유공자 포상), 리셉션, 건축영화상영, 해외진출 건축작품 특별초청 전시 등이 열려 어느 해보다 알찬 행사가 될 전망이다.



주최 측인 3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21세기는 우리나라의 선진 건축문화 창달과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건축실현을 위해 건축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건축인의 자긍심을 높여갈 때로, 매년 벌이는 이 행사로 국격의 기본인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국민과 함께 기본토양을 조성하며 건축선진국으로 진입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축의 날은 우리민족의 역사적 건축물인 경복궁 창건일(9월 25일)을 기념해 제정된 건축인들의 기념일로, 미래의 한국건축문화의 방향성에 다양한 정보교류 및 그 공로를 치하하자는 의미로 3단체가 하나 돼 마련한 행사다.

## 우리협회 '신인건축사 작품전' 공모

우리협회에서 주최하는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며 모든 건축인들 간의 정보교류와 비즈니스 및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인 '한국건축산업대전2010'과 건축계의 단합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건축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시상제도로서 시상 및 전시회를 갖는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관련 신기술 보급과 선진화방안을 논의하는 '건축사연수교육'과 친환경특별포럼 등이 함께 개최되는 행사에 회원사의 홍보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사 작품전이 개최된다.

전시기간은 오는 10월 20일(수)부터 10월 24일(일)까지 총 5일간이며, 위의 행사가 개최되는 킨텍스 제3홀의 전시장내 홍보부스에 전시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업 10년 이하인 회원이 출품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http://www.kira.or.kr))를 참고하면 된다.

### • 출품방법

- 접수기간 : 2010년 9월 1일 ~ 9월 30일

- 출품비 : 200,000원 (1인 1작품 초과시 작품당 100,000원씩 추가비용)

- 납입계좌 : SC제일은행 435-20-40375  
(예금주 : 대한건축사협회)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전시 사업팀 02-3415-6866/67

## 2010 전국건축사미술전 개최

한국건축산업대전과 연계하여 개최되는 '2010 전국 건축사 미술전'이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 3 Hall(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미술전은 대한건축사협회 미술동호회(회장 강성익)가 주최하며 '건축사의 정서가 순수 미술에 대한 일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보다 좋은 건축을 창조할 수 있다'는 모토로 개최된다.

한국건축산업대전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

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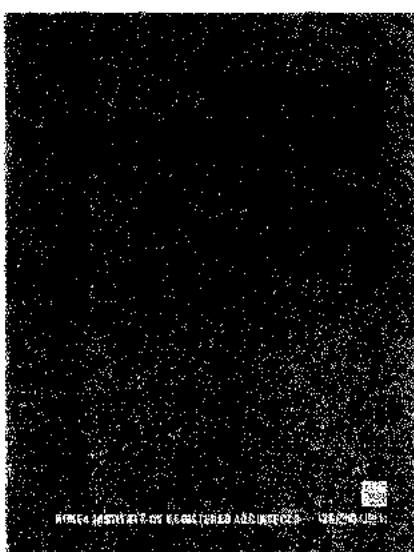
• 문의 : 이원희 건축사(주)미공 종합건축사 사무소) 011-9036-7390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02-3415-6863

02-3415-6862~4

## 작품집

###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2011 세계건축사연맹(UIA) 동경 총회 발표초록 제출 안내

2011년 9월 25일(일)부터 9월 29(목)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2011년 세계건축사연맹(UIA) 총회'의 발표초록 제출 안내문이 다음과 같이 접수되어 안내 하오니, 국내의 유능한 건축사, 엔지니어, 연구원 및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발표초록 접수〉

가. 제출구분 : Research Paper / Design Works (준공 또는 계획)

나. 주제 : Design 2050  
(부주제 : 환경, 문화교류, 삶)

※ 발표자의 건축에 대한 비전 및 이상적인 도시, 2050년도의 도시건축디자인을 예측하여 표현할 수 있음.

다. 참가대상 : 건축사, 엔지니어, 연구원, 전공학생

라. 발표기간 : '11. 9. 26(월) ~ 9. 28(수)  
마. 초록 제출기한 : '10. 10. 31(일)까지

• 발표수락 여부(구두 및 포스터)는 선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통보 예정

비. 제출방법 : 2011 동경 총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제출, 영어로 작성([www.uia2011tokyo.com/en/callfor/](http://www.uia2011tokyo.com/en/callfor/))

※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http://www.kir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소식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 「캔버리어코드」6년 인증 획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원장 임창복/이하 KAAB)이 지난 8월 4일 열린 캔버리어코드 국제전화회의를 통해 회원국 및 관련 기관의 만장일치로 6년 인증을 획득하는 개회장을 올렸다.

캔버리 어코드(Canberra Accord)는 국가 별 건축사들 간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각 해당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건축사등록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증된 건축학 전문학위를 인증기관들 간에 상호 인정해주는 협약이다.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멕시코의 회원국과 CAA(영연방건축사연합)에서 이번 인증을 받음으로써, 각 국가 및 기관이 인정한 건축학교육 학위의 동등성이 상호 인정되어 건축전문 인력의 국제 유동성이 확보됐는데, 무엇보다 건축사 자격의 국제간 상호 인정을 위한 기본 블록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상호간에 건축사 자격이 동등해지면, 향후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국내 건축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증은 지난 2009년 4월에 열린 캔버리어코드 제2차 서울총회에서 운영을 위한 세부 규준 및 절차가 제정 및 보완됐으며, 정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회원 간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평가하는 기준 및 일정이 확정됐다. 이후 KAAB는 실사를 위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캔버리어코드 사무국은 2인으로 구성된 실사팀을 한국에 파견,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팀은 실사결과보고서를 캔버리어코드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회원들은 이를 검토해 인증을 결정하게 됐다.

실사결과에 대한 최종결정은 최고 등급인 6년 기간 정회원 자격 유지와 단기간에 개선이 요구되는 3년 그리고 준회원국으로 강등의 3단계로 구분된다. 향후 회원들은 2011년 중

국, 2012년 캐나다, 2013년 미국, 2014년 CAA, 2015년 호주 일정으로 회원 간 상호평가가 진행되며, KAAB에서도 회원들의 평가에 대표단을 보내 참여하게 된다.

을 견학한다.

세계여성건축가협회(UIFA)는 지난 1963년 설립된 단체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80여 개국이다.

###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 개최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오경은)는 오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2010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를 개최한다.

전세계 여성건축인들이 서울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세계여성건축가협회(UIFA)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적 이슈인 'Green Environment'에 대한 고취와 한국의 건축문화, 한국 여성건축사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개최된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80개국에서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어느 해보다 큰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10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식과 환영만찬을 비롯해 세션별로 'Green Environment'란 주제 하에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서울시내의 한국문화와 건축작품을 탐방하는 코너도 마련돼 각국 참가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예정이다. 이밖에 POST-TOUR는 지역에 위치한 국내 건축을 만날 수 있는 코너로, 전주 한옥마을과 경부 불국사, 석굴암 등

### 2010와이드AR 건축비평상 공모

격월간 건축리포트 「와이드」를 2008년 창간한 강형미디어랩이 다가오는 2011년 1,2월호로 창간 3주년을 맞이하여 '와이드AR 건축비평상'을 공모한다.

응모작은 기존 매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작품, 인물 등 소재뿐만 아니라 건축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시의성 있는 문화현상을 다루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한국건축평단의 재구축과 새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기획됐다.

- 응모자격 : 내외국인, 학력,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응모편수 :
  - 주평론(1편) : 200자 원고지 50~70매 사이
  - 단평론(1편)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응모마감 : 11월 30일 까지
- 당선작 발표 : 2011년 1월 초 개별 통보, 건축리포트 「와이드」 2011년 1,2월호 지면 및 네이버카페 'AQ Korea' 게시판
- 시상내역 : 당선작 1인\_상장, 상금 100만원 / '와이드AR' 필자로 우대하여 집필기회 제공, '건축평론동우회'의 회원자격 부여
- 문의 : 02-2235-1960

### 2010 후반기 원도시아카데미 세미나

2010년 원도시아카데미의 후반기 세미나는 'CONVERGING'이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해 건축을 생성하는 관계의 네트워크에 집중하고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 공간의 매개적 단위건축을 제안하는 건축사의 해법을 들여다본다.

- 행사개요
  - 형식 : 초대작가의 전시와 중진건축가, 교수, 비평가가 참여하는 집담회 형식
  - 전시 : 초대작가의 작업을 보여주는 내용물을 전시

-집단회 초대작가들의 PT이후 패널들을 통한 초대작가의 건축세계에 대한 아래

- 일정 : 매월 두 번째 목요일 7시
- 9월 9일 : BAU건축 / 패널 : 구영민, 김원식, 이종건, 이충기
- 10월 7일 : 정수진(SIE건축) / 패널 : 구영민, 박준호, 배영환, 함성호
- 11월 11일 : 곽희수(이엠건축) / 패널 : 공철, 김광수, 김승귀, 함성호
- 장소 : 원도시건축 자하 1층 홀
- 문의 : 02-2156-6764,

[www.wondoshi.co.kr](http://www.wondoshi.co.kr)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 공모전에서 건축물 부문에 원광대학교의 'Harmony' 와 가로(街路)디자인 부문에 명지대학교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건축물 부문 대상 수상작 'Harmony'는 유선적 디자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일한 공간에서 장애 없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요소별 공간의 장애인 생활환경을 잘 표현하여 대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의 확대 보급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모전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을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장애인 등 시설 및 교통이용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편의시설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 신간안내

#### 건축기술지침 (R1)



대한건축학회, 대우건설 저 | 공간예술사

「건축기술지침」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판을 거듭하며, 동일 분야의 모든 면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책으로 호평 받아 왔다.

하지만 시대적, 기술적 변천과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누적된 모순이나 오류를 장기간 내재함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신간 「건축기술지침」은 그동안 새롭게 정비되거나 제정, 개정된 각종 법규, 코드(Code) 등은 물론 최근 새로 개발된 관리 툴(Tool)이나 재료, 신기술·신공법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내용과 구성면에서 획기적인 개정·증보됐다. 또한 종전 책의 내용이나 구성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만 수정·보강하는 단순개정 방식을 벗어나, 기존의 내용 및 도면 구성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과감히 수용하여 전반적으로 완전 재구성하는 전면개정 방식을택했다고 한다.

총 4권으로 구성됐다.  
(건축 I - 508쪽 | 건축 II - 472쪽 |  
기계 - 236쪽 | 전기 - 272쪽)  
• 문의 : 02-737-1020

## 과밀화된 Canal Street를 위한 계획

뉴욕의 개발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Canal Street의 인구 과밀현상을 최고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중이다.

차이나타운의 커뮤니티 멤버들과 개발업자들로 구성된 한 그룹은 이 지역의 건물 높이제한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Canal Street을 따라서 현존하는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 노력으로서, 실제 부동산의 소유주들과 개발자들의 연합위원회인 Chinatown Business and Property Owners Group은 이웃의 주요 도로변의 밀도를 서류로 작성하기 위한 조닝스터디를 발주하였다.

개발업자들은 그 스터디를 맡은 Claire Weisz of WXY Architecture + Urban Design이 만들어 낸 이 연구 결과가 이웃과 Chinatown Working Group(CWG) 그리고 커뮤니티 보드에 의해 제안된 토지 계획으로서 시에서 언제든 추진할 미래의 이 지역을 계획을 가이드하고 197-a이라 불리는 이 지역의 계획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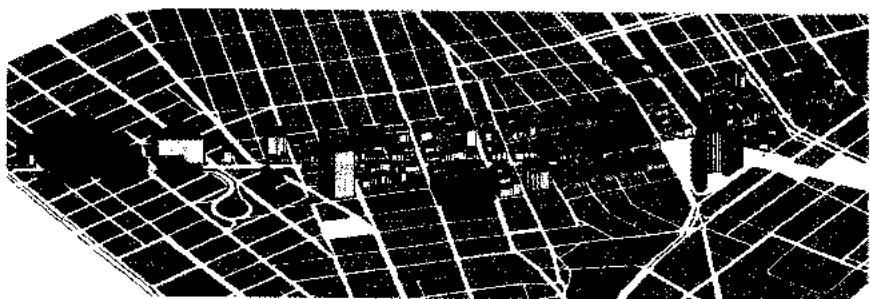
Weisz는 “이 아이디어는 개발할 기회가 무로익은 잠재된 지역을 보는 것에 의한 것이다. 거기에는 더 많은 공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회사는 CWG가 197-a를 준비하기 위한 도시계획 자문위원을 선택하는 시기에 맞추어 가을에 보행자들과 공공 공간에 대한 보고서로 화제가 될 것이다.

개발업자 그룹은 Canal Street과 차이나타운의 중심부에 집중하는 중이다.

개발업자 그룹을 위한 Edison Properties 와 대변인에게 고용된 계획상당가 Douglas Woodward는 “우리는 특히 Centre Street 가까이 그리고 아마도 Bowery는 개발하면 건물의 출입구에 간판을 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느낀다.”라고 말한다.



김은미 / Studio M.Ap  
by Kim, Eunmee



Woodward는 Canal Street의 미래의 예시로써 지난해의 125th 거리를 재구분한 사례로써 지목하였다. 그러나 Harlem 계획처럼, 재구분을 위한 제안들은 많은 주민공동체 조직으로부터 반대에 부딪쳤다.

올해 초에, 차이나타운 보호 연합과 Lower East Side는 Hunter College's Department of Urban Affairs and Planning 학생들과 학부가 진행한, 개발에 의해 small business가 이전되어 지는 것을 보호하는 일명 downzoning 이란 연구 발표에 참석했다.

이 보호 연합은 이후로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CWG와 함께 일할 것을 결정했다. CWG의 최근 문화, 자금력과 조닝제안은 구획을 하나의 대안적이고 효과적으로 거대한 건물들과 높은 임대료를 겪는 것을 막는 것으로써 다운조닝화 하는 보호연합 측 논리와 대립한다. 또한 개발업자들 그룹은 높은 FAR은 저소득층이 이용 가능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대안은 지정된 구역을 중간소득층

대상을 위한 특별배당금을 지급하는 운하와 따라서 업 조닝하고 몇몇 B 클래스와 C 클래스 오피스 공간과 이미 존재하는 생산구역의 보존을 제안하는 것이다.

대안은 새로운 개발을 위한 공공 공간과 보행자들의 순환요구를 받아들인다.

“다양한 사선의 그리드와 충돌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성된 주요 공간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Weisz는 밝혔다. “공공 공간과 디자인은 Canal street을 위한 몇몇 흥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Weisz의 연구는 운하 주변의 보행자들의 행동과 공공공간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무수한 보행자들과 대조되어 거의 간과된 이 거리의 역사의 정보를 모으는 것 같다.

뉴욕은 우리 서울과 같은 밀도가 높고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부동산 가치가 높은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이지만 우리와 같이 불복이나 지역 지구를 통째로 시들여 계획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차이나타운에

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다.

일단 건축사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러한 대립된 시선을 주장하고 입증해 가는 토론을 하는 바탕에 건축사와 도시디자이너가 깊숙이 관여하고 표면에 나와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개발업자들에서 의뢰를 받은 건축사사무소도 건축설계와 도시 디자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무소이며 반대편 측 역시 대학의 연구 발표로서 대응하는 과정이 비록 각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지만 무척 설득력 있어 보이는 과정인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논리와 자금력을 갖춘 측이 승리를 가져가지만, 이러한 성숙한 건축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가끔은 논쟁의 승자 가이기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아직 같은 개발을 두고 두 개의 목소리로 대립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이지만 이 두 건축 그룹의 후속 보고서들과 합의 과정 또 그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

대한거축사협회 거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0년 7월말

부서	구분	전체	전체	부서별 예산												증액	감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년	5년비상	총계						
합계		5,298	5,298	107	214	8	24	5,413	5,536	1,639	1,639	247	494	64	192	24	96	25	170	1,399	2,591	7	7,412	8,127
서울		902	902	26	52	2	6	930	960	882	882	143	286	40	120	12	48	15	93	1,392	1,429	6	2,022	2,389
부산		468	468	17	34	2	6	487	508	97	97	18	36	3	9	0	0	3	24	121	166		808	674
대구		414	414	21	42	3	9	438	485	62	62	20	40	4	12	2	8	2	0	90	132		528	597
인천		269	269	3	6	0	0	272	275	61	61	8	16	0	0	1	4	0	0	70	81		342	356
광주		203	203	1	2	0	0	204	205	39	39	7	14	3	9	2	8	0	0	51	70		255	275
대전		241	241	6	12	1	3	248	256	34	34	9	18	3	9	1	4	1	1	48	82		296	338
울산		178	178	6	12	0	0	184	190	17	17	1	2	1	3	0	0	0	0	19	222		203	212
경기		716	716	3	6	0	0	721	724	233	233	17	34	3	9	2	8	1	5	256	289		977	1,013
강원		171	171	2	4	0	0	173	175	26	26	2	4	0	0	1	4	0	0	29	34		202	209
충북		208	208	4	8	0	0	212	216	31	31	5	10	1	3	1	4	2	15	40	63		252	279
충남		233	233	1	2	0	0	234	235	45	45	5	10	2	6	2	8	0	0	54	69		288	304
전북		237	237	4	8	0	0	241	245	22	22	3	6	2	6	0	0	0	0	27	34		268	279
전남		190	190	1	2	0	0	191	192	16	16	2	4	0	0	0	0	1	6	19	26		210	218
경북		350	350	5	10	0	0	355	360	36	36	4	8	1	3	0	0	0	0	41	47	1	396	407
경남		406	406	7	14	0	0	412	419	28	28	3	6	0	0	0	0	0	0	31	34		443	453
제주		111	111	0	0	0	0	111	111	10	10	0	0	1	3	0	0	0	0	11	13		122	12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전	부	제	비	증
	수	과	과	율	화원
합 계	8,127	10	8,137	100.0%	23
서 울	2,389	3	2,392	33.9%	10
부 산	674	1	675	7.9%	9
대 구	597	0	596	7.7%	0
인 천	356	0	353	3.8%	0
광 주	275	0	272	3.7%	0
대 전	338	1	339	3.7%	0
울 산	212	0	212	2.6%	0
경 기	1,013	2	1,015	12.2%	2
강 원	209	0	209	2.6%	0
충 봉	279	0	278	3.0%	0
영 달	304	3	307	3.1%	0
전 북	279	0	279	3.0%	0
전 남	218	0	216	1.9%	0
경 북	407	0	409	4.6%	1
경 남	453	0	447	5.0%	1
제 주	124	0	125	1.3%	0

##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회원수	법인사무소	전업마차리	합계	비고
5,536	2,591	86	8,127	
비율	68.12%	31.88%	1.08%	100%
사무소수	5,413	1,999	—	7.412
비율	73.03%	26.93%	—	100%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i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